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시니어연구 2023-03

ISBN 979-11-92210-48-3

인천시 세대통합을 위한 상호작용 활성화 방안

Incheon Metropolitan City Center for Aging Society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책임연구원

한지수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박윤정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제3절 연구 추진 방향 및 일정	8

제2장 문헌 연구

제1절 세대통합의 개념	11
제2절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와 세대통합	21
제3절 세대통합 사업 사례	31

제3장 세대통합 사업 관련 조사

제1절 세대통합 사업 관련자 초점 집단 인터뷰(FGI)	61
제2절 FGI 분석 결과: 구조적 장애요인과 개선 방안	101
제3절 세대통합 사업 가이드라인	111
제4절 세대통합 사업 사례 제안	115

제4장 정책 제언 및 결론

제1절 정책 제언	121
제2절 결론	130
참고문헌	134

표 목차

〈표 2-1〉 우리 사회 집단 간 소통 수준- 세대 간	15
〈표 2-2〉 고령층에 대한 연령별 감정적 거리감 인식	16
〈표 2-3〉 우리사회 갈등정도- 고령층과 젊은층	17
〈표 2-4〉 사회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집단	18
〈표 2-5〉 연령통합수준 국제비교	20
〈표 2-6〉 국내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현황	23
〈표 2-7〉 고령친화도 체크리스트	27
〈표 2-8〉 1·3세대 대상 세대통합 사업 사례	32
〈표 2-9〉 1·2·3세대 대상 세대통합 사업 사례	35
〈표 2-10〉 인천시 노인복지 관련 기관 세대통합 사업	48
〈표 2-11〉 노인복지 기관 외 세대통합 사업	53
〈표 2-12〉 유형별 개방형 경로당 조성 현황	55
〈표 3-1〉 FGI 참여자	62
〈표 3-2〉 FGI 참여기관의 세대통합 관련 사업	73
〈표 3-3〉 인식 관련 영역 장애요인	104
〈표 3-4〉 물리적 환경 관련 영역 장애요인	107
〈표 3-5〉 사업적 역량 관련 영역 장애요인	110
〈표 3-6〉 세대통합 사업 가이드라인	111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추진 방향	8
〈그림 1-2〉 연구 추진 일정	8
〈그림 2-1〉 우리 사회의 집단 간 소통 수준	14
〈그림 2-2〉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주요 8대 영역	21
〈그림 2-3〉 인천시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 비전과 추진 목표, 영역	24
〈그림 2-4〉 인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실행계획 영역 및 세부 과제	24
〈그림 2-5〉 인천시 GNAFCC 사이트	25
〈그림 2-6〉 WHO가 제시한 고령친화도 체크 리스트	26
〈그림 2-7〉 인천시 소통 및 사회통합 영역 세부과제 및 세부사업	30
〈그림 2-9〉 PFP의 고립 노인 지원 사업	39
〈그림 2-10〉 PFP의 공동체 활동 사업	40
〈그림 2-10〉 PFP의 취약 노인 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	41
〈그림 2-11〉 CoGerenate의 주요 사업	43
〈그림 2-12〉 Mehr Generationen Haus의 주요 사업	45
〈그림 2-13〉 LGNI의 주요 사업	46

요약

Incheon Metropolitan City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인천시는 2027년 고령인구가 전체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됨
- 이에 인천시는 고령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 물리적 환경 개선과 돌봄, 사회참여 영역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이나 세대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그러므로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가 수평적인 위치에서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현행 세대통합 사업의 현실을 파악하고 노인과 다른 세대 간의 수평적 상호작용을 저해하는 장애를 완화하고 인천시의 세대 간 통합을 도모하고자 함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 인천시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고령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고령친화환경은 외부공간 및 건물, 교통, 주택, 시민참여 및 고용, 사회참여, 존중 및 사회적 포용, 의사소통 및 정보, 지역사회지원 및 보건 등 8대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건강·활동적 노화를 촉진하는 도시환경을 의미(WHO, 2020)
- 현재 노인에 대한 정책은 주로 돌봄이나 사회참여에 집중되어 있고, 물리적 환경 개선과 관련된 조치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인식개선에 대한 접근은 소극적인 편으로 나타남
-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존중 및 사회적 포용, 구체적으로는 세대통합에 주목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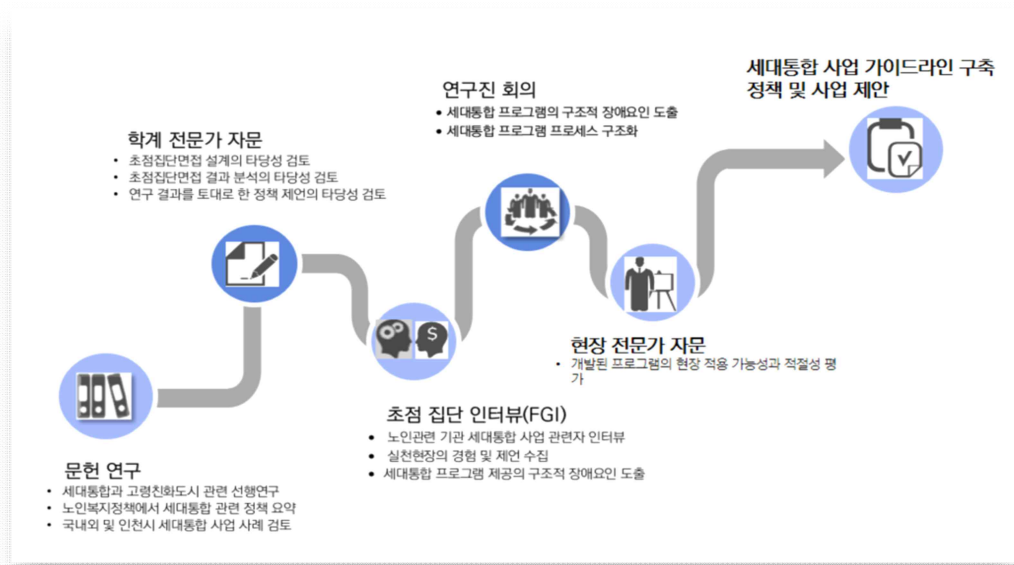
- 현재 수행되고 있는 세대통합사업의 상황을 파악하고, 노인과 다른 세대 간의 수평적 상호작용을 저해하는 장애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인천시의 세대 간 통합을 도모하고자 함

2. 연구 방법

- 세대통합의 개념 및 관련 정책
 - 선행연구를 통해 세대통합의 개념과 중요성을 파악
 - 인천시는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및 고령친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인천시의 정책과 함께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한 국내 타 지자체의 세대통합 관련사업 사례를 제시함
 - 해외 세대통합 사업 사례를 인천시 사업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인천시 세대통합 사업의 특성 도출
- 세대통합 사업의 환경적 장애요인 도출
 - 노인 및 복지 관련 기관에서 세대통합 사업을 담당하거나 진행 경험이 있는 현장 전문가 9명을 대상으로 하여 초점집단인터뷰(Focused Group Interview:FGI) 실시
 - FGI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대통합을 위한 상호작용을 저해하는 구조적·환경적 장애요인 파악
- 세대통합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구축 및 사업 제안
 - FGI에서 드러난 세대통합 사업에 대한 구조적·환경적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여 세대통합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해외 및 국내 사업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수행가능한 사업 제안
-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자문
 - 세대통합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학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연구 설계, FGI 질문구성, 분석 및 연구 진행의 타당성, 구축된 가이드라인과 제안 사업의 실효성 등을 검증받음

제3절 연구 추진 방향 및 일정

1 연구 추진 방향



2 연구 추진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구 설계												
착수 보고												
문헌 연구												
초점 집단 인터뷰												
인터뷰 내용 분석												
장애 요인 구축												
중간 보고												
가이드 라인 구축												
자문 및 연구 심의												
사업 개발												
가이드 라인 및 사업 실효성 검증												
최종 보고												
보고서 발간												
공동연구원												

제2장 문헌 연구

제1절 세대통합의 개념

1. 세대의 정의와 세대갈등

- 사전적 의미의 세대는 ‘약 30년을 단위로 하는 연령층’으로 선대와 후대를 잇는 가계의 연속성을 의미함
- 사회적·거시적 측면에서도 세대를 규정할 수 있는데, 이때 각 세대 집단은 삶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인식 및 행동양식에서 유사성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세대 집단과 구분됨
- 각 세대 집단의 고유한 특성은 다른 세대 집단과의 차이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성향,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경제적 자원 분포, 복지정책의 이해관계 등의 원인에 의해 갈등 상황으로 발전되기도 함
- 세대갈등의 심화는 사회 구성원 간의 균열을 유발하고 화합과 조화를 방해하여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됨

2. 세대통합의 의미와 중요성

- 인간은 기억을 간직하고 역사를 중시하는 특성을 지니며, 이에 기반한 공동체 의식과 유기적 연대를 세대통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김찬호, 2018), 이는 모든 모든 사회발전의 핵심이 됨(Sergei Zelenev, 2008)
- 각기 다른 세대가 한 사회의 구성원임을 인지하고 상호작용을 이룰 때 사회통합을 성취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음

3. 우리 사회의 세대통합과 갈등 정도

- 2022년 사회통합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세대 간 소통수준, 사회통합을 위해 중요 역할을 할 수 있는 집단,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및 배제 등 우리나라 구성원들의 세대통합 관련 인식 파악
- 연령통합지표는 다양한 연령층간의 상호작용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임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연령별 평생교육 참여율과 정치활동 참여율은 매우 높은 반면, 연령대별 사회적 위상의 격차가 매우 높고 연령별 빈곤율의 차이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남

제2절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와 세대통합

1. 형성 배경과 내용

- 인구 고령화와 도시화는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는 노인이 건강을 유지하고 활동이나 이동에 장애가 없으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부각시킴
- 국제보건기구(WHO)는 2006년 23개 국가의 33개 도시를 대상으로 ‘활동적 노화’를 위한 환경과 고령친화 수준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친화도시:지침서(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를 발간하여 고령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지침 제공
- 이를 기반으로 건강한 노화를 실현하고 노인이 가족, 지역사회, 공동체 안에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GNAFCC) 결성
-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서울시가 가장 먼저 GNAFCC에 가입하였고 2022년까지 47개 도시 및 지자체가 회원으로 가입함
- 인천시는 2021년 이후 5년간 추진할 고령친화도시 정책 방향으로 ‘노인 소득 보장 및 안정적 지원, 활기찬 삶을 위한 지원, 인구 구성 변화에 대응’을 채택함

2. 존중과 사회통합 영역

- ‘존중과 사회통합’ 영역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슈는, ‘노인에 대해 존중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음, 연령차별주의와 노인에 대한 이해 부족, 세대 간 교류와 대중에 대한 인식 교육, 지역사회 내 노인의 지위,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원, 가족 안 노인의 지위, 경제적 배제’ 등임
- 인천시의 ‘존중과 사회통합’ 영역 고령친화도는 2021년 조사 시, 8개 영역 중 7위에 해당하였으며, 2018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8개 영역 중 하락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세대 간 교류 관련 항목의 점수가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나, 세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인식개선 사업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3. 인천시의 ‘존중 및 사회통합’ 영역 관련 정책

- 인천시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노인복지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있음
- 또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안에 ‘소통 및 사회통합’ 영역을 포함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통합과 원활한 소통을 구현하고자 함(하석철, 2022)
- 인천시 소통 및 사회통합 영역 세부과제 및 세부사업
- 정보 접근 및 활용성 증진: 서비스(정보) 맵 제작, 어르신 디지털 정보화 교육 확대
- 사회통합 촉진: 경로 및 효문화 확산 사업, 개방형 경로당 사업, 어르신 행복 공동밥상 지원

제3절 세대통합 사업 사례

1. 국내 사례

- 세대 간 교류 및 세대통합 사업은 2014년 혹은 그 이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나 2020년을 전후로 그 수가 증가하기 시작함
- 세대통합 사업은 멘토링, 체험활동, ESG경영 및 환경 관련, 디지털, 3세대에 대한 봉사, 예술활동, 마을 단위 공동체 회복 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음
- 사업 계획 안에 세대통합 인식개선 관련 전문 교육이 포함된 경우는 드물고, 여러 세대가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세대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개선 효과를 얻고자 함
- 많은 사업이 일회성이거나 짧은 기간 내에 진행되어 지속적·정기적으로 진행된다고 보기 어려움
- 세대통합 사업의 지속성과 정기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것은 다수의 사업이 특정 기간 지원되는 사업비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 됨

2. 해외 사례

○ 프랑스(Petits Freres des Pauvres:PFP, 가난한 이들의 작은 형제들)

- 주요 사업은 고립 노인과 지속적인 신뢰관계 형성, 공동체 활동 운영, 취약 노인 지원, 인식개선 사업이며, 활동은 젊은 세대 다수를 포함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로 진행됨.
- PFP는 전국 및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인적, 물적 자원을 이용하는 시스템을 운영

○ 미국(CoCenenerate, 전 Encoreorg)

- 주요 사업은 경제적 지원, 세대 융합적 역량 강화, 모범 사례 포상, 연구 사업임
- 세대 융합적 역량 강화 사업은 전문적인 경험과 능력, 경력을 가진 은퇴자와 멘토링이 필요한 동일 분야의 젊은 세대를 연계하여 지식과 경험 전달을 통해 세대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CoGenerate 사업 가운데 특별한 점은 세대통합 관련 연구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한다는 점임

○ 독일(Mehr Generationen Haus:MGH, 다세대의 집)

- 2021년부터 독일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일종의 커뮤니티 센터로 세대교류, 사회통합, 자원봉사 수행과 연계의 플랫폼 역할을 함
- 소수의 종사자와 대다수의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되는데 이용자와 봉사자 모두에 대한 연령 제한이 없음
- MGH는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어학 및 문해력 강좌,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학 강좌, 자원봉사자 교육 등의 프로그램과 각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를 바탕으로 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 등 이원화된 사업을 한다는 특징이 있음

○ 북아일랜드(Linking Generation:LGNI, 세대이음)

- LGNI는 사회문제에 대한 세대통합적 관점의 접근 방법을 개발하고 현실에 반영하는데, 주요 사업은 노인과 세대통합 관련 인식개선,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교육, 모든 세대 대상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루어짐
- LGNI는 복지·돌봄·교육 분야 종사자와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세대통합 관련 교육과 훈련을 진행함

○ 해외사례의 시사점

- 각 사례는 온/오프라인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자원,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음
- 이벤트성 사업과 함께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대부분의 사례에서 세대 간 활동이 일방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기 보다 양방향 혹은 다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 행정, 관리, 전문 영역을 제외한 실제 사업 진행의 핵심을 다양한 세대의 자원봉사자들이 담당하고 있음
- 여러 사례에서 세대통합 사업이 사회통합으로 확장됨을 발견할 수 있음

3. 인천시 사례

○ 노인복지 관련 기관 세대통합 사업

- 인천시 노인복지 관련 기관의 세대통합 사업은 주로 1·3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사회참여지원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지역자원 개발 사업의 일환인 경우가 많음
- 1세대의 경험과 지식을 3세대에게 전수하거나 활동을 지도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보건, 안전 관리 등의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1·3세대의 교류 혹은 이해 증진 효과 미약

○ 종합복지관의 세대통합 사업

- 노인복지기관 외에 세대통합 사업을 진행하였거나 현재 진행 중인 곳은 주로 종합복지관임
- 종합복지관에서 수행한 세대통합 사업은 1·3세대 외에도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장년층이 대상에 포함된 경우가 있으나, 1·2·3세대 모두를 아우르는 사업은 많지 않음

○ 개방형 경로당 사업

- 개방형 경로당의 유형에는 휴게시설인 카페형, 작은복지센터형, 작은도서관형, 영화관람형, 북카페형, 공유부엌형이 있으며, 가장 많은 유형은 작은복지센터형임

○ 인천시 세대통합 사업의 특징

- 인천시의 세대통합 사업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의 ‘소통 및 사회통합’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영역과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함
- 연령이 낮은 3세대가 대상인 경우 1세대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교육, 청년층은 1세대에 대한 봉사 위주 활동 등 일방향적 활동이 많으며, 전세대를 아우르는 사업은 많지 않음
-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참여자, 수요자, 지역 자원을 연계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부재함
- 일회적, 한시적 사업이 많으며 사업 내용, 시행 시기, 현재 진행 여부 등의 자료를 파악하기 어려움

제3장 세대통합 사업 관련 조사

제1절 세대통합 사업 관련자 초점 집단 인터뷰

○ 초점 집단 인터뷰 (Focused Group Interview: FGI) 개요

- 인천시의 세대통합 사업의 수행 현황을 파악하고 세대 간 상호작용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세대통합 사업 관련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초점 집단 인터뷰를 실시함
- 총 9개의 기관에서 9명의 대상자가 인터뷰에 참여함
- 조사 내용은 세대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세대통합 사업 현황, 세대통합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 제시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됨

제2절 FGI 분석 결과: 구조적 장애요인과 개선 방안

1. 인식 관련 영역

인식 관련 영역 장애요인

내용	각 세대에 대해 부정적으로 형성된 전형적 이미지	세대 간의 관계를 경쟁적이고 이해 대립적으로 보는 시각	사회·문화적 인식 및 행동의 준거 기준 차이
	· 노인 세대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봉사의 대상으로 여김 · 노인은 병약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인식됨 · 40~60대는 사회적 성과에만 주목한다고 여겨짐 · 20~30대는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고 인식됨 · 3세대는 1세대와의 접촉이 없으므로 서로 이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짐	· 노인 세대와 청년 세대는 일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고 인식함 · 노인 세대 안에서도 연령에 따라 경쟁적이며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음 · 베이비부머 세대인 50~60대는 어떠한 사회적 혜택도 누리지 못한다고 느낌	· 세대별 성인지감수성, 개인 간에 서로 지켜야 할 적절한 예의 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다름 · 나이가 많은 세대는 수직적이며 일방적인 관계를 강요하는 경향이 있음 · 연령주의의 영향으로, 나이가 적은 세대가 노인관련 기관이나 문화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가지고 있음
개선 방안	· 노인, 실버, 시니어, 경로당 등의 용어 개선 모색 · 각 세대의 긍정적 이미지 제시: 긍정적인 롤모델 발굴 및 양성 · 성인지감수성·다양성 존중·개인 정보와 사생활 보호 관련 교육 · 연령주의, 차별, 학대, 장애 관련 인식 개선 교육 · 연령 기반 사회서비스가 각 세대를 배제하고 경쟁 관계에 놓이게 한다는 오해 해소 · 세대 별로 유사한 환경/상황에 있는 참여자 매칭 고려: 예) 1인 가구 · 연령 구분 없는 프로그램/교육 구상 · 노인일자리 유형을 다른 세대와 어울리는 것으로 확장 · 종교시설이나 카페와 같이 특정시간유휴 공간을 임대/활용하여 심리적 장벽 제거		

2. 물리적 환경 관련 영역

물리적 환경 관련 영역 장애요인

내용	시간과 장소의 제약	안전과 편의 문제	재정 자원 관련 어려움
	· 세대 별로 주된 활동 시간에 차이가 있음 · 정규성·지속성 확보가 어려움 · 고령 노인은 새로운 장소로 이동에 어려움이 있음 · 거동이 어려운 노인의 경우 차량 등을 이용한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큼	· 기관 밖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대처의 어려움 · 대여·협력 장소·물품의 파손 및 손실에 대한 처리 문제 · 기관 외부 이용시 작성·처리할 문서 및 절차가 복잡함 · 각 세대에게 필요한 보조·지원 기기 및 준비가 미흡한 경우가 많음	· 개별 이동 시 발생하는 사적 비용(교통비 등) 보상이 불가능함 · 지역 자원 연계의 절차와 과정이 복잡함 · 예산 운용이 경직되어 있어 융통성 있는 집행이 어려움
개선 방안	·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 모색 · 특정 장소에 모이지 않고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상 필요 · 이동 자체를 교류의 기회로 만드는 방법 모색 · 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 편입 혹은 체험학습 인정 등 · 학령기세대의 방학, 연휴 기간 등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사업 구상 · 포괄적 보상이 가능한 보험 가입 고려 · 노인일자리기관이나 근로복지사업단과의 연계를 통해 보상 문제 해결 모색		

3. 사업적 역량 관련 영역

사업적 역량 관련 영역 장애요인

내용	정보 공유 채널 부재	행정적 제약과 사업 범위의 한계	효과성 평가 방식 부재
	· 사업 담당자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사업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많이 소모해야 함 · 우수 사례·사업 노하우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실질적 장이 없음 · 홍보·참여자 모집·자원봉사자 관리 등을 공동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 노인복지기관은 60세 이상 이 용자 대상의 사업을 수행하고 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노인을 포함하는 경우가 적음	· 참여자나 연계 기관의 프로그램 만족도와 실제 세대통합 효과성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세대통합 효과성을 평가하는 도구가 부재함
개선 방안	· 참여자 모집과 사업 홍보를 확산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 사업 아이디어, 우수 사례, 자체 정성적 평가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한 사업 기획 지원 · 유연한 행정 적용 · 세대통합이 사회통합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두기 · 효과성 평가 매뉴얼 개발 필요		

제3절 세대통합 사업 가이드라인

○ 세대통합 사업 담당자 대상 FGI 결과 분석을 통해 도출한 구조적 장애요인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의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 가이드라인을 구축함

항 목	내 용 예 시
명료한 목표 설정 · 세대통합의 영역 가운데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두세 가지 설정한다. · 목표에 기반하여 기대 효과를 설정한다.	· 각 세대에 대한 부정적 혹은 전형적 이미지 극복 → 긍정적 이미지 형성, 노인의 사회적 기여 인식 등 · 세대 간 만남의 기회 확대 → 만남을 통해 심리적 거리감 축소 · 세대 간 이해 · 각 세대의 경험과 문화 알아보기 · (여러) 세대가 함께 하는 다양한 체험 및 경험 활동 · 기술 및 경륜 전수 · 다양한 분야의 멘토링 → 취약 집단에 대한 지원 · 심리·정서적 지원 · 공통의 관심사(환경, 지역의 역사, 사회 이슈 등)에 관련된 활동 · 지역사회 이벤트 기획 혹은 참여 →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고취 · 지역사회 취약층을 위한 자원봉사 · 인식개선(다양성, 성인지, 연령주의, 학대 등) · 일자리 연계 → 소득 보장, 심리적 만족 등
구체적인 참여 대상자 선정 · 대상자의 연령대와 배경, 특성, 회기·세대 별 참여자 수 등을 구체적으로 선정한다.	· 노인복지관 이용자와 중학생 · 60대 노인과 70세 이상 노인 · 50+세대와 청년(20대) · 학교 밖 청소년(중고생 연령)과 50+세대 은퇴자 · 체육 관련 직종 은퇴자와 초등학교생 ·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 고령 이주민과 출신국이 같은 중도입국 청소년 · 노인 1인 가구와 장년 1인 가구 · 50+세대와 발달장애아동 · 탈북노인과 스마트폰 사용법 교육 가능한 대학생 · 금융관련직 은퇴자와 사회초년생
적절한 진행 방식 채택 · 목표와 참여자의 특성·세대 별 참여자 구성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진행 방식을 채택한다. · 필요하다면 두 가지 이상의 진행 방식을 결합할 수 있다.	· 강연 및 교육 청취 혹은 제공 · 1 대 1 활동 (지정 시간 혹은 시간 자율 결정, 지정 장소 혹은 자율 장소 등 결정) · 1 대 다 활동 · 참여자 전체 활동 혹은 워크숍(전문가 진행, 실무자 진행, 포레 리더 진행 등 결정) · 기획된 이벤트 혹은 사업 참여 · 비대면 및 간접 교류(우체통 방식, 릴레이식 교류 등) · 공간 및 자원 제공 · 1회성 사업(1일 사업, 캠프와 같은 2-3일 사업, 지역 이벤트 참여 등) · 연속 사업(지속 기간, 시행 주기, 회기당 시간 등 결정)

항 목	내 용 예 시
홍보와 참여자 모집 · 지역, 기관 이용자 특성, 지역사회 환경, 가용 예산 등을 고려하여 홍보 방식을 선택한다. ·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두세 가지 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집중 홍보 대상 선정 · 협력 기관 섭외 및 요청 사항 행정 처리 · 홍보 방식(전화, 게시판, SNS, 홈페이지, 보도자료, 현수막, 전단, 홍보물, 기존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활용, 직접 방문, 인적 자원 활용, 지자체 협력, 협력 기관에서 직접 모집 등) 선택 · 홍보 횟수, 진행 상황 확인 방식, 모집 초과/미달 시 대응 방안 등 결정 · 설정된 목표, 선정된 참여 대상자, 신청자의 일치 여부 확인 · 대상자 변경 혹은 확대/축소 필요성 여부 확인
필요한 자원 및 동원 가능성 조사 ·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리적·비물리적 자원을 되도록 세세하게 작성한다. · 필요한 자원의 조달 방법을 함께 기재한다.	필요한 물리적 자원 · 장소(대여료, 대여시 필요한 보험료 등 포함) · 이동 수단(이동 시 필요한 보험료 등 포함) · 물품: 비품, 소모품 · 비용 및 보상(기념품, 강사료, 행정 비용, 우편료, 참가비, 사례비, 교통비, 식비, 등) · 진행 기록(사진, 동영상 등) 비용 · 교육 및 홍보 자료 등 제작, 배포 비용 · 비대면, 간접 교류 진행 방식 수행을 위한 정보·통신 기기 및 비용 필요한 비물리적 자원 · 기관 외 장소 이용 시 필요한 행정 절차 · 프로그램 전후 준비 및 정리 시간 ·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역량 · 필요한 사전 교육(성인지, 개인정보 관련, “Dos and Don’ts” 등) · 안전 사고 대응 매뉴얼 · 기 수행 사업 및 유사 사업 관련 정보 자원조달 방법 · 지자체 및 중앙 정부의 지원 및 재정 · 기관 자체 예산 · 기관 예산과 협력 기관/기타 예산 결합 · 공모 사업 · 기부 및 후원, 장소 제공 ·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보상 자원 마련 · 지역사회 단체 및 네트워크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 자원봉사자 활용
예상되는 어려움 조사와 대처 방안 모색 · 계획 수립, 진행, 사후 단계에서 예상되는 어려움과 대안을 적는다.	*제시된 장애 요소와 대안, 실효성은 특정 사업이나 기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 *각 기관이나 사업별로 예상되는 어려움과 대처 방안, 실효성을 파악하여야 적용하여야 함

항 목	내 용 예 시																										
대안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실효성이 낮게 평가 될 경우 이유를 밝힌다. 대안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함께 적는다. 현 단계까지의 계획 가운데 변경·수정 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다.	<table><tr><th>장애 요소</th><th>대안</th><th>실효 성</th></tr><tr><td rowspan="4">세대 간 활동 시간 차이</td><td>방학 기간 중 2-3일 집중 진행</td><td>○</td></tr><tr><td>학교 정규 교육 시간에 편입</td><td>X</td></tr><tr><td>학생들에게 체험학습 및 봉사활동 시간 부여</td><td>△</td></tr><tr><td>주말 및 휴일 진행</td><td>△</td></tr><tr><td rowspan="3">참여자 모집의 어려움</td><td>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td><td>△</td></tr><tr><td>지자체의 홍보 지원 및 직접 모집</td><td>○</td></tr><tr><td>SNS와 홈페이지 적극 활용</td><td>△</td></tr><tr><td rowspan="3">노인복지기관에 대한 심리적 장벽</td><td>기관 외 장소 이용</td><td>△</td></tr><tr><td>비대면 프로그램 진행</td><td>△</td></tr><tr><td>기관명·사업명 변경을 통한 장벽 낮추기</td><td>△</td></tr></table>	장애 요소	대안	실효 성	세대 간 활동 시간 차이	방학 기간 중 2-3일 집중 진행	○	학교 정규 교육 시간에 편입	X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및 봉사활동 시간 부여	△	주말 및 휴일 진행	△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	지자체의 홍보 지원 및 직접 모집	○	SNS와 홈페이지 적극 활용	△	노인복지기관에 대한 심리적 장벽	기관 외 장소 이용	△	비대면 프로그램 진행	△	기관명·사업명 변경을 통한 장벽 낮추기	△
	장애 요소	대안	실효 성																								
	세대 간 활동 시간 차이	방학 기간 중 2-3일 집중 진행	○																								
		학교 정규 교육 시간에 편입	X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및 봉사활동 시간 부여	△																								
		주말 및 휴일 진행	△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																								
		지자체의 홍보 지원 및 직접 모집	○																								
		SNS와 홈페이지 적극 활용	△																								
	노인복지기관에 대한 심리적 장벽	기관 외 장소 이용	△																								
비대면 프로그램 진행		△																									
기관명·사업명 변경을 통한 장벽 낮추기		△																									
진행 과정 점검 수립된 계획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일회성 프로그램인 경우 사후 평가로 대신할 수 있다.	· 참여자 출석 관리 · 진행자 역량 및 적합도, 참여자의 호응도, 진행 방식의 적절성, 시간 안배 등 · 호응도 및 참여도 관리(매 회기 관찰, 기록하는 것이 좋음) · 중도 탈락자 충원 관리 · 비용 지출 관련 증빙 자료 관리 · 관련 기록(사진, 영상, 자료집, 증빙자료 등) 관리 · 안전 사고, 돌발 상황 발생 여부 점검 ·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 시 대처 상황 파악 및 사후 관리 · 목표와 진행 과정의 부합도: 회기의 적절성, 진행 시간 및 장소의 적절성																										
효과성 평가와 환류 사업 목표를 기반으로 한 기대 효과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프로그램 만족도와 세대통합 효과 성취의 차이를 이해하고 평가 방식에 차이를 둔다. 효과성과 만족도를 평가한다. 환류 방식 및 사업 지속 여부, 사후 관리 등을 결정한다	·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 · 기대 효과 성취도 측정 설문 · 정성적 방법을 통한 참여자, 진행자, 협력 기관, 실무자의 평가 · 참여자 의견을 환류에 적용할지 여부 결정, 적용 수준 결정 · 개선안, 정성적 평가 결과, 제안 반영 방안 모색 · 증빙 및 보고 자료 작성 · 기록물 및 자료 취합, 보관·관리 방식, 책임자 결정 · 사업 지속 여부 결정 · 각 단계 별 진행																										

제4장 제안 및 결론

제1절 정책 제언

- 지자체 차원의 정보 교류 플랫폼 구축
 - 세대통합 사업의 계획 시, 정보 수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대통합 사업 관련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세대통합 사업은 여러 세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여야 하므로 다양한 세대가 접근이 유용한 기관에서 플랫폼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
- 세대별 욕구 조사
 - 기존의 단편적인 세대별 욕구 조사를 넘어 세대 간 관계, 즉 각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바라는 바 등 세대통합과 관련된 구체적 욕구 파악이 필요
- 취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활용
 - 방치된 빈집을 수리하여 여러 세대가 교류할 수 있는 장소로 사용하거나, 온라인 인프라를 활용해 노인의 이동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역의 자원을 확인하여 강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상세한 가이드라인 구축
 - 세대통합 사업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각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을 비교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할 것을 제안
- 사업 효과성 측정을 위한 지침 및 도구 개발
 - 세대통합 사업 시 사업의 효과성이나 세대통합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하므로 지자체 차원의 지원 하에 세대통합 효과성 측정 도구 개발이 필요함
-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유연한 행정
 - 세대통합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인식의 변화를 필요로 하므로, 각급 학교 교육 안에, 그리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안에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

제2절 결론

-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인천시는 2022년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함으로써 연령에 상관없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함
- 인천시의 사업은 고령친화환경 조성 영역 중 물리적, 환경적 개선에 집중되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인식개선과 정책적 접근에 중점을 두고 세대통합을 통해 존중 및 사회적 포용 영역의 환경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인천시 세대통합 사업 현황 파악
 - 주로 노인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사업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이 주로 1·3세대(아동과 노인 세대)임
 - 일회적, 한시적 사업이 많고, 사업의 내용, 시행 시기, 현재 진행 여부 등의 자료가 정리되지 않아 실질적 효과성 파악이 어려움
- 인천시 세대통합 사업 관련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세대통합 사업의 장애요인 분석

-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 제시
 - 각 세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발굴과 확산
 - 다양한 세대를 모두 아우르는 프로그램이나 교육 제공
 - 일자리 사업, 자원봉사, 학교 교육 과정 등을 연계하여 지속적인 세대 교류 촉진
 - 지역사회 인프라와 자원 파악과 활용
 - 비대면 프로그램이나 틀을 깨는 사업 아이디어 수용 등
- FGI분석결과와 학계 자문 의견, 문헌 연구를 종합하여 기초적인 가이드라인 제작

○ 정책적 지원 제안

- 지자체 차원의 정보 교류 플랫폼 구축
- 세대별 욕구 조사
- 취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활용
- 상세한 가이드라인 구축
- 사업 효과성 측정을 위한 지침 및 도구 개발
-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유연한 행정

- 본 연구는 세대통합 사업의 현황과 장애요인 파악을 위해 관련자 인터뷰를 진행했으나, 대다수가 노인복지관 종사자로 구성되어 다른 세대 대상 기관 관련자의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음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3절 연구 추진 방향 및 일정

Incheon Metropolitan City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인천시는 2027년 고령인구가 전체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음
- 이에 인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실행계획 수립 연구(하석철, 2022)을 기초로 하여 인천시는 지난 2022년 12월에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lobal Network for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이하 GNAFCC)에 가입하는 등 고령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고령친화환경이란 생애 전반에서 내재적 역량을 구축·유지하며, 주어진 역량을 가진 자가 더 큰 기능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활동적 노화(healthy and active ageing)를 촉진하는 도시환경임¹⁾
- 고령친화환경의 8대 영역은 외부공간 및 건물(Outdoor spaces and buildings), 교통(Transportation), 주택(Housing), 시민참여 및 고용(Civic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 존중 및 사회적 포용(Respect and social inclusion), 의사소통 및 정보(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지역사회지원 및 보건(Community support and health services)임
-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존중 및 사회적 포용 영역, 구체적으로는 세대통합에 주목하고자 함
- 현재 노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주로 돌봄이나 사회참여에 초점을 두고 있고, 물리적인 환경 개선과 관련된 조치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인식개선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소극적인 편임
 - 인천시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실행계획에서 인식개선과 관련된 사업은 62개 사업 중 웰다잉 교육, 인생재설계 교육, 경로 및 효문화 확산 사업, 개방형 경로당 사업임
 - 이 중 세대통합의 목적을 가진 인식개선 사업은 경로 및 효문화 확산 사업과 개방형 경로당 사업임

1) Rudnicka E, Napierała P, Podfigurna A, Męczekalski B, Smolarczyk R, Grymowicz 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pproach to healthy ageing Maturitas 2020 Sep;139:6-11 doi: 101016/j.maturitas202005018 Epub 2020 May 26 PMID: 32747042; PMCID: PMC7250103

- 개방형경로당 사업은 지역주민과 노인이 어울려 세대가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세대 간 교류와 통합의 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경로 및 효문화 확산 사업은 사회통합 촉진 사업에 포함되기는 하나, 세대 간 교류나 통합보다는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연령주의 극복에 주력하여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경향이 큼
- 현재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에서는 기본사업으로 노인권익증진사업(정책건의, 노인인권옹호, 노인인식개선사업 등)을 통해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세대 간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주로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다른 세대는 접근에 장벽을 경험함
- 젊은 세대는 세대 간 교류가 아닌 노인에 대한 자원봉사로 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임
- 그러므로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가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세대 간 수평적 교류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대통합 사업이 가진 환경적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세대통합 사업의 현실을 파악하고 노인과 다른 세대 간의 수평적 상호작용을 저해하는 장애를 완화하여 인천시의 세대 간 통합을 도모하고자 함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세대통합의 개념 및 관련 정책

- 선행연구를 통해 세대통합의 개념과 중요성을 파악함
- 인천시의 세대통합 사업은 시의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및 고령친화 환경 조성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이에,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의 형성 배경을 살펴보고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고령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8대 영역 가운데 ‘존중과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이슈를 파악하였음
 - 2018년과 2021년 인천시의 존중과 사회통합 영역 고령친화도 점수를 비교하고 이와 관련된 인천시의 정책을 조사함
-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한 국내 지자체 현황과 과거 실행한 적이 있거나 현재 실행 중인 세대통합 관련 사업 사례를 제시함
 - 해외 세대통합 사업 사례와 인천시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인천시 세대통합 사업의 특성을 도출함

2 세대통합 사업의 환경적 장애요인 도출

- 노인 및 복지 관련 기관에서 세대통합 사업을 담당하거나 진행한 경험이 있는 현장 전문가의 경험 및 의견을 수집하기 위한 초점집단인터뷰 (Focused Group Interview: FGI)를 진행함
 - 인터뷰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인천시 전역의 노인 및 복지 관련 기관의 사업을 조사하여 세대통합 사업 수행기관을 파악함
 - 이들 기관 가운데 세대통합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기관을 선정하여 사업 담당자 또는 관리자를 인터뷰 대상으로 섭외함
 - 인터뷰 대상자는 총 9명으로 1회 3명씩 총 3회의 인터뷰를 진행함
 - 인터뷰는 각 회기당 약 1시간 30분 진행됨

- 심도 있는 인터뷰를 위하여 사전에 질문지를 배포하여 간단하게 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기관에서 수행한 적이 있거나 현재 수행 중인 세대통합 관련 사업에 관한 내용을 미리 기재하여 제출하게 함
- 인터뷰는 대상자의 동의하에 녹음되었으며 사후 전사하여 내용을 분석함

○ FGI를 통해서 수집된 주 내용은 세대 인식,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 세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제안 등임

- 세대 인식과 관련해서는 세대차이를 보이는 연령차, 세대갈등 관련 경험, 세대갈등의 이유와 유형, 50+세대에 대한 인식에 대해 질문하였음
- 세대통합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만족도가 높은 사업과 집단의 특성, 수행시의 어려움과 장애요인 파악이 주로 이루어짐
- 세대통합을 위한 제안과 관련하여 교류와 통합이 가장 필요한 세대를 제시하게 하였으며 세대통합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향후 희망 사업을 제안하도록 함

○ FGI를 통해 수집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대통합을 위한 상호작용을 저해하는 구조적·환경적 장애요인을 파악함

3 세대통합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구축 및 사업 제안

○ FGI에서 드러난 세대통합에 대한 구조적·환경적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구축함

- 파악된 장애요인은 물리적 요인(시간, 장소와 이동 등), 인식 요인(사고 방식, 표현 방식 등), 사업적 요인(홍보, 모집, 행정 절차 등), 역량적 요인(사업 기획 및 수행, 보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각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이후 세대통합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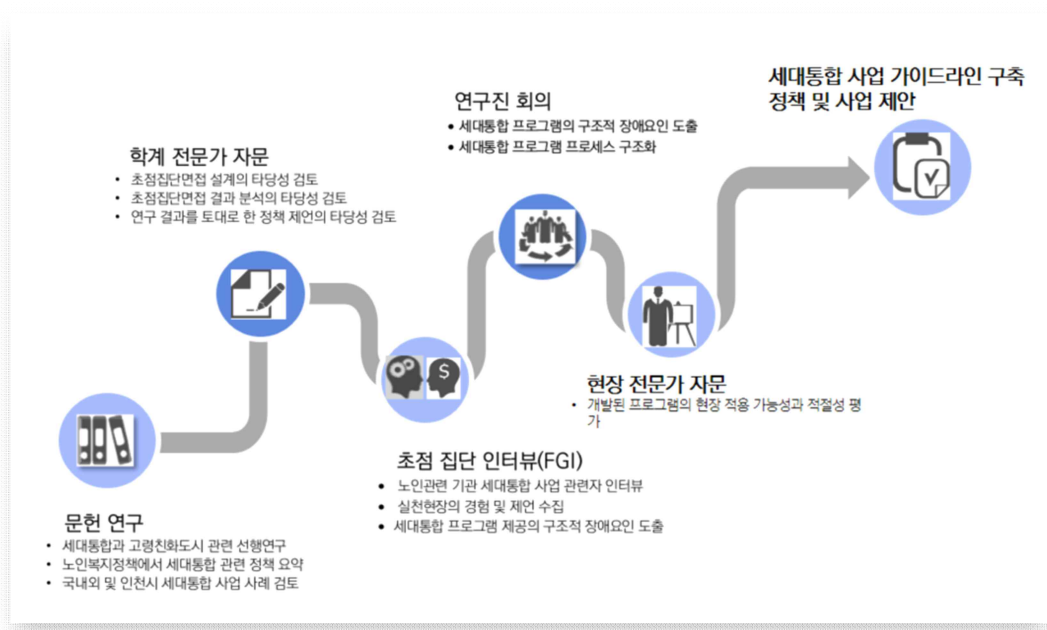
○ 해외 및 국내 사업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수행가능한 사업을 제안함

4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자문

- 세대통합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학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연구 설계, FGI 질문 구성, 분석의 타당성, 연구 진행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증함
- 현장 전문가 대상 자문을 통해 구축된 가이드라인과 제안된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함

제3절 연구 추진 방향 및 일정

〈그림 1-1〉 연구 추진 방향



〈그림 1-2〉 연구 추진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구 설계												
착수 보고												
문헌 연구												
초점 집단 인터뷰												
인터뷰 내용 분석												
장애 요인 구축												
중간 보고												
가이드 라인 구축												
자문 및 연구 심의												
사업 개발												
가이드 라인 및 사업 실효성 검증												
최종 보고												
보고서 발간												
공동연구원												

제 2 장

문헌 연구

제1절 세대통합의 개념

제2절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와 세대통합

제3절 세대통합 사업 사례

Incheon Metropolitan City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제2장 문헌 연구

제1절 세대통합의 개념

1. 세대의 정의와 세대갈등

- 사전적 의미의 세대는 ‘약 30년을 단위로 하는 연령층’으로 사람의 한평생을 의미하는 세수와 대신하여 있다는 뜻의 대대의 합성어임(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이 경우 세대는 선대와 후대를 잇는 가계의 연속성을 의미함
- 그러나, 세대는 가족과 같은 사적인 관계뿐 아니라 정치와 경제, 문화와 같은 거시적 환경 안에서 그 의미가 파악되기도 함
 - 거시적 측면에서 세대를 이해하는 경우, 동일 문화권, 근접한 출생 시기, 역사적 경험의 공유, 유사한 의식과 행위 양식 등이 한 세대를 규정한다고 봄(최유석, 2016),
 - 광복 세대, 한국전쟁 세대, 베이비붐 세대, 386세대, X세대, MZ세대, 알파세대 등의 구분은 사적이고 미시적인 측면보다는 사회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세대를 규정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 사회적·거시적 측면에서 규정되는 세대는 생물학적 연속성의 의미를 지니는 Generation 보다는 출생코호트 Cohort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권채리, 2022)
 - 오늘날 세대는 10년 정도의 출생 시기를 공유한 집단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음
- 각 세대 집단은 삶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인식 및 행동양식에서 유사성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세대 집단과 구분됨
 - 각 세대 집단의 고유한 특성은 다른 세대 집단과의 차이에 그치지 않고 갈등 상황으로 발전되기도 함
- 세대갈등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정치적 성향과 사회적 가치·규범에 대한 인식, 일자리 문제를 포함한 경제적 자원 분포, 복지정책의 이해관계, 가족 내 역학 관계, 세대 간 접촉 기회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이재경, 2018; 정순돌 외, 2021; 임유진, 2021; 황선재, 2022)
 - 세대갈등은 거의 모든 시대에 존재한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세대 간 불평등과 불공정성과 같은 강화 요인의 영향으로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음

- 한국 사회는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부에 대한 평가와 같은 정치적 성향이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두드러짐(임유진, 2021)
 - 정치 성향의 차이는 사회 구조와 가치 규범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다른 세대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 사회의 비노인세대는 노인세대의 정치 성향과 사사회적 가치·규범에 대한 인식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며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보는 경향이 높음(황선재, 2022)
- 경제적 자원의 분포, 그 가운데서도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 세대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는 지점 중 하나임
 - 노후 생활비 충당이나 소일거리를 위해 고용시장에 오래 머무르거나 은퇴 후 다시 진입하는 노인세대가 증가하고 있음
 - 청년세대는 한정된 일자리 시장에서 노인세대를 경쟁자, 양보를 모르는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인식하기도 함(이재경, 2018)
- 복지제도는 전통적으로 사회적 위험을 공유하며 자원을 재분배하여 세대갈등을 완화하고 통합을 강화하는 것으로 여겨졌음
 - 그러나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복지제도는 오히려 비용과 부담면에서 세대간 형평성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어 세대갈등의 원인으로 변화함
 - 청장년세대는 복지제도가 노인세대의 이익을 편향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인식하며 이러한 불만은 세대 간 갈등으로 발현하기도 함
- 전통적으로 가족 제도는 사회적 가치, 문화, 경제 자원 등의 세대 간 이전과 갈등 완충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짐
 - 현대 사회에서는 과거 가족이 담당하던 복지기능이나, 경제자원의 세대 간 이전, 문화·정서적 완충 등의 역할이 점점 약해지고 있음
- 세대갈등의 심화는 사회 구성원 간의 균열을 유발하고 화합과 조화를 방해하여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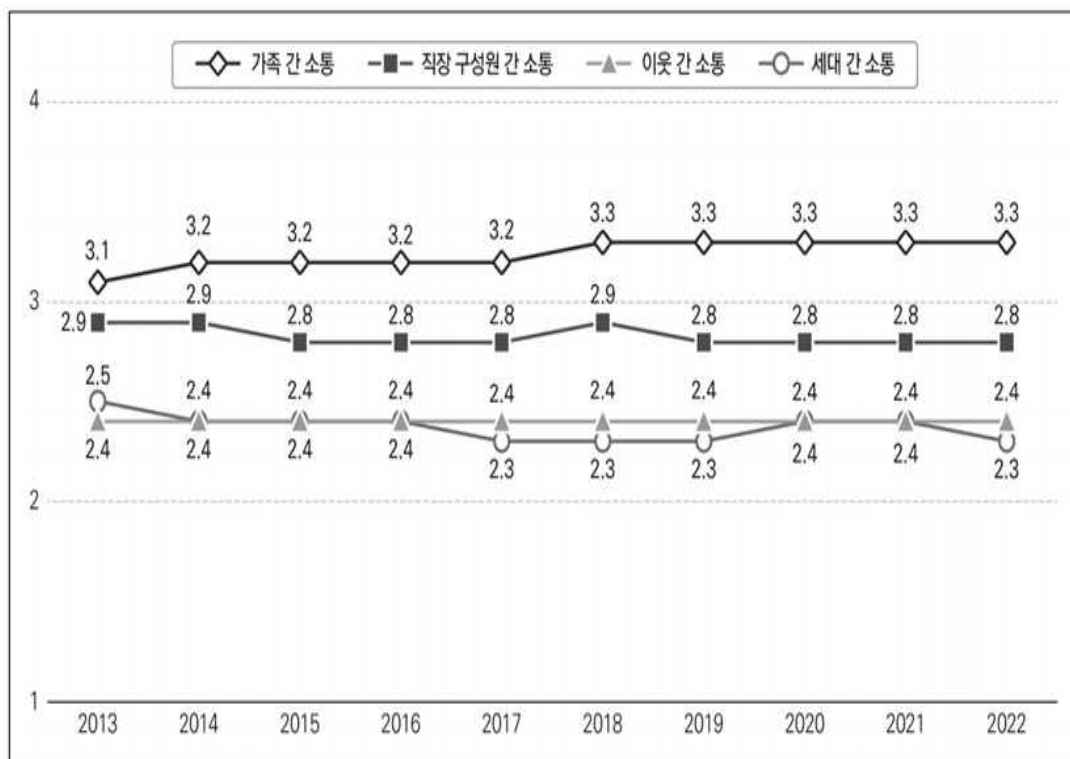
2. 세대통합의 의미와 중요성

- 인간은 기억을 간직하고 역사를 중시하는 종적種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기반한 공동체 의식과 유기적 연대를 세대통합이라고 할 수 있음(김찬호, 2018)
 - 세대통합은 살아온 시대와 경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세대가 한 사회의 구성원임을 인지하여 공동 목표 달성과 개인의 욕구 충족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고자 노력할 때 이를 수 있음
- 세대통합과 세대간 연대는 모든 사회 발전의 핵심이 됨(Sergei Zelenev, 2008)
- 사회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은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커짐

3. 우리 사회의 세대통합과 갈등 정도

- 우리나라는 최근 이념, 계층, 지역, 젠더, 세대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통합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함
 - 각 영역의 사회통합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그에 맞는 사회통합 정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임
- 2022년 사회통합실태조사
 - 사회통합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우리 사회의 통합 수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및 태도 등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변화를 추적
 -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을 사회영역별로 파악함으로써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 제공
 - 우리 사회 집단 간 소통 수준-세대 간
 - 2022년 세대 간 소통수준은 2.3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차이가 없으나 가족, 직장 구성원, 이웃 등 다른 집단에 비해 소통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 우리 사회의 집단 간 소통 수준



*출처: 2022년 사회통합실태조사

- 연령 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10-29세, 30-39세, 30-39세, 40-49세, 50-59세, 그리고 60세 이상 등 모든 연령 집단 간의 소통 점수가 평균 2.3점의 결과를 보임
- 모든 연령 집단의 과반수가 넘는 대상자들이 우리 사회 세대 간 소통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인식함

〈표 2-1〉 우리 사회 집단 간 소통 수준- 세대 간

(단위: %)

구분	평균 (4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약간 이루어지고 있다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2021년	2.4	9.0	49.7	37.2	4.2
2022년	2.3	9.4	53.8	33.8	3.0
19-29세	2.3	10.1	55.3	31.6	3.0
30-39세	2.3	9.9	51.8	35.6	2.7
40-49세	2.3	9.7	51.1	35.9	3.3
50-59세	2.3	7.5	54.2	35.3	3.1
60세 이상	2.3	9.8	55.5	31.7	3.0
65세 이상	2.3	10.9	55.0	31.3	2.8

*출처: 2022년 사회통합실태조사

○ 집단별 감정적 거리에 대한 인식

- 고령층에 대한 감정적 거리감은 전체적으로 평균 61.3℃의 온도로 응답하였으며, 2021년도의 61.2℃에 비해 0.1℃ 높음
-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고령층에 대한 감정적 거리에 대한 인식은 19-29세 56.1℃, 30-39세 58.2℃, 40-49세 60.0℃, 50-59세 60.4℃, 60세 이상 66.9℃, 65세 이상 68.4℃로 나타남
-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령층에 대한 거리감의 인식 온도가 따뜻함을 알 수 있음

〈표 2-2〉 고령층에 대한 연령별 감정적 거리감 인식

(단위:%)

구분	평균온도 (℃)	0-20℃ 차갑다	21-40℃	41-60℃	61-80℃	81-100℃ 따뜻하다
2021년	61.2	5.2	10.1	28.4	40.9	15.4
2022년	61.3	7.2	10.4	26.8	37.4	18.2
19-29세	56.1	8.6	15.0	31.7	33.8	10.9
30-39세	58.2	8.0	13.0	29.6	37.3	12.2
40-49세	60.0	7.8	10.3	27.2	41.3	13.4
50-59세	60.4	7.3	10.7	28.5	36.9	16.6
60세 이상	66.9	5.6	6.6	21.6	37.5	28.7
65세 이상	68.4	6.0	6.4	18.0	37.2	32.4

*출처: 2022년 사회통합실태조사

○ 우리 사회 갈등 정도-노인층과 젊은층

- 갈등
 - 갈등이란 권력과 지위, 자원이 희소한 상태에서 서로 경쟁하는 집단들 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어느 사회, 어느 시대나 존재함
 - 갈등을 원천적으로 없앤 사회가 좋은 것이 아니라, 갈등을 제도화하고 순치시켜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역동적 능력을 갖춘 사회가 좋은 사회의 기준이 됨
- 우리 사회에서 고령층과 젊은층의 갈등정도는 전체적으로 평균 2.7점이었으며, 이는 전년도와 같은 점수임
- 연령별로 살펴보면, 19-29세 2.6점, 30-39세 2.7점, 40-49세 2.7점, 50-59세 2.7점, 60세 이상 2.7점, 65세 이상 2.6점임
- 모든 연령대에서 고령층과 젊은층의 갈등이 약간 심하다고 한 응답자가 가장 많음

〈표 2-3〉 우리사회 갈등정도- 고령층과 젊은층

(단위:%)

구분	평균 (4점)	전혀 심하지 않다	별로 심하지 않다	약간 심하다	매우 심하다
2021년	2.7	3.2	36.3	48.7	11.8
2022년	2.7	3.2	37.7	48.7	11.8
19-29세	2.6	3.2	41.3	44.5	11.1
30-39세	2.7	2.5	36.0	49.8	11.7
40-49세	2.7	2.9	35.1	51.7	10.3
50-59세	2.7	2.1	38.2	49.0	10.7
60세 이상	2.7	2.7	38.0	50.2	9.1
65세 이상	2.6	2.8	39.0	48.7	9.5

*출처: 2022년 사회통합실태조사

○ 사회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집단

- 사회통합

- 사회통합은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신뢰와 결속 등 사회적 관계를 지칭함과 동시에 소득불평등과 같은 물적 토대임
- 사회통합은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과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동시에 포괄하는 개념
- 사회통합정책은 항상 차이, 불평등, 사회적 배제의 수준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관계, 상호작용 및 연계를 강화하여 사회자본 수준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짐
- 2021년에 비해 2022년에는 국회(29.5%), 정부(24.3%), 그리고 교육계(12.5%)가 사회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음
- 모든 연령대에서 사회통합을 위해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함

〈표 2-4〉 사회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집단

(단위:%)

구분	교육계	국회	기업	노동조합단체	법조계	시민단체	언론	정부	종교단체
2021년	10.8	21.3	13.3	9.5	5.3	6.3	11.4	20.9	1.3
2022년	12.5	29.5	7.8	4.9	3.6	4.3	11.9	24.3	1.2
19-29세	15.1	27.7	7.4	5.2	2.4	3.8	12.3	25.1	1.1
30-39세	11.1	26.8	10.0	4.1	4.8	5.3	13.7	22.2	2.1
40-49세	12.8	31.0	7.5	6.1	3.7	4.7	12.0	21.5	0.8
50-59세	11.9	31.9	7.6	5.5	2.7	4.4	9.8	25.0	1.0
60세 이상	11.9	29.3	7.3	3.9	4.0	3.8	12.2	26.3	1.2
65세 이상	11.8	31.1	7.0	4.0	3.9	3.3	11.0	26.7	1.3

*출처: 2022년 사회통합실태조사

○ 사회적 포용성(관용성)

- 사회적 포용성은 서로 상이한 사회적 관계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와 사회관계에서 배제되지 않고, 얼마나 접근가능한가를 의미함
- 즉, 자신이 속해 있지 않은 집단, 자신의 집단과 직접적인 갈등관계에 있는 집단 등의 구성원을 얼마나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포함(시민권, 노동시장 참여, 공적·사적 서비스 혜택, 사회적 접촉 등)
- 사회적 포용은 참여와 자기실현, 집합적 정체성 형성의 전 단계로 사회적 배제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
- OECD(2011)는 사회통합의 3가지 요소로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그리고 사회적 이동성을 강조
- 그 중 사회적 포용은 사회통합의 첫 번째 요소로, 사회적 차별 및 배제가 낮은 사회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돕고 사회이동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함(한창근, 2017)
- 그러나,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나이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사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은 우리사회에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는 주요 이유로 작용

○ 사회갈등의 주요 원인

- 우리 국민은 빈부격차와 개인·집단 간 상호이해부족, 이해 당사자들의 각자 이익 추구를 우리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함. 즉, 경제적인 문제와 세대 간의 이해 부족 문제를 사회통합의 주요 장애물로 인식한다는 것이며 이는 문헌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함.

○ 이상과 같은 결과에 따라,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세대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감소시키고 사회 포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 정책의 수행이 필요

○ 연령통합지표: 연령다양성 즉 다양한 연령층간의 상호작용 정도 측정

- 연령통합지표 체계는 연령유연성, 연령다양성, 연령형평성 등 3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연령별 평생교육 참여율과, 정치활동 참여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연령대별 사회적 위상의 격차가 매우 높고 연령별 빈곤율의 차이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표 2-5〉 연령통합수준 국제비교

구성요소	영역	개별지표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OECD 평균
연령 유연성	교육	연령별 평생교육 참여율	11.8	6.4	6.9	10.2	9.4	10.4
	경제활동	연령별 실업율	3.0	3.3	1.3	2.2	6.7	3.9
	사회참여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	1.1	4.2	0.9	1.9	4.7	1.1
		연령별 정치활동 참여율	10.4	10.4	10.3	6.3	7.7	3.2
		연령별 문화여가활동 참여율	7.5	8.4	5.2	9.3	4.2	7.4
연령 다양성	지역사회	연령대별 사회적 위상의 격차	1.7	0.6	0.3	1.2	0.7	0.2
연령 형평성	건강	신체활동 실천율의 연령별 차이	4.9	11.0	-	-	-	-
		우울증상률의 연령별 차이	2.6	1.8	-	-	-	-
		미치료율의 연령별 차이	2.0	8.3	1.6	4.2	1.5	-
	교육· 정보화	교육수준의 연령별 차이	20.1	1.3	0.5	5.1	6.9	-
	소득· 주거	빈곤율의 연령별 차이	13.7	2.1	4.1	3.2	4.2	1.7

주: 산식에 계산된 결과로 동일지표 내에서는 숫자가 클수록 연령유연성·연령다양성·연령형평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됨.

단 표준화되지 않은 숫자이므로 지표 간 비교는 어려움

자료: 정경희(2016), 연령통합 지표로 본 한국의 연령통합 수준

제2절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와 세대통합

1. 형성 배경과 내용

- 인구 고령화와 도시화는 세계적인 추세로, 2018년 세계 60세 이상 인구는 10억 명이며 그 가운데 57%는 도시에 거주한다고 보고됨
 - 2050년까지는 세계 60세 이상 인구가 20억 명으로 늘어나고 도시 거주자의 비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고령인구 증가와 도시 거주율 상승은 노인이 건강을 유지하고, 활동이나 이동에 장애가 없으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부각시킴
- GNAFCC는 노인만이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구성원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 및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WHO, 2007)
 - 모든 연령대 특별히 노인을 위한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8대 주요 영역은 <그림 2-2>에 제시됨

<그림 2-2>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주요 8대 영역



출처: WHO(2023) National programmes for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A guide 재구성

- 국제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WHO)는 2006년 23개 국가의 33개 도시를 대상으로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을 위한 환경과 고령친화 수준을 조사함
 -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WHO는 '고령친화도시:지침서(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를 발간하여 도시와 지역사회의 고령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지침을 제공함
 - 건강한 노화를 실현하고 노인이 가족, 지역사회, 공동체 안에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가 결성됨
 - GNAFCC가 실현하고자 하는 고령친화적 환경은, 2015년 국제연합(United Nation: UN)에서 제시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가운데 15개 영역과 관련되어 있음
 - GNAFCC와 SDGs의 밀접한 관련성은 개별 도시나 국가 수준에서 고령친화 환경을 조성하기보다는 사회의 다양한 영역과 국제적 협력이 중요함을 보여줌
- 2010년 11개 도시가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를 창설하였는데 2018년에는 760개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2023년 51개 국가의 1,445개 도시 및 지역사회가 가입되어 있다고 보고됨
-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서울시가 가장 먼저 GNAFCC에 가입하였고 2022년까지 47개 도시 및 지자체가 회원으로 가입함

〈표 2-6〉 국내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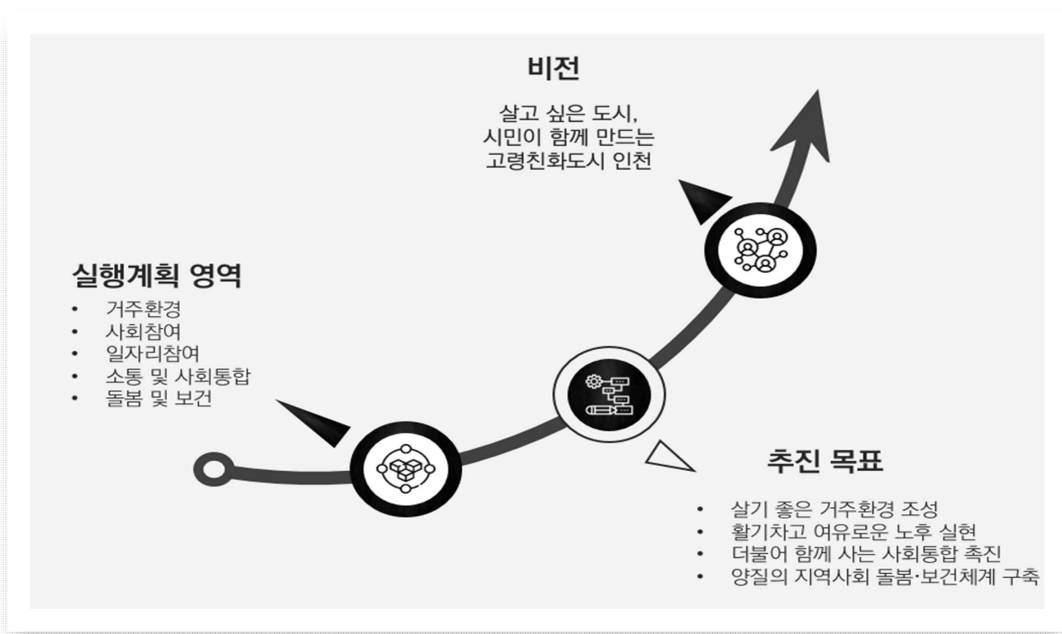
지역	가입년도	지역	가입년도	지역	가입년도	지역	가입년도	지역	가입년도
서울시	2013	수원시	2016	정읍시	2014	부산시	2017	제주도	2017
광주 동구	2017	서울 강북구	2018	논산시	2018	부천시	2018	서울 양천구	2018
서울 도봉구	2018	나주시	2019	광주 서구	2019	서울 노원구	2019	세종시	2019
남해군	2019	칠곡군	2020	울산시	2020	서울 서초구	2019	광주시	2020
창원시	2020	서울 성동구	2020	서울 종로구	2020	성남시	2020	통영시	2020
화순군	2020	고성군	2021	서울 용산구	2021	공주시	2021	인천 동구	2021
의왕시	2021	서울 금천구	2021	인천 미추홀구	2021	완주군	2021	서울 영등포구	2021
부여군	2022	서울 마포구	2022	순천시	2022	서울 동대문구	2022	예산군	2022
의령군	2022	남해군	2022	여주시	2022	인천시	2022	진주시	2022
부산 서구	2023	부산 수영구	2022						

WHO GNAFCC 웹사이트, 자료 재구성

[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search-network/?_sft_countries=repulic-of-korea\(20230802\)](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search-network/?_sft_countries=repulic-of-korea(20230802))

- 인천시는 2021년 이후 5년간 추진할 고령친화도시 정책 방향으로 ‘노인 소득 보장 및 안정적 지원, 활기찬 삶을 위한 지원, 인구 구성 변화에 대응’을 채택함
- 이에 따라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제1기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5개 영역, 13개 세부 과제, 62개 세부 사업을 선정함
 -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에 의거한 제1기 실행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그림 2-3〉와 〈그림 2-4〉에 제시되어 있음

〈그림 2-3〉 인천시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 비전과 추진 목표,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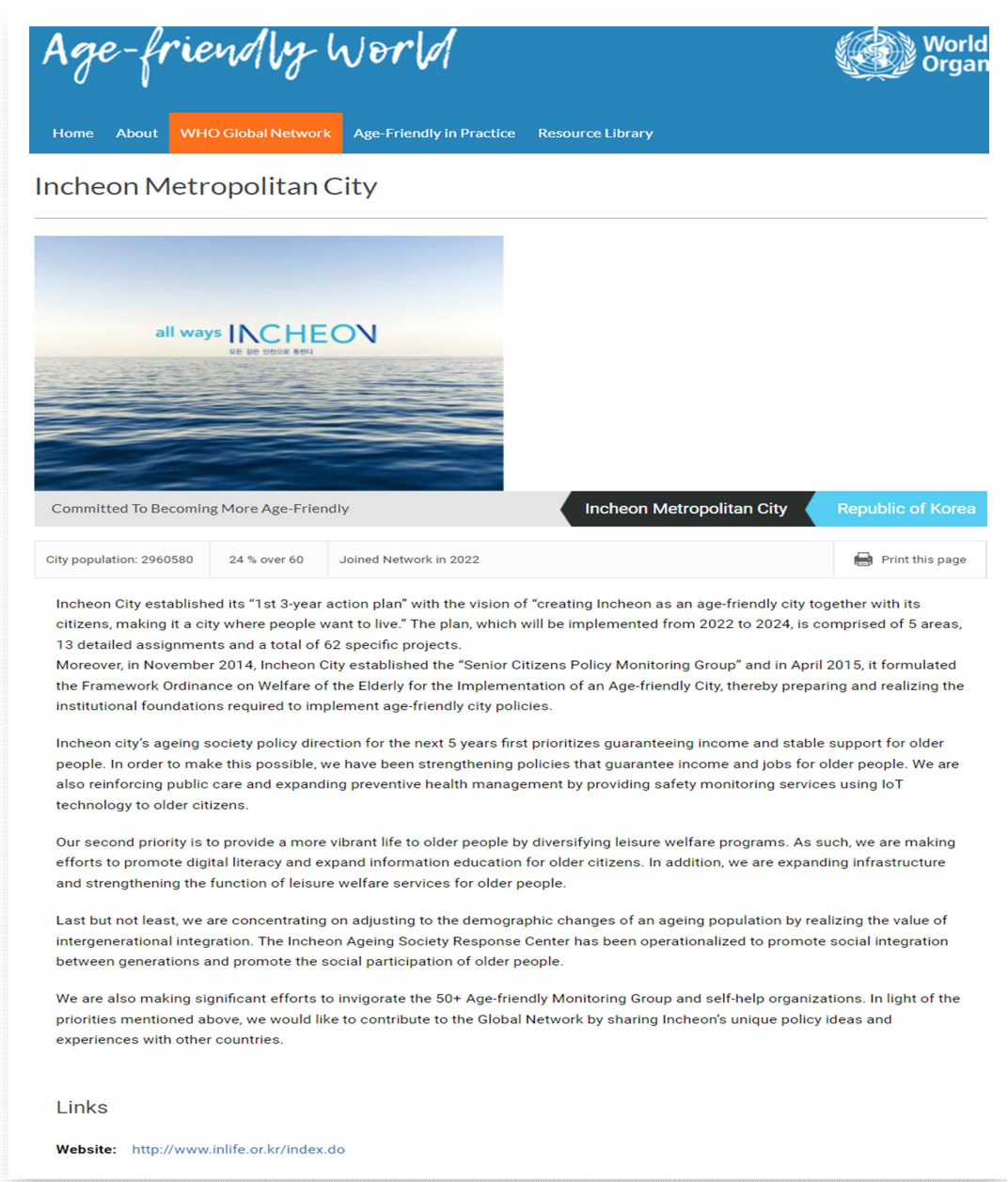


〈그림 2-4〉 인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실행계획 영역 및 세부 과제



- 제1기 고령친화도시 조성 실행계획에 기반하여 인천시는 2022년 12월 GNAFCC 회원 도시로 가입하였음

〈그림 2-5〉 인천시 GNAFCC 사이트



출처: WHO 웹사이트(<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network/incheon-metropolitan-city/>) 20230912

2. 존중과 사회통합 영역

- ‘존중과 사회통합’ 영역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슈는, ‘노인에 대해 존중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음, 연령차별주의와 노인에 대한 이해 부족, 세대 간 교류와 대중에 대한 인식 교육, 지역사회 내 노인의 지위,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원, 가족 안 노인의 지위, 경제적 배제’ 등임
- 존중과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이슈를 반영한 고령친화도는 여섯 개 항목으로 측정됨
- 각 항목과 세부 내용은 <그림 2-6>과 <표 2-7>에 제시되어 있음(WHO, 2007)

<그림 2-6> WHO가 제시한 고령친화도 체크 리스트

Age-friendly respect and social inclusion checklist	
Respectful and inclusive services • Older people are consulted by public, voluntary and commercial services on ways to serve them better. • Public and commercial services provide services and products adapted to older people's needs and preferences. • Services have helpful and courteous staff trained to respond to older people.	Public education • Learning about ageing and older people is included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curricula. • Older people are actively and regularly involved in local school activities with children and teachers. • Older people are provided opportunities to share their knowledge, history and expertise with other generations.
Public images of ageing • The media include older people in public imagery, depicting them positively and without stereotypes.	Community inclusion • Older people are included as full partners in community decision-making affecting them. • Older people are recognized by the community for their past as well as their present contributions. • Community action to strengthen neighbourhood ties and support include older residents as key informants, advisers, actors and beneficiaries.
Intergenerational and family interactions • Community-wide settings, activities and events attract people of all ages by accommodating age-specific needs and preferences. • Older people are specifically included in community activities for “families”. • Activities that bring generations together for mutual enjoyment and enrichment are regularly held.	Economic inclusion • Economically disadvantaged older people enjoy access to public, voluntary and private services and events.

출처: WHO(2007) National programmes for age-friendly cities A guide

〈표 2-7〉 고령친화도 체크리스트

항 목	세 부 내 용
노인을 존중하며 포용하는 서비스	노인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 공공이나 민간의 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때 노인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공공과 상업 서비스는 노인의 필요와 선호도를 반영한 서비스와 물품을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 담당자는 노인에게 적절하게 응대하도록 교육을 받고 도움을 준다
나이듦/노화에 대한 공공의 이미지	대중매체는 노인에 대한 편에 박힌 모습 대신 긍정적인 이미지를 표현한다
세대 간 교류, 가족 내 교류	지역사회가 주관하는 활동이나 행사 등이 각 연령대 구성원의 욕구와 선호를 반영하므로 모든 연령대가 참여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내 가족 대상 활동에 노인들이 포함된다는 것이 분명하다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육	초중고등학교 교육 과정 안에서 노화와 노인에 대해 배운다
	지역 내 학교 활동에 학생, 교사와 함께 노인이 자발적이고 정기적으로 활동한다
지역사회의 포용성	노인이 자신들의 지식과 역사, 경험을 다른 세대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지역사회에서 노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할 때 노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다
	지역사회 구성원은 노인이 과거 뿐 아니라 현재에도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지역사회의 이웃 유대 강화 및 지원 활동에 노인이 중요한 정보 제공자, 조연자, 활동가, 수혜자로 포함된다
경제적 포용성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이 공공이나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출처: WHO(2007) National programmes for age-friendly cities A guide 재구성

- 인천시가 고령친화도시 가입과 관련하여 시행한 ‘인천시 고령친화도 조사’ 연구에서는 인천시의 물리적 환경보다는 인식 관련 영역의 고령친화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됨(하석철, 2022)
- 인천시의 ‘존중과 사회통합’ 영역 고령친화도는 2021년 479점으로 8개 영역 중 7위에 해당함
 - 더욱이 이 점수는 2018년 542점보다 63점 낮아진 것으로 고령친화도시 주요 8개 영역 가운데 하락 폭이 가장 큼
- 인천시는 ‘존중과 사회통합’ 영역 고령친화도 측정을 위하여 「인천시 노인의 지역사회 인식 연구」(하석철·이선영, 2018)와 「2021년 노인실태조사」(하석철·김제희, 2021)에서 관련 문항들을 추출하여 다섯 개의 평가 항목을 구성함
 - 항목은, ‘관공서 직원 친절도’, ‘세대 간 교류 기회 정기성’, ‘세대 간 교류에서의 역할 기회 충분도’, ‘주요 행위자로서의 참여 기회 충분도’, ‘대중매체의 노인 이미지 긍정적 표현도’임
- 인천시의 2021년 존중 및 사회통합 영역의 고령친화도는 2018년에 542점보다 63점 낮은 479점으로 보고됨(하석철, 2022)
 - 이것은 GNAFCC의 주요 8개 영역 중 7위에 해당함
 - 더욱이 존중 및 사회통합 영역의 고령친화도는 8개 영역 가운데 가장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존중 및 사회통합 영역의 다섯 개 하위 항목 모두 고령친화도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세대 간 교류, 가족 내 교류’를 포괄하는 ‘세대 간 교류 기회의 정기성’은 2018년에 대비 2021년 점수의 하락폭이 가장 큰 항목임
 - ‘세대 간 교류에서의 역할 기회 충분도’는 두 조사에서 모두 최하점을 받음
- 인천시의 존중 및 사회통합 영역의 고령친화도는 다른 영역에 비해 낮고,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세대 간 교류 관련 항목의 점수가 특별히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남
- 그러므로, 세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인식개선 사업 활성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3. 인천시의 ‘존중 및 사회통합’ 영역 관련 정책

- 인천시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2020년 조성 실행계획을 수립함(하석철, 2022)
- 또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노인복지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있음(국가법령정보센터)
- 인천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제2장 제10조는 노인의 권익 보호 및 세대 간 이해 증진과 존중 및 사회통합 영역의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 기반 구축의 목적을 지니고 있음
-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제2장 제10조의 각 항은 다음과 같음
 - 노인 상담기능 확대 등 권익 보호 강화
 -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 노인 인식개선 및 우대문화 환경 조성
 -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인천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에 WHO가 제시한 GNAFCC의 주요 8개 영역 가운데, ‘존중 및 사회통합’과 ‘의사소통 및 정보’ 영역을 융합하여 ‘소통 및 사회통합’ 영역을 구성함(하석철, 2022)
- 소통 및 사회통합 영역의 세부과제 및 세부사업의 내용은 <그림 2-7>에 제시됨

〈그림 2-7〉 인천시 소통 및 사회통합 영역 세부과제 및 세부사업



출처: 하석철, 2022 「인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실행계획 수립 연구」

- 이 영역의 세부과제 중 사회통합 촉진 과제에 포함된 ‘경로 및 효문화 확산 사업’은 WHO가 제시하는 존중과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이슈 가운데 ‘노인에 대해 존중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음’, ‘연령차별주의와 노인에 대한 이해 부족’, ‘지역사회 내 노인의 지위’와 관련됨
- ‘개방형 경로당 사업’은 ‘세대 간 교류와 대중에 대한 인식 교육’과 관련됨
- ‘어르신 행복 공동밥상 지원 사업’은 ‘경제적 배제’, ‘지역사회의 지원’과 관련됨
- 그러나, 존중과 사회통합 영역의 고령친화도 체크리스트에 대비하여 볼 때, 이들 사업이 실제로 세대 간 교류나 사회통합에 직접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개방형 경로당 사업의 경우 2023년 9월 현재 인천시 전역에 40개소가 운영되고 있어(인천시 노인정책과 제공) 세대 간 접촉 및 교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제3절 세대통합 사업 사례

- 인천시 뿐 아니라, 국내 다수의 지자체 및 민간에서 세대통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세대간 교류 및 통합을 위한 사업이 주로 노인복지기관에서 이루어져 다른 세대의 접근에 장벽이 된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였으므로, 노인복지기관 외의 주체가 기획하고 수행한 사업을 중심으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함
 - 사업에 따라 진행 및 협력 과정에서 노인복지기관과의 연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세대통합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세대를 ‘1세대’, ‘2세대’, ‘3세대’로 칭하기도 하는데, 이는 ‘유아동과 청년 세대’, ‘중장년 세대’, ‘노인 세대’와 유사한 용어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므로, 1·2·3세대로 나누는 것이 절대적인 연령의 구분이라고 볼 수 없음
- 사업에 따라 위의 두 가지 구분 외에도 시니어, 자녀 세대, 초등학생 등의 용어가 혼용됨
 - 본 절에서는 사업 대상을 구분하는 경우 1·2·3세대로 쓰고 사업 내용 소개 부분에서는 본래 사용된 용어를 그대로 가져다 씀
- 사업 가운데는 일회성 프로그램과 지속적으로 수행된 것,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것이 혼합되어 있음

1. 국내 사례

1) 1·3 세대 교류 사업 사례

- 1·3세대 교류 사업은 주로 유아동이나 청소년, 대학생, 손자녀 세대와 노인 혹은 조부모 세대를 대상으로 함
- 도시화와 핵가족화로 1세대와 3세대의 접촉 기회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에 대응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공동으로 활동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주를 이룸
- 1·3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사례는 <표 2-8>에 제시됨

〈표 2-8〉 1·3세대 대상 세대통합 사업 사례

사업명	시행 기관/지자체	시행시기	내용
청년·어르신 멘토링	서울시 용산구	2022~	· 용산형 세대 통합 모델 · 청년·어르신 1:1 매칭, 경험 공유와 소통, 이해 증진 프로젝트 · 총 4회차 진행 · 기획활동 재료비 10만원 청년에게 지급, 활동 성과 공유 · 어르신 대상 양말목 공예 교육, 함께 활동한 청년에게 응원의 메시지 쓰기
북 담은 설날	서울시 서대문구 아름인도서관	2020	· 2020년 설명절 직후 1회 진행 · ‘설날까지 일곱 밤’ 도서를 아동들에게 읽어준 후 지역 어르신들 에게 전할 메시지 적어 북주머니에 담게 함 · ‘마음아 괜찮아(노년기 우울증 완화 프로그램)’ 참여 어르신들과 함께 양갱 만들기
시니어드림페스 티벌	희망제작소	2014 ~2018	· 사회공헌 프로젝트 아이디어 제안 및 선정 · 시니어+청년 세대공감 팀 결성 · 1·3세대의 협력 활동을 통한 사회공헌 프로젝트 실행 · 최종 페스티벌에서 발표 · 24개 프로젝트 105명 참가
1·3세대 축구교실	부산시·민간기업 ·노인관련 기관 협업	2022~	· 축구 전문가 출신 시니어가 부산 지역 아동과 청소년 대상으로 축구 훈련
탄소중립 사회가치경영 현장교육 프로젝트	부산시·한국주 택금융공사	2023	· 어르신들을 탄소중립교육 전문 강사로 양성 ·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기관에 환경전문강사로 파견, 환경교육 실시

사업명	시행 기관/지자체	시행시기	내용
숲문화해설사업	광주광역시 교육청	2016	· 광주교육기부 웹사이트를 통해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 활용 교육매칭 프로그램 · 광주남구시니어클럽에서 전문직 은퇴자로 ‘숲문화 체험환경해설반’ 구성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진행 · 청소년에게 환경과 자연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 계기 마련 · 전문직 은퇴자들에게 사회적 역할 부여 · 1·3세대간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협력의 기회 제공
농소중학교세대 통합	울산광역시 농소중학교	2023	· 북구 노인복지과와 농소중의 업무 협약 · 학생들에게 지역에 봉사할 기회 제공 · 노인맞춤돌봄 우울 예방 프로그램 · 노인과 함께 농소중 돌아보기 · 빵·떡·초콜릿 만들기, 야외활동 등 진행 · 학생 봉사단에서 만든 생활 소품 월 1회 복지관 기부
‘맞잡고’ 디지털배움터	경기도 시흥시 정왕어울림센터	2022~	· 스마트팜 교구를 이용하여 어린이들에게 IT교육 · 어린이들이 멘토가 되어 다문화 외국인 경로당 이용자에게 스마트폰, 키오스크 사용법 교육 · 여름방학 동안 10회 진행 · 경기디지털배움터 운영사업단에서 장비, 소프트웨어, 기타 비용 후원
세대 간 소통베이커리	경기도 화성시 유엔아이센터	2022~	· 월 1회 정기 활동 · 세대별 유행빵 만들기 · 세대공감 도모, 세대 이해교육을 통한 어르신 세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형성, 세대간 교류 활성화
환경으로 통할Z	경기도 의정부시 청소년 수련관	2023	· 청소년과 어르신의 협업으로 사회문제인 기후위기 대응활동에 참여하는 활동 · 세대통합 및 환경교육 · 페플라스틱 수거 및 업사이클 공예품 제작 · 팝업스토어 캠페인 기획 및 운영 · 청소년에게 봉사시간을 지급함으로써 참여 의지 제고

사업명	시행 기관/지자체	시행시기	내용
종이비행기, 마음을 잇는 편지	충북여자고등 학교	2020 ~2022	· 재학생 51명이 만든 프로젝트 동아리 '종이비행기'의 활동 · 홀몸 어르신 93명의 고독감 감소, 심리·정서적 안정을 돕기위한 프로그램 · 자원 학생들이 매달 한 통씩 편지 쓰기 · 편지 내용 녹음 파일과 함께 생활 지원사를 통해 어르신께 전달 됨
지혜 UP!UP	충북청양군 청소년문화의 집	2021~	· 청소년과 어르신 1:1 매칭 · 6회기 진행 · UP!UP! 커플 체조, 우리의 멜로디, 우리의 전통 간식, 우리의 라탄, 우리의 손, 우리의 향기 프로그램 · 청소년들과 지역 어르신들의 긍정적 소통 · 세대 간 상호 존중감 함양의 기회 · 지식과 경험 공유의 기회 제공
할매할배의 날	경상북도 경산시	2014~	· 1·3세대 통합 인성 캠프, 랑랑 놀이터 등 개최 · 매월 마지막 토요일을 할매할배의 날로 지정 · 시차원에서 프로그램 개발, 진행 · 할매할배의 날에 조부모댁 찾아가기 실천 홍보
소통을 위한 동행, 함께 날다	경상북도 의령군건강가 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2018	· 8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 관내 어르신과 청소년 20명 대상 · 레크리에이션, 슈링클스 공예, 교복체험, 수학여행, 1세대 어르신들의 졸업사진 촬영
우리 혼디손심영 가게	제주시 삼도1동 청소년문화의 집	2019	· 여름 방학 기간 매주 수요일 14:00~16:00 · 청소년과 어르신 간 정보교환(스마트폰 사용법 ↔ 지명유래, 전설), 문화교환(신조어 교육 ↔ 상애편 만들기), 세대통합 퀴즈 및 발표 등
동네한바퀴 in 종로	희망제작소	2014	· 관내 거주 시니어와 주니어가 함께하는 지역 탐색 프로젝트 · 주민참여 지도 만들기 · 세대 간 교류와 함께 지역 이해 도모

2) 1·2·3세대 교류 사업

- 1·2·3세대 교류 사업은 대상이 특정되지 않고 누구나 참여하는 유형과 하나의 세대가 다른 두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사업을 모두 가리킴
- 1·2·3세대 교류 혹은 전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사례는 <표 2-9>에 제시되었음

<표 2-9> 1·2·3세대 대상 세대통합 사업 사례

사업명	시행 기관/지자체	시행 시기	내용
2060 부산 실버영상제	부산시·민간기 업·노인관련 기관 협업	2010~	·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다양한 세대와의 소통 목적 · 신 노인문화 정착 · 노인 스스로 혹은 노인을 주제로 한 영상 출품 · 심사, 시상, 상영 및 전시, 배포를 통해 노년기 문화 활성화 및 신 노인문화 선도 · 대학생 서포터단이 노인들의 영상 제작 현장을 동행 취재하는 ‘BSIF 청년일기’ 활동
바리스타 티칭 교실/라떼는 말이야	부산시·민간기 업·노인관련 기관 협업	2022~	· 바리스타 자격증 소지 시니어가 커피 만들기 교육, 바리스타 체험 교실 운영
세대이음 ESG센터	한국노인인력개 발원	2022~	· 부산시 금정구 1호점(2022), 동구 2호점(2023) 개소 · 플라스틱 분리수거 후 재활용품(조명등, 안전바 등) 제작 · 향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사용 목적 ·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
가족친화마을 조성사업	대구시	2016~	· 조부모, 부모, 자녀 세대가 함께 하는 활동 ·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 목적 · 6년간 30개 마을 참여 · 기존 단체나 가족친화마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참여 신청 · 1·2·3세대 어울림 사업, 세대통합 어르신 돌봄, 가족 행복 공동 활동 중 1개 사업 선택 공모 신청 · 선정된 가족친화마을에는 최대 3년간 공동체 활동운영비와 사업비 지원

사업명	시행 기관/지자체	시행 시기	내용
3대가 함께하는 세대공감 체험프로그램	대전시 두리초등학교	2023	· 3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운동, 게임, 요리 등의 프로그램
세대공감창의놀 이터	울산광역시 북구	2021	·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합 문화 공간 · 프로그램 별 대상 세대 다름 · 참여자가 실비 부담(재료비 등) · 3세대 대상 프로그램 수는 적은 편
‘두레’ 세대공감 시범학교	충청북도교육 청·충주대소 원초등학교	2021~ 2023	· 초등학교 교육 과정 중에 세대공감 교육 포함 · 초중학생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초중 교원 관계, 1·3세대 관계 를 세대 관계로 설정 · 학생, 교원, 학부모 사이의 유대감과 공감 능력 향상 도모 · 1~3세대 간 공감 활동 프로그램 기획 운영
산수유발효학교	경기도 인천시 백사면 주민자치학습 센터	2021~	· 마을특화식품 개발 마을학교 프로그램 ·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사업 · 마을 특화 상품인 산수유 고추장, 산수유 막걸리 제조에 함께 참여 · 김장캠프를 통해 지역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 기존 거주 주부와 귀촌한 젊은 주부의 매칭을 통해 젊은 세대 포용 효과
일동패밀리 100인 합창단	경기도 안산시	2015~	· 8세부터 84세 주민 남녀노소로 구성 · 성악가인 주민자치위원장의 재능기부로 시작 · 경기도 파북공동체 주민공모사업 선정 · 주 3회 연습, 매년 정기 무료 공연 · 관람객 나이 제한 없음 · 공연자는 꽃다발을 받지 않고 축하의 마음을 이웃돕기 모금에 기부하도록 함
세대문화교류 페스티벌	경기도 안양문화예술 재단	2015	·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의 일환 · 문화 활동과 생활 예술 체험을 통해 세대 간 문화다양성 공존을 목표로 함 · 세대문화 다양성 인식사업, 세대 간 문화교류 프로그램 개발, 청 소년-노년 교류 인력 양성 등 진행

사업명	시행 기관/지자체	시행 시기	내용
전남 고독사 지킴이단	전라남도청 고령사회정책 과	2016~	· 22개 시군 부녀회, 이장, 통장, 종교인, 자율방범대, 공무원,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로 구성 · 2019년 지역 내 4개 대학 학생 200명이 지킴이단 참여 · 세대통합 활성화를 위한 활동 지속적으로 확대 · 1:1 결연, 전화, 방문을 통한 돌봄대상 어르신인의 안전 확인, 말벗, 친구 역할 등 세대 간 교류 활동 중심 · 세대 간 행복 나눔 상생모델로 자리매김 · 2021년 ‘어르신 지킴이단’으로 명칭 변경 · 노인인권, 학대 예방, 노인 응급 안전 등 강의와 실습, 경험 노하우 공유 · 폭염, 장마, 혹서 기간 취약 노인 피해 예방에 노력
코샷한 제주사랑방	제주도시재생 지원센터	2022	· 경력단절을 겪는 다양한 세대의 경력 회복과 지역 내에서 경험과 역량을 나누도록 하는 ‘세대돌봄’ 사업 · 경력단절 여성과 장년층이 서로 돌봄 주체가 되어 세대돌봄 실현 · 주요 실행 의제로 ‘거점공간 기반 아동,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의 세대 서로돌봄 프로젝트’ 선정 · 당사자들이 돌봄 수혜자가 아닌 사회적 주체로서의 역할 회복하도록 지원 · 당사자의 자기 돌봄, 돌봄 주체 양성을 통한 서로돌봄, 각기 다른 세대가 소통하는 세대소통, 육아돌봄 등 프로그램 운영 · 20대~60대 돌봄주체 선발, 양성 교육, 돌봄 강사로 활동 · 아동, 장애인, 노인에 대한 돌봄이 일상에서의 소통, 관계, 지역의 일상적 돌봄 관점으로 전환하는데 의미를 둠 · 공간 기반 서로돌봄 모델
역지사지	제주문화예술 재단	2016 ~2017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보급사업 · 2세대 이상의 부모와 자녀·가족이 함께 모여 과거와 현재를 돌아 보고 세대 간 놀이 공유, 가족 간 소통 기회 마련 · 제주도내 거주 초등학교생 이상 자녀가 있는 2세대 이상의 가족구성원 참가 · 과학과 전통예술을 놀이로 접목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체험 및 경험 · 서로의 세대를 공감하고 공유하여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함

- 세대 간 교류 및 세대통합 사업은 2014년 혹은 그 이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나 2020년을 전후로 그 수가 증가하기 시작함
- 세대통합 사업은 멘토링, 체험활동, ESG경영 및 환경 관련, 디지털, 3세대에 대한 봉사, 예술활동, 마을 단위 공동체 회복 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음
 - 1·3세대 교류 사업은 3세대(청소년)가 1세대(노인)에게 봉사하는 형태로 구성된 경우가 많음
 -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참여자 전체가 교류하고 함께 활동하는 데 중점을 둔 경우가 많음
- 사업 계획 안에 세대통합 인식개선 관련 전문 교육이 포함된 경우는 드물고, 여러 세대가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세대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개선 효과를 얻고자 함
- 노인복지기관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세대통합 사업의 대다수가 지방자치단체나 지자체 운영·관리 기관에서 진행되며 민간 주도적 사업은 소수에 불과함
- 많은 사업이 일회성이거나 짧은 기간 내에 진행되어 지속적·정기적으로 진행된다고 보기 어려움
- 1·3세대 교류 사업보다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사업의 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시작하거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기획한 사업의 지속성이 높음
 - 민간 주도 사업인 경우에도 지자체나 중앙 정부의 공모사업을 통해 자원을 조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세대통합 사업의 지속성과 정기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것은 다수의 사업이 특정 기간 지원되는 사업비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 됨

2. 해외 사례

1) 프랑스 (Petits Freres des Pauvres:PFP, 가난한 이들의 작은 형제들)

- ‘가난한 이들의 작은 형제들’은 Armand Marquiset 가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빈곤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파리 11구역(Quartier Saint-Ambroise)에 설립한 협회를 기반으로 사업이 진행됨
- 1946년 설립된 협회는 젊은이들의 활동을 통해 빈곤 노인을 지원하는 비정치·비종교 기반의 기구이며, 프랑스 내 11개 지역 사무소와 유럽·북미 지역을 담당하는 1개 사무소에 속한 380여 개의 활동팀으로 구성됨
- 주요 사업은 고립 노인과 지속적인 신뢰관계 형성, 공동체 활동 운영, 취약 노인 지원, 인식개선 사업임
- 활동은 대부분 자원봉사로 진행되며 자원봉사자의 1/3 이상이 30세 미만의 젊은 세대임
- 고립 노인과 지속적인 신뢰관계 형성 사업에는 가정 및 요양 시설, 입원 노인이나 임종기 노인, 이주노인 요양원, 교도소 등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 수신자(협회)부담 전화 핫라인 운영, 외딴 지역 거주 노인을 위한 이동 카페 운영 등의 활동이 포함됨

〈그림 2-9〉 PFP의 고립 노인 지원 사업



출처: PFP 웹사이트

- 공동체 사업은 크리스마스나 새해와 같은 명절 잔치, 여러 세대가 함께 하는 체험활동, 나들이와 여행, 치매와 같은 인지 저하를 겪는 노인과 정기적으로 보드게임 하기, 악기 연주 강습, 영화관 동행 등을 기획, 운영하는 것을 주요 활동으로 함

〈그림 2-10〉 PFP의 공동체 활동 사업



출처: PFP 웹사이트

- 취약 노인 지원 사업은 임시 숙소 제공, 주거 지원, 물품 지원, 폭염기 집중 지원 활동으로 구성됨
- 이 가운데 폭염기 집중 지원 활동은 2003년 폭염으로 프랑스에서만 15,000명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PFP가 2004년부터 시작한 사업임
 - 특별히 빈곤·취약·독거 노인은 더위로 인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나 자원이 없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집중 지원이 필수적임
- ‘증언과 환기’라고 불리는 인식개선 및 홍보 사업은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 경험 및 사례 공유와 노인의 날인 10월 1일에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을 주요 활동으로 함

〈그림 2-10〉 PFP의 취약 노인 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



출처: PFP 웹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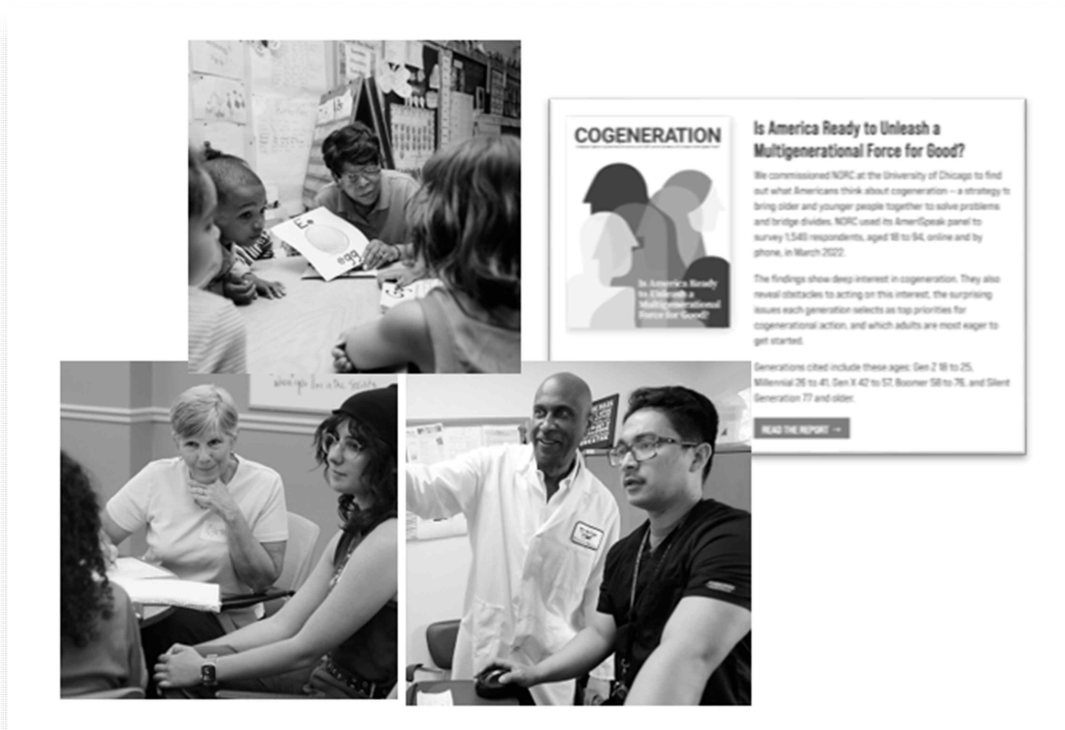
- PFP의 사업은 중앙이나 지방 정부의 보조나 종교기관의 지원 없이 후원금과 자원봉사로 진행된다는 특성이 있음
- PFP는 전국 및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인적, 물적 자원의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수신자 부담 전화 핫라인의 경우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이나 자원봉사자의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다양한 언어로 대화를 할 수 있어 프랑스어에 서툰 노인도 이용이 가능함
-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통합 사업에서 제외되기 쉬운 시설 거주 노인, 이주노인, 임종기 노인이 대상자에 포함된다는 점과, 사전의료의향서, 유언장, 생애사 작성과 사후 기부 서약 등 죽음 준비 영역까지 활동 내용에 포함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2) 미국 (CoGenerate, 전 Encoreorg)

- 1996년 당시 80대였던 John Gardner와 30대였던 Mark Freedman, 그리고 Linda Fried 박사가 Experience Corps라는 이름으로 창설한 단체에서 유래하였음
- 55세 이상 세대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글자를 가르치거나 책을 읽어주는 Experience Corps사업으로 출발함
- 2022년, 증가하는 중년 이상, 노인 인구와 젊은 세대가 협업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 CoGenerate로 명칭을 바꿈
- 주요 사업은 경제적 지원, 세대 융합적 역량 강화, 모범 사례 포상, 연구 사업임
 - Innovation Fellowship, Generations Serving Together, The Purpose Prize 등의 경제적 지원 사업은 사회문제 해결과 세대간 격차 극복을 위해 활동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사업비 및 운영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동시에 필요한 훈련과 동료 지원을 제공함
 - 특히,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세대통합/융합 사업을 지원하는데 주력함
- 세대 융합적 역량 강화 사업은 전문적인 경험과 능력, 경력을 가진 은퇴자와 멘토링이 필요한 동일 분야의 젊은 세대를 연계하여 지식과 경험 전달을 통해 세대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가운데 The Encore Network이나 Encore Fellowship와 같은 멘토링 프로그램은 전문직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은퇴자가 6~12개월의 훈련을 받은 후 보수를 받는 리더십 멘토로 활동하게 하는 프로그램임
 - Encore Physicians은 경우 은퇴 의사가 젊은 의사 혹은 의사 지망생의 멘토로 활동하면서 의료 사각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CoGerenate은 참여자 가운데 모범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동시에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세대통합 지향 사업의 기획을 장려함

〈그림 2-11〉 CoGerenate의 주요 사업



출처: CoGenrate 웹사이트

- CoGenerate는 전문직 은퇴자가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고 새롭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젊은 세대는 필요한 자원을 얻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함
- CoGenerate 사업 가운데 특별한 점은, 세대통합 관련 연구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한다는 점임
 - 2022년에는 18세부터 94세 1,549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지원함
 - 동시에 세대통합 및 세대융합적 활동이 사회문제 해결과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책자를 발간하는 일을 지원하는 등 세대 간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에 이바지하고 있음

3) 독일 (Mehr Generationen Haus:MGH, 다세대의 집)

- 2021년부터 독일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일종의 커뮤니티 센터로 세대교류, 사회통합, 자원 봉사 수행과 연계의 플랫폼 역할을 함
- 독일 전역에 530여 개소가 운영 중이며 자원으로는 연방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민간 자금이 복합적으로 지원됨
- 소수의 종사자와 대다수의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되는데 이용자와 봉사자 모두에 대한 연령 제한이 없음
- 이용자,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자, 자원, 진행 과정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으며, 모니터링에 대한 상세한 기준이 제공됨
- MGH는 독일의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Federal Ministry for Family,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에서 여러 세대의 만남과 공동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소와 기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시설임
- MGH에서 운영되는 사업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연방정부 제공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 성인, 이주민을 위한 독일어 회화 및 문해력 강좌,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학 강좌, 자원봉사자 교육 등임

〈그림 2-12〉 Mehr Generationen Haus의 주요 사업



출처: Mehr Generationen Haus 웹사이트

- 각 MGH는 지역 주민의 구성과 욕구를 바탕으로 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함
- 지역 MGH의 프로그램은 보육, 지역사회 노인의 일상생활 지원, IT교육, 식사 및 간식 제공, 골목 축제, 사회적 관계망 지원, 알뜰장터, 회의 및 만남의 장소 제공, 친환경 활동을 위한 다양한 수선가게와 도시 텃밭 운영, 방과후 돌봄, 자조모임, 운동 지원 등이 있음
- MGH는 정부, 시민, 기업의 동반관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내 기업,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기관과 구직자, 자원봉사자를 연계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
- 각 MGH는 정기적인 원탁회의 개최를 통해 이용자와 지역 주민의 욕구를 조사, 반영하는데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MGH의 연방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독일어와 영어를 포함한 10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되며, 웹사이트 안에는 수어 동영상과 쉬운 정보 형태의 안내가 함께 제공됨

4) 북아일랜드(Linking Generation:LGNI, 세대 이음)

- 세대통합과 노인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국의 Beth Johnson 재단의 지원으로 2009년 북아일랜드에서 시작된 세대통합 사업
- 사회문제에 대한 세대통합적 관점의 접근 방법을 개발하고 현실에 반영하는데 사업의 중점이 있음
- LGNI의 주요 사업은 노인과 세대통합 관련 인식개선,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교육, 모든 세대 대상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루어짐
 - COVID-19 팬데믹 시기에는 비대면으로 요양 시설 방문을 연계하였으며, 다세대 간의 만남을 온라인으로 진행함
- 아동들과 노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된 여름방학 캠프는 아동 돌봄과 노인 고독감 해소의 효과를 보임
- ‘할머니·할아버지 되기 프로그램’은 세대 간 단절을 해소하고 교류와 이해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

〈그림 2-13〉 LGNI의 주요 사업



출처: LGNI 웹사이트

- LGNI는 지역사회 안에서 세대 간 접촉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기관이 세대통합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신들의 활동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함
- 북아일랜드 전역에 11개소 지역 센터가 하나의 커뮤니티로 연결되어 아이디어, 교육,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여 정보 공유의 용이성을 극대화함
 - 또한 각급 학교, 종교단체, 지역 내 기업, 공공기관, 자원봉사자를 연계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함
- 영국 Beth Johnson 재단뿐 아니라 스코틀랜드의 Generations Working Together와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정보와 자원을 공유함
- LGNI는 복지·돌봄·교육 분야 종사자와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세대통합 관련 교육과 훈련을 진행함
 - 교육은 대상, 기간, 수준에 따라 유료와 무료로 나뉘는데, 세대통합 사업 코디네이터 교육의 경우 일자리 연계까지 이어짐

5) 해외 사례의 시사점

- 이상에 소개된 해외 사례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첫째, 각 사례는 온/오프라인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자원,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음
 - 특별히 사례로 제시된 모든 사업들이, 웹사이트를 공유와 교류의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각 사례는 이벤트성 사업에 더불어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임
 - 여러 세대의 접근에 장벽이 없는 적절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과 자원 제공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사업이 정기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함
- 셋째, 소개된 사례들은 대부분 세대 간 활동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양방향 혹은 다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음

- 이 때, 노인 세대의 경험과 지식을 젊은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인들의 시간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필요성을 자원으로 전환하여 아동 돌봄, 보육 공백 해소 등에 이용하고 있음
- 넷째, 위의 사례들은 대부분 행정, 관리, 전문 영역을 제외한 실제 사업 진행의 핵심을 다양한 세대의 자원봉사자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여러 사례에서 세대통합 사업이 사회통합으로 확장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음
 - 빈곤 아동을 위한 문해 사업, 의료 사각 지역 봉사, 이주민 대상 언어 교육, 취약 노인 지원, 시설 거주 노인과 교도소 수감자 방문 등은 세대통합을 넘어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짐

3. 인천시 사례

1) 노인복지 관련 기관 세대통합 사업

- 인천시 노인관련 기관에서 진행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세대통합 관련 사업은 <표 2-10>에 제시되어 있음
- 사업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되었는데 시행 시기 및 회기, 현재 진행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사례가 드물어 제시된 사업을 모두 나열하였음

<표 2-10> 인천시 노인복지 관련 기관 세대통합 사업

기관명	사 업 명	내 용
동구 노인 문화 센터	세대이음사업	1·3세대 통합프로그램(키오스크, 스마트폰, 네일아트 등)
	어르신책동무	관내 보육시설,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아동들과 책읽기, 책 정리 등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모집인원 : 30명
	아동건강지킴이	관내 아동들의 건강과 안전한 보육환경 제공을 위해 장난감 및 교구를 소독, 관리하는 활동모집인원 : 60명

기관명	사 업 명	내 용
미추홀 노인 복지관	공유주방	1.3세대 및 지역주민 통합 프로그램
	공감데이	주안동 45개소 경로당과 1-3세대가 함께 즐기는 세대공감 프로그램
	크린데이	용현동 44개소 경로당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환경개선 및 캠페인 활동
	1-3세대강사 파견활동	보육시설에 파견되어 동화구연, 한자교육지도
	특화교육지원사업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어 교육활동진행
	우리산푸르게푸르게 장난감세척도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서 아동 위생을 위한 장난감 세척 및 교구 정리
	은나래 전통놀이계승 봉사단	관내 초등학교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전통놀이 전수 및 놀이를 진행하여 1-3세대 소통과 공감을 도모
	미추홀구 문예대상	미추홀구지역 아동(초등학생)과 어른신이 함께 문화예술 창작활동 (수필/시/그림)의 장 마련
용현노인 문화센터	역사야 놀자	관내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우리나라 역사와 전래놀이 전수
주안노인 문화센터	다누리사업단	미추홀구 다문화 가족시설 업무보조 지원
관교 노인 복지관	1-3세대 장학사업	노인자원봉사자 활동으로 카페 운영을 통한 수익금을 장학 지원
	승학골서당	양육공백 가정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방학기간 중 은퇴 어르신 이 아동돌봄을 지원하는 사업
	승학골 인형극단	경륜전수 문화활동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내 아동시설 대상 인형 극 공연 제공

기관명	사 업 명	내 용
	스쿨존 지킴이	등하교 시간 스쿨존 횡단보도 교통안전 지도 및 학교 주변 환경정비
	1-2-3세대통합	전통예절, 스토리텔러(재능기부)
연수구 노인 복지관	선배시민양성	한자지도사, 동화구연지도사, 전래놀이지도사
	멘토링 프로그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내 부적응 예방과 인격적 성장 멘토(인생의 선생님) 활동
	세대교류 효체험장 “孝예 (yeah !예(禮)~”	한국의 전통예절과 다도교육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전인교육孝체 험장 운영
	쉐이크봉사단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탁구 재능나눔 봉사
	연수루프탑마켓	주민들의 여가문화생활 영위를 위해 복지관 시설개방으로 지역의 주 민, 어르신, 학생들이 함께 마켓 운영
	출판 및 홍보사업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확대를 통하여 복지관 사업 및 어르신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개선
	천수강사	유아교육기관 한자지도, 예절지도, 구연동화등 강사활동
	예나누미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배례법, 한복입기, 식사예절 등 예절교육 진행
	토닥토닥보육도우미	보육, 교육시설 교사보조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 향상도모
	전래놀이지도사	지역 내 아동, 청소년들에게 전래놀이 전통계승을 통한 1,3세대 통합 활동
	학교밖안전지킴이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도를 통한 사고 및 범죄예방

기관명	사 업 명	내 용
	행복등하교도우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유아 및 아동의 등교 및 하교길 동행활동 및 아동 보호, 선도활동
	찾아오는 경로당 활동	두발 자전거 멘토링, 포스코고 학생 사물놀이 지도, 개방형 경로당 한지공예 활동 등
청학노인 복지관	1-3세대 통합프로그램 힐링서예	
송도 노인 복지관	송도이야기 동화나라	아동학대예방동화구연 교육, 자조모임, 자원봉사활동
	송도그림책 봉사단	그림책지도 교육, 자조모임 및 자원봉사활동
	손자녀양육을 위한 프로그램 '뽀뽀한 육아'	양육스트레스 해소, 손자녀 대화법, 양육코칭
	스쿨존안전지킴이	초등학교 아동의 등하굣길 교통 안전 지도
효행장려 지원센터	세대간 공감향상을 위한 가족상담	윗 세대 공경의 모범이 되는 사람, 아랫 세대 사랑에 공이 있는 사람, 가족 사랑 실천의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 표창
중구 노인 복지관	1-3세대소통도우미	1-3세대 멘토링
	책갈피사업단	공공도서관 도서 정리 및 관리
	시니어안전모니터링단	지역 내 근린 시설 안전 점검
	토이클린사업단	
	우리동네안전지킴이	횡단보도 교통 안전 지도
	보육시설도우미	

기관명	사 업 명	내 용
동구 노인 복지관	1-3세대 탁구교실	지역 내 아동에게 탁구 수업 진행
	클리어데이	청소 및 말벗, 안마
	어울림 스쿨	영어·컴퓨터·한글·수학 학습멘토링, 탁구, 학습지원(전문자원봉사자)
	Love Plus 생필품 나누기	관내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가 생필품 후원
	장학후원회 운영	저소득 학생 지원

- 인천시 노인복지 관련 기관의 세대통합 사업은 주로 1·3세대를 대상으로 함
- 이들 사업은 사회참여지원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지역자원 개발 사업의 일환인 경우가 많음
- 다수의 사업이 1세대 자원을 이용하여 3세대의 보건, 안전 관리를 하는 수준에 그쳐 1·3세대의 교류나 이해 증진의 효과가 미약함
- 1·3세대가 함께 하는 활동의 경우 1세대의 경험과 지식을 3세대에게 전수하거나 활동을 지도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2) 종합복지관의 세대통합 사업

- 노인복지 기관이 아니면서 과거에 세대통합 사업을 진행하였거나 현재 진행 중인 곳은 주로 종합복지관임
- 인천시 종합복지관에서 시행되었거나 현재 시행 중인 세대통합 사업은 <표 2-11>에 제시되어 있음
 -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을 모두 나열하였으며 현재 진행 여부, 진행 시기 등의 자료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임

〈표 2-11〉 노인복지 기관 외 세대통합 사업

기관명	사업명	내용
인천 종합 사회 복지관	아빠놀이터	
	가족사진 공모전	
	가온누리멘토링	대학생과 아동 1:1 매칭
미추홀 종합 사회 복지관	가족, 역사에 빠지다	가족친화적 여행프로그램
	1-3세대 프로그램 효사랑 OLD&NEW	어르신과 중학교 학생들이 함께 조를 이뤄 활동하여 협동심, 친밀감, 사회성 향상을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전통문화	아이들이 생소한 전통을 통하여 새로운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멘토링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성인 멘토와 1:1연계를 통해, 정서적지지 및 학습지원을 제공합니다
송의종합 사회 복지관	어르신돌봄은행	돌봄이 필요한 만65세 이상 지역주민과 만 13세 이상 돌봄봉사자의 1:1 매칭을 통해 인지 및 정서적지원, 복지서비스전달, 일상생활지지
연수종합 사회 복지관	별별사나이(독거남성 정서 지원 프로그램)	30대 후반~60대 초반 성인 남성 요리활동, 영화관람, 정리정돈 교육, 각종 체험 등 정서지원, 사회적 고립감 및 우울감 감소
세화종합 사회 복지관	예그리나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학생과 1:1 결연하여 학습지도, 문화체험활동 등을 통해 학업 성취도와 흥미도를 향상시키고, 정서적 안정 도모
성산종합 사회복 지관	공공의 월경	자녀가 있는 부모세대가 연대하여 지역 내 여성운동을 실천, 성별, 환경, 세대 간의 어울림이 있는 공동체를 지향, 건강하고 대안적인 삶을 고민하고 실천

기관명	사업명	내용
삼산 종합 사회 복지관	스텝업	저소득 결손가정 아동, 청소년을 대학생 및 성인 멘토봉사자와 일대일 매칭으로 개별 멘토링 서비스
	패밀리가 떴다	복지 사각지대 독거주민에게 밑반찬 조리 및 배달 지원 자원봉사 활동을 가족 단위로 실행
부평중부 종합사회 복지관	도란도란	멘토(일반인 및 대학생)와 멘티(저소득 가정 아동 및 청소년) 1:1 멘토링, 정서지원 활동으로 성인의 역할모델을 제공하여 멘티의 사회성 향상 및 정서적 지지 지원
계양종합 사회 복지관	행복한 삶을 위한 디자인	요보호아동과 주부자원봉사자의 1:1 결연을 통한 멘토링 프로그램
인천 기독교 종합 사회 복지관	행복전파단	초중학생 연극단원, 20세 이상 대학생 성인이 보조-->연극 공연
	누리보듬	성인, 대학생 자원봉사자, 어르신, 청장년층 대상자 결연, 방문, 통화, 지속적 안부 확인 활동

- 종합복지관에서 수행한 세대통합 사업은 1·3세대 외에도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장년층이 대상에 포함된 경우가 있음
- 또한 3세대 안에서 낮은 연령의 아동과 비교적 높은 연령의 청년층을 매칭하거나, 2세대의 낮은 연령인 장년층과 높은 연령인 중년층을 연계한 사업도 존재함
- 노인복지 관련 기관의 세대통합 사업에 비해 대상자에 3세대인 노인이 포함된 경우가 적음
- 1·2·3세대 모두를 아우르는 사업은 수가 많지 않음

3) 개방형 경로당 사업

- 개방형 경로당 사업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의 ‘소통 및 사회통합’ 영역 세부사업 가운데 하나임
- 인천시 10개 군구에는 2020년부터 매년 10개소의 개방형 경로당이 조성되어 현재 총 40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각 군구 별로 4개소의 개방형 경로당이 조성되어 있음
- 개방형 경로당의 유형에는 휴게시설인 카페형, 작은복지센터형, 작은도서관형, 영화관람형, 북카페형, 공유부엌형이 있음
- 각 유형별 개방 경로당 조성 지역과 조성 시기는 <표 2-12>에 제시되어 있음

<표 2-12> 유형별 개방형 경로당 조성 현황

테마형 유형	군·구명	경로당명	조성연도
작은복지센터형	강화군	옥림1리 경로당	2020
	강화군	갑수경로당	2021
	강화군	당산리경로당	2022
	옹진군	외1리 경로당	2020
	옹진군	장봉경로당	2021
	연수구	선학경로당	2021
	부평구	중앙경로당	2021
	부평구	천마경로당	2022
	부평구	십정2동분회경로당	2023
	서구	공촌경로당	2021
	동구	팽이부리마을경로당	2022

테마형 유형	군·구명	경로당명	조성연도
	남동구	장수경로당	2022
	남동구	도림동경로당	2023
	계양구	굴현동경로당	2022
	중구	금산경로당	2023
	서구	석남1동분회경로당	2023
영화관람형	계양구	동양동경로당	2020
	서구	원적경로당	2020
	중구	왕산경로당	2021
	동구	화수2동경로당	2021
	미추홀구	여의실경로당	2022
	미추홀구	송의2동분회경로당	2023
	옹진군	사곶경로당	2022
	옹진군	이작3리경로당	2023
카페형	연수구	청학골경로당	2022
	연수구	함박경로당	2023
	연수구	연수경로당	2020
	중구	북성동경로당	2022
	중구	연안동경로당	2020

테마형 유형	군·구명	경로당명	조성연도
	동구	송림6동 제2경로당	2023
	강화군	덕하2리경로당	2023
공유부역형	미추홀구	관교분회경로당	2020
	미추홀구	제물포경로당	2021
	계양구	장기동경로당	2021
	남동구	성화경로당	2020
작은도서관형	동구	송림2동경로당	2020
	남동구	만수5동 경로당	2021
북카페형	부평구	부평6동 분회경로당	2020
	서구	고현경로당	2022
미정	계양구	박촌중앙경로당	2023

- 가장 많이 조성된 개방형 경로당 유형은 작은복지센터형으로 총 15개소가 조성되어 있음
- 다음으로는 8개소가 조성된 영화관람형 개방 경로당이 많았으며 카페형 개방 경로당은 7개소가 있음
- 공유부역형 개방 경로당은 4개소가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형과 북카페형은 각각 2개소가 조성되어 있음
- 2023년 계양구에 조성 중인 박촌중앙경로당은 현재 테마 유형이 확정되지 않음

4) 인천시 세대통합 사업의 특징

- 인천시의 세대통합 사업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의 ‘소통 및 사회통합’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영역과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함
 - 예를 들어 등하교길 교통 안전 지도, 보육시설 도우미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되어 ‘일자리 참여’ 영역에도 속한다고 할 수 있음
- 세대통합 사업은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경로당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종합복지관에서도 일부 수행함
- 전 세대를 아우르는 사업은 그 수가 많지 않고 1·3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주를 이룸
- 1·3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3세대의 연령이 낮은 경우에는 1세대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교육 및 멘토링 중심으로 사업이 구성됨
- 반면, 3세대이면서 연령이 높은 청년층이 사업 대상자인 경우, 1세대에 대한 봉사 위주 활동이 많음
-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된 사업 가운데는 세대 간의 시공간적 공존 이외의 실질적인 상호작용이나 교류가 거의 없거나 미미한 경우가 많음
-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참여자, 수요자, 지역 자원을 연계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부재함
- 일회적, 한시적 사업이 많으며 사업 내용, 시행 시기, 현재 진행 여부 등의 자료를 파악하기 어려움
- 지역 및 기관 별로 수행하는 사업의 수, 내용, 지속성 등의 편차가 큼

제 3 장

세대통합 사업 관련 조사

제1절 세대통합 사업 관련자 초점 집단 인터뷰

(Focused Group Interview: FGI)

제2절 FGI 분석 결과: 구조적 장애요인과 개선 방안

제3절 세대통합 사업 가이드라인

제4절 세대통합 사업 사례 제안

Incheon Metropolitan City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제3장 세대통합 사업 관련자 조사

제1절 세대통합 사업 관련자 초점 집단 인터뷰 (Focused Group Interview: FGI)

1. FGI 개요

- 인천시의 세대통합 사업의 수행 현황을 파악하고 세대 간 상호작용을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세대통합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수행 경험이 있는 담당자·관리자를 대상으로 초점 집단 인터뷰(Focused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함
- 많은 세대통합 사업이 노인복지기관에서 수행되고 있으나, 일부 종합복지관에서도 유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 인천시 전체 복지기관의 세대통합 사업 시행 여부를 조사함
- 세대통합 사업 시행 여부 조사 대상 기관은 인천시 각 구군 별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종합복지관 21개 소이며 66건의 세대통합 사업이 시행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임
- 대상 기관 가운데 현재 세대통합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FGI 대상으로 선정하여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담당자 혹은 사업 진행 부서의 관리자를 섭외함
- 총 9개 기관에서 9명의 대상자가 참여한 인터뷰는 2023년 6월 30일부터 7월 6일 사이에 3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각 인터뷰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됨
- 효율적인 인터뷰 진행과 심도 있는 의견 나눔을 위해 반구조화된 사전 질문지를 배부함
 - 사전 질문지는 인터뷰 시 연구자가 묻게 될 질문 내용을 담고 있어 인터뷰 대상자 뿐 아니라 기관 내 유관 인물의 의견을 파악하여 인터뷰 시에 공유 가능하게 함
 - 또한 각 기관에서 지난 5년간 수행한 적이 있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자료를 기재하게 함
- 인터뷰 수행 전에 사전 질문지를 취합하여 기관 별 수행 세대통합 사업 내용을 미리 파악함
- 모든 인터뷰는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으며 사후에 전사함
- 연구 책임자와 공동 연구원은 모든 인터뷰에 함께 참석하였으며 필요한 사항은 메모하여 사후 전사 내용과 함께 분석에 활용함
- 인터뷰 내용은 각 질문에 대한 응답 유형 별로 정리·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1) 연구 참여자

- FGI 참여자는 총 9명으로 여성 7명, 남성 2명임
- 참여자 가운데 7명은 노인복지관, 1명은 노인문화센터, 1명은 종합복지관에 근무함
- 대부분의 참여자는 세대통합 사업을 직접 진행하는 사업 담당자이며 2명은 세대통합 사업 수행 부서의 팀장임
- 참여자의 연령 분포는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임
- FGI 참여자는 다음과 같음

〈표 3-1〉 FGI 참여자

구분	성 별	연령대	소 속	직 급
A	여	20대	○○○노인복지관	팀장
B	여	30대	○○노인복지관	팀장
C	여	20대	○○노인문화센터	사업 담당자
D	여	30대	○○노인복지관	사업 담당자
E	남	30대	○○○○○종합사회복지관	사업 담당자
F	여	30대	○○노인복지관	사업 담당자
G	남	30대	○○노인복지관	사업 담당자
H	여	30대	○○노인복지관	사업 담당자
I	여	30대	○○노인복지관	경로당 사업 담당자

2) 조사 내용

- FGI를 통해 조사한 내용은 세대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세대통합 사업 현황, 세대통합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 제시의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세대에 대한 인식 및 경험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함
 - 세대 차이가 발생하는 나이 차이
 - 세대 갈등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우
 - 갈등이 가장 심각한 세대
 - 50+세대와 다른 세대 간의 관계
 - 갈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세대
- 세대통합 사업 현황은 아래의 사항을 통해 파악하고자 함
 - 참여자 소속기관에서 지난 5년간 수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시행 시기, 사업명, 사업 대상, 참여 인원, 수행 장소, 수행 방법, 기획 기관, 홍보 방법을 사전에 기재하여 제출하게 함
 -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과 그 이유
 - 특별히 높은 만족도를 보인 대상자 집단
 - 사업 기획 의도와 결과의 일치성
 - 세대 간 소통 및 통합 효과성 정도
 - 사업 수행의 장애요인
 - 노인복지기관 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장단점
- 세대통합 사업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의견은 다음을 통해 파악함
 - 참여도, 만족도, 수행 효과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
 - 프로그램 수행 시 경험한 보람과 어려움
 -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기획 및 수행을 희망하는 사업
 - 기타 세대통합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
- 각 항목은 사전 질문지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사전에 배포·회신 되었으며, 인터뷰 당일 사회자에 의해 심도 있는 질문과 세부 내용, 다른 참여자와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짐

3) FGI 질문지

세대통합을 위한 상호작용 활성화 방안 연구 FGI 질문지

*본 질문지는 FGI 당일 참여자 여러분께 여쭙게 될 질문입니다.

미리 간략하게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효율적인 인터뷰 진행과 심도 있는 의견 나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터뷰 대상: 노인관련 기관의 세대통합 관련 프로그램 담당자 혹은 관리자

대상자 수: 총 9명(3인*3회)

1. 세대차이는 몇 살 정도 차이가 날 때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
2. 노인복지 실천현장에서 노인, 중장년, 청년, 유아동 세대와의 갈등을 경험하거나 목격하신 경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2-1. 어떤 세대간의 갈등이 가장 심각하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지난 5년간 귀하의 기관에서 수행하거나 수행한 적이 있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필요한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번호	시행 연도	사업명	사업 대상	참여 대상 및 인원(장기 사업의 경우 인원 추이)	사업 분류	사업 필요성	수행 장소	수행 방법	기획 기관 (시/자체기획)	홍보 방법
1										
2										
3										
4										

4. 참여도나 만족도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4-1. 참여자 가운데 특별히 만족도가 높은 부류는 누구였나요?(세대, 남녀, 학력, 지역 등)

4-2. 이러한 결과는 기획 단계부터 기대한 결과와 일치합니까?

5.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수행의 결과 혹은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각 세대가 가진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었는지, 세대간의 효과적인 소통 방식을 발굴하였는지 등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6.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나 장애요인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점, 실무적 진행의 미숙함, 수행 장소의 물리적 환경, 대상자 등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7. 노인관련 기관이 아닌 곳(예를 들어 동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수행한다면 어떤 점에서 유리하고 어떤 점에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하십니까?
8. 이번 연구는 노인뿐 아니라 중장년층이라고 할 수 있는 5060세대와 다른 세대의 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 세대와 다른 세대의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이 계속 필요하다면, 어떤 유형이나 성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여러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강연, 캠페인, 축제, 세대교류형 일자리 등의 유형이나 1·3 세대, 50+와 청년, 65+와 50~64세, 50+와 75+ 등 통합이 필요한 세대를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9. 프로그램의 참여도와 만족도, 그리고 수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력, 기관, 정책, 기획 방식, 인식, 물리적 자원 등 어떤 것이 필요할지요?
10.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언제 보람을 느꼈는지, 힘든 경험이 있었는지를 말씀해주십시오.
11. 실행해 보고 싶은 프로그램 유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인터뷰에 응해 주시고 질문지를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응답은 인터뷰 일자 전일까지 담당 연구원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실 인터뷰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

2. FGI 결과

- FGI 내용은 인터뷰 녹취와 사전 질문지를 종합하여 정리하였으며 인용의 경우에도 두 가지 모두 이용함

1) 세대와 세대차이, 세대갈등, 세대통합

(1) 세대와 세대차이에 대한 인식 변화

- 과거 30년을 한 세대로 인식하던 것과는 달리, 참여자들은 더 적은 나이 차이에서 세대차이가 드러난다고 응답함
- 20년 이상 연령 차이가 있을 때 세대차이가 나타난다고 답한 참여자도 있었으나 대부분 10년 정도에서 세대차이를 느낀다고 응답함

“20살 사이 정도…… ”

“보통 생각하기 나름이고 그렇긴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10살”

“10대, 20대, 30대 등 10살 정도 차이가 나거나, 접하는 문화가 다를 때 세대차이가 난다고 생각함”

“담당자들 생각에는 이제 나이가 좀 어릴수록 한두 살에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느낄 것 네 그리고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10살 얘기하실 것 같은데 궁금해서 실제로 여쭙봤거든요. 근데 10살도 있는데 너무 다양하셔요. 5살에서 6살 저는 5살도 조금 생각보다 적은데..”

- 5년이나 2~3년 사이에서도 세대 간 차이가 드러난다고 응답하기도 함

“1·2·3세대를 기준으로 1·2세대의 경우 10살 정도가 돼야 세대차이가 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지만, 2·3세대의 경우 급격한 정보화로 인하여 2, 3살 차이에서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생각한다”

“다섯 살…… 원래 3살이라고 쓰고 싶었는데 너무 야박한 것 같아서요.”

- 여러 참여자가 연령 차이보다는 문화나 개인의 경험 차이가 세대 사이의 차이를 유발한다고 답함

“문화적 경험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함”

“각자의 가정 환경이나 시대, 지역, 환경 별로도 개인의 경험 차이가 크기에 정의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그니까 줄인 말이라고 하죠. 이런 걸 잘 못 따라가는 경우들이 좀 많고…… ”

“(세대에 대한 생각은) 너무 사람마다 다양할 것 같아요”

(2) 세대갈등 경험과 원인

- 인터뷰 참여자가 노인복지기관 종사자인 경우가 많아 주로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의 갈등 상황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함
- 인터뷰 참여자가 경험하거나 목격한 주요 갈등 상황 가운데는 변화된 사회 인식이나 문화를 수용하지 못하거나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데에 기인한 경우가 많음

“어르신들은 이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대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하나하나 되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너무 예쁘니까 손주 손녀 같고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 때문에 그냥 막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서슴없이 쓰다듬고 그냥 뽀뽀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하신다거나……”

“어르신들이 여태 이제 근무하셨던 환경 속에서는 이제 복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말 이제 밖에서부터 이제 다가올 때 이제 90도 인사라든지 그리고 실내화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어르신들은 옛날 말투나 이런 것들 예끼, 떼끼 너 이러면 떨어진다! 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린이집에서도 약간……”

“열나면은 배꼽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있던 거 꿰여가지고 똥 먹여라”

“요즘 애들은 업살이 심해, 우리 때는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

“당연히 저희 지침대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이 융통성이 없다든지 꼭 말씀을 하시면서 젊은 사람들이 우리 노인을 막 대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각 세대에 대한 전형적인 이미지가 고착화하고 접촉의 기회가 급감한 것은 세대갈등을 발생시키기 보다는 세대 간의 단절을 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청소년 및 유아동 세대들 또는 50세 중장년층 세대들까지 (노인복지관은) 자신들이 오지 않는 곳으로 여기며 봉사 또는 경험을 쌓는 공간이라 여기며 돕길 위한 시선이 대중적입니다”

“처음에는 경로당에서 화투 치거나 술 먹고 놀거나 이런 줄 알았고 아예 경로당에 대해서 모르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모두 다 시선이 약간 좀 노인복지 기관이나 그런 쪽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거의 자원봉사로 전화도 많이 오는 게……어르신들이 직접 나가서 봉사를 할 수도 있는 역량이 충분한데…… 봉사를 좀 많이 해줘야 되는 기관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장 좀 많이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갈등 자체가…… 맞춰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노인과 유아동을 작성을 했던 이유가 둘의 접점이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 두 세 개가 가장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두 세대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장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연령에 따라 구분되고 차별화된 사회 서비스, 사회 자원의 재분배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남

“젊은 애들이 봤을 때는 우리도 노인, 우리도 이제 일자리가 없어서 많이 그런 거에 고민이 있고, 근데 그런 데 대한 정부의 지원은 없는데 이제 어르신들은 그냥 이렇게 산책하시면서 돈 주고 ”

“청년들의 시선이 아무래도 자기들의 일자리를 뺏는 게 노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 1·3세대 간 갈등 보다는 1·2 세대 간, 2·3 세대 간처럼 인접한 세대 사이에 더 심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됨

“인접한 세대간의 갈등이 가장 크다. 1세대와 2세대의 갈등이 심하고, 2세대와 3세대의 갈등이 심한 것 같아요”

“중장년 - 청년”

“부모와 자식 / 부모가 경제적인 서포트를 해주지 않을 경우, 흠수저라는 낙인과 부모 세대를 원망하는 경우도 과거와 달리 심해짐”

“20대들은 본인들의 위라벨을 되게 중요시하는 반면 30~40대는 네 업무의 중요성이나 그런 강도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세대 갈등이 좀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가 자식 세대한테는 물어보지는 않으시더라고요……인접한 세대가 갈등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 같은 세대 안에서도 연령대에 따라 세대 간 차이와 갈등이 존재함
- 특별히 3세대 가운데 낮은 연령대의 노인(60~70세)과 고령 노인(71세 이상) 간의 세대차이와 갈등이 두드러짐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다 이제 노인 하면 이제 또 약하고 도와줘야 하고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 대상으로 많이 그렇게 낙인이 찍힌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60대 초반이신 분들도 가끔 저희 복지관에 회원가입하러 오시기는 하는데 이렇게 많이 없어요, 저희도.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나 보니까 여기 다닐 만큼은 아닌 것 같아. 이러시더라고요”

“다 연로하시고 지팡이 짚고 다니시고 이제 다 허리 조금 구부러지신 분들도 계시고…… 허리 꺾끗하게 세워진 내가 다니게 되면은 내 이미지가 좀 다른 사람한테 좀 안 좋게 보여질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은 60대와 그 80 70대의 그 갈등이 좀 있었던건가?”

“저도 경로당 가봤었는데 정말 나이대로 계급이, 하하하.. 앉아 계시고 점점 젊어질 수록 서 계시더라고요” “좀 나이 있으시면은 안마의자 안에 있으시거나”

“저희 (노인)복지관 자체 내에서 60대 어르신들의 가입률 갑자기 확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오셔서 이제 소소하게 하시는 민원 아닌 그런 얘기들은 신청을 해서 들어갔는데 너무 연령대가 많은(높은) 사람들이 많아서 나랑 조금 뭔가 융합이 되기 어렵다……”

“어르신들끼리 있으면 경쟁 상대가 되고 본인이 관계가 안 돼 있으면 적대적인 관계가 되지만 아이들하고 있을 때는 그분들도 본인이 어른이라는 거를 좀 자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으로서 뭔가 또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복지관 내에서 좀 있는 것 같아요”

- 50+세대에 대해서는 세대 간 차이와 갈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집단이라는 인식과 가장 안정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집단이라는 상반된 인식이 공존함

- 참여자들은 50+세대보다는 40대부터 60대까지를 하나의 세대로 보는 경향이 높음

“(40대, 50대, 60대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중간에서 가장, 집단주의에서도 가장 피해를 많이 받고 개인주의로 넘어오면서도 가장 그런 못 받는 그런 세대지 않나 싶어요”

“어른들은 어른이라고 이렇게 우대해 주고 혜택이 있는데 아이들도 아이들 나름대로의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4060은 그런 혜택들도 없고 그래서 조금 더……”

“40,50,60은 그 이제 중간 샌드위치 세대잖아요. 서로에 대해 이해를 항상 해 주실 것 같기는 해요”

“베이비 부머 세대여서 뭔가…… 삶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갈등이 심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5060 세대들은 어느 정도 다 자리도 잡으셨고 이제 편안하게 이제 노후만 즐기면 된다. 이런 세대시니까”

- 중장년 세대, 특별히 멀지 않은 미래에 노인복지기관을 이용하게 될 50대 후반과 60대 집단과 고령 노인 간의 갈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참여자가 다수 있음
- 이는 참여자가 대부분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문화센터 종사자로 기관 이용자의 세대 간 연속성을 고민한다는 점도 50+세대와 고령 노인 간의 갈등 해결을 우선시하는 이유일 가능성이 있음

“60대 어르신들의 가입률 갑자기 확 많이 늘었거든요……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좀 젊으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조금……”

“복지관은 70~80대 어르신들한테 저희가 이제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들어오시는 분들(50대, 60대)에 대한 이제 원래 계셨던 분들(70대 이상)의 그런 입김이 쉽지가 않아서 막 금방 금방 나가서 떨어지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보통 1, 3세대로 하는데 2세대를 좀 항상 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한데 2세대의 유입은 좀 어렵기는 해요. 힘들더라고요.”

(3) 세대통합에 대한 의견

- 노인관련 기관이나 사업에 쓰이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실버’, ‘시니어’ 등의 용어가 세대 간 단절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함

“노인복지관이라는 타이틀이 젊은 어르신들의 유입을 막고 있는 것 같아요”

“네이밍이 갖는 힘이 크기 때문에……”

“복지관파와 경로당파는 달라요”

“경로당은 거의 70~80대고 …… 많으시면 90대 거의 60대는 없다고 보시면 60대, 70대까지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 세대통합에 대해서는 이해, 소통, 교류, 존중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용어가 가지는 모호성을 지적하기도 함

“통합하는 부분에서의 다 맞춘다는 생각보다는 서로가 다른 걸 좀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세대 간의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소통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가진 공통의 관심사를 알아서 많이 만날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통합이라는 말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두루뭉실한 것 같은데”

- 반면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세대통합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도 있음

“(세대를 통합을) 굳이 해야 될까 라는 생각도 있어요”

2) 참여자 소속 기관의 세대통합 사업 현황

- 인터뷰 참여자에게 배포한 사전 질문지를 통해 소속 기관의 세대통합 사업에 관한 개괄적 자료를 수집하였음
- 대면 인터뷰 시에는 각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세부 내용, 참여자의 만족도와 세대통합 효과성 등을 주로 파악하였음

(1) 사업 유형

- 인터뷰에 참여한 9명이 속한 각 기관에서 과거 시행하였거나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한 세대통합 관련 사업은 <표 3-2>에 제시되어 있음
- 9명의 인터뷰 참여자는 40개의 세대통합 관련 사업을 보고하고 있는데, 매년 시행되어 중복 보고된 사업을 제외하면 총 29가지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다음은 사전 질문지를 통해 보고된 각 사업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표 3-2〉 FGI 참여기관의 세대통합 관련 사업

번 호	시행 연도	사업명	사업 대상	참여 인원	사업 분류	사업 목적	사업 수행 방법	수행 장소	기획 기관	홍보 방법
1	~ 2019	복리후생 사업 (네일아트 서비스 및 스마트폰 활용 도움)	노인, 청년	매년 4~12월	-	· 노인 대상 필요 서 비스 제공 및 말벗 봉사를 통한 정서 적 지원	· 1:1 진행	센터 내	OO 대학교	
2	2022	마음케어 네일케어 두피케어	노인, 청년	노인 42명, 청년 6명	-	· 정서적 지원의 역 할과 더불어 세대 통합의 장을 마련 하고 어르신 공경 문화 확산과 경로 효친 의식 고양	· 1:1 진행	센터 내	OO 대학교	홈페 이지 및 기관 내부 게시 판, 회원 문자 발송
3	2022	세월아, 비켜라	노인, 청년	노인 6명 대학생 6명	-	· 심리·정서적 교류 를 통한 1세대의 우울감 해소,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통한 공동체 화합 의 장 마련	· 1:1 진행	센터 내	자체 기획	
4	2022	노인 인식개선 캠페인	청년	6명	-	· 지역사회 내 노인 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 및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하고 세대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 도모	· 외부/캠페인	○구 관내	자체 기획	
5	2018	세대통합 프로그램 우.채.통. Talk	복지관 회원	지역 청소년 45명, 2회	노인 일자리 사업 (교육)	· 세대 간 문화 공유 및 바람직한 세대 통합을 위한 시간 마련	· 강사 주 진행을 통 한 청소년 및 회원 1:1 참여	복지관 내 프로그램실	기관 자체 기획	공문 /문 자

번 호	시행 연도	사업명	사업 대상	참여 인원	사업 분류	사업 목적	사업 수행 방법	수행 장소	기획 기관	홍보 방법
6	2019	Talk	복지관 회원	인근 어린이집 20명	노인 일자리 사업 (교육)	· 절기행사 세대교류 를 통한 정서지원	· 어린이집 축하공 연, 송편빚기 등	복지관 내 프로그램실	기관 자체 기획	문자
			복지관 회원	지역 청소년	노인 일자리 사업 (교육)	· 세대 간 문화 공유 및 바람직한 세대 통합을 위한 시간 마련	· 스마트폰 사진/영 상 촬영 후 카카오톡 전송	복지관 내 프로그램실	기관 자체 기획	문자 / vms
		세대통합 프로그램 우.채.통. Talk Talk	복지관 회원	지역 청소년 17명	노인 일자리 사업 (교육)	· 세대 간 문화 공유 및 바람직한 세대 통합을 위한 시간 마련	· 보드게임 · 클래식 공연관람 · 신조어 퀴즈 풀기 · 수세미뜨기 · 스마트폰 1:1 맞 춤교육 · 키오스크 사용법 실습	복지관 내 프로그램실	기관 자체 기획	문자 / vms
			복지관 회원	인근 어린이집 22명	노인 일자리 사업 (교육)	· 절기 행사와 세대 교류를 통한 정서 지원	· 어린이집 축하공연 · 세대교류(민속놀이) · 정서교류(송편빚기, 추석유래나누기) · 나눔활동	복지관 내 프로그램실	기관 자체 기획	유선

번호	시행 연도	사업명	사업 대상	참여 인원	사업 분류	사업 목적	사업 수행 방법	수행 장소	기획 기관	홍보 방법
			복지관 회원	복지관 회원10명 *3회기, 총30명	노인 일자리 사업 (교육)	· 문화체험 기회제공	· 쿠키클레이 · 석고방향제 · 라이스클레이	복지관 4층 동아리 교실	기관 자체 기획	
7	2020	세대통합 프로그램 우.채.통. Talk Talk	복지관 회원	인근 어린이집 14개소/ 569명	노인 일자리 사업 (교육)	· 절기 행사와 세대 교류를 통한 정서 지원	· 예절배우기 · 제기만들기 · 옛날이야기	비대면 진행	기관 자체 기획	
8	2021	세대통합 프로그램 우.채.통. Talk Talk	복지관 회원	지역 어린이집 5개소/ 111명	노인 일자리 사업 (교육)	· 절기 행사와 세대 교류를 통한 정서 지원	· 옛날이야기 · 추석동화 · 예절배우기 · 전통놀이 및 전통 문양목걸이 만들기	비대면 진행	기관 자체 진행	
			복지관 회원	대학생 봉사단체 봉사자 6명	노인 일자리 사업 (교육)	· 문화체험 기회제공	· 기억회상카드 보 드게임 · 스토리북 제작	복지관 내 프로그램실	단체 연계 진행	
9	2022	세대통합 프로그램 우.채.통. Talk Talk	복지관 회원	어린이집 및 유관기관	노인 일자리 사업 (교육)	· 절기 행사와 세대 교류를 통한 정서 지원	· 추석유래 동화구연 · 전통놀이 등	비대면 및 대면 (수요처 장소)	기관 자체 기획	
		○○이야 기동화나 라	복지관 회원	어린이집 및 유관기관 13개소/ 699명	노인 일자리 사업 (교육)	· 아동학대예방을 위 한 세대교류 및 어 르신 사회참여기획 확대	· 아 동 학 대 예 방 동화구연	수요처 장소	기관 자체 기획	공문 /문 자
10	2020	GD사람	노인	만 60세	공동모	· 노인의 의존적인	· 자서전 발간 후	노인복지관	자체	보도

번호	시행 연도	사업명	사업 대상	참여 인원	사업 분류	사업 목적	사업 수행 방법	수행 장소	기획 기관	홍보 방법
		책을 만나다		이상 10명	금회 지원	이미지에서 능동적이고 활발한 노인의 이미지를 쇄신 시키고자 함	강연, E-BOOK 제작	○○청소년 센터	기획	자료
11	2020 ~ 2023	시니어 드론	노인	만 60세 이상 10명	협력 사업	· ○구 지역주민의 재능나눔 및 실천을 통한 공동체 실현	· 장년층 취미생활 · 자기개발 등 드론 교육 진행	노인복지관, ○○청소년 센터, 인근 초등학교	자체 기획	보도 자료
12	2021	인생을 낭송하다	노인	만 60세 이상 10명	협력 사업	· 재능, 경험을 나누고 소통을 체험하여 지역사회 전체를 희망 가득한 공동체로 발전	· 단편 시 작품 발간	노인복지관, ○○청소년 센터	자체 기획	보도 자료
13	2021	흙공아 자연을 부탁해	주민	○구 관내 주민 30명	기획 사업	·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하천상태 복원을 통한 마을상생 프로젝트	· EM흙공 제작 · 하천 정화 활동	○○○천	자체 기획	보도 자료
14	2022	1.3세대 연간 협업 프로그램	노인, 청소년	-	노인 일자리 사업 (교육)	· 1세대에게 선택시민으로써의 주체성 향상 및 건전한 노후 지향	· 정규수업 진행	인근 초등학교	자체 기획	보도 자료
15	2023	교육시설 학습지도	노인, 청소년	만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 사업 (교육)	· 3세대에게 건강한 정서발달 도모	· 정규수업 진행	인근 초등학교	자체 기획	보도 자료
16	2022	행복 전파단	성인, 아동	성인 7명 아동 873명	주민 조직 사업	·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세대공감의 장 필요	· 성인연극단을 활용한 공연	복지관	자체 기획	온라인 및 오프라인

번 호	시행 연도	사업명	사업 대상	참여 인원	사업 분류	사업 목적	사업 수행 방법	수행 장소	기획 기관	홍보 방법
17	2019	누리 보듬	성인, 노인	성인 27명 대학생 22명 노인 55명	주민 조직 사업	노인의 높은 자살 률을 낮출 수 있는 처방 '관계 자원'	결연을 통한 1:1 혹은 2:1 활동	복지관 및 가정	자체 기획	온라 인 및 오프 라인
18	2019	행복한 어울림	지역 주민	43명	주민 조직 사업	세대통합의 기회 제공으로 변화된 인식	합창단 운영을 통 한 아동, 성인 화 합	복지관	자체 기획	온라 인 및 오프 라인
19	2019	1·3세대 정서 공감	경로당 학교	경로당 회원: 62명 학생:28명	체험	지역연계를 통한 프로그램을 진행함 으로 지역사회에 '경로당'에 대한 긍 정적인 인식을 심 어주기 위함.	현장	경로당	자체 기획	지회 월례 회의 시간 / 학교 어린이집 공문 발송
		청소년 자원 봉사 학교		경로당 회원: 15명 학생: 8명						
20	2021	어버이 은혜 마음을 담아소	경로당 어린이집	경로당 회원 599명	인식 개선 사업	1세대와 3세대가 어우러져 정서적인 교류를 통해 긍정 적인 관계를 향상 시킬 수 있음.	영상	영상배포	자체 기획	
21	2022	1-3세대 정서 공감	경로당 학교	경로당 회원: 18명 학생: 8명	체험		현장	경로당	자체 기획	
		청소년 자원 봉사		경로당 회원: 12명						

번 호	시행 연도	사업명	사업 대상	참여 인원	사업 분류	사업 목적	사업 수행 방법	수행 장소	기획 기관	홍보 방법
		학교		학생: 8명						
22	2023	1-3세대 정서 공감	경로당 학교	경로당 회원: 10명 학생: 9명 경로당 회원: 3명 학생: 10명	체험		· 현장	경로당	자체 기획	
23	2018 ~ 2022	두발 자전거	저소득층 아동	노인멘토 10명	멘토링	· 노인세대의 경험과 지혜를 전수하고 세대가 함께 만나 는 교류를 통해 세 대통합의 장 역할 을 한다.	· 1:1 혹은 다:다 멘 토링 활동	기관 및 외부	자체 기획	유선 LMS / SNS / 홍보 물
24	2017 ~ 2022	희희 낙락	학교밖 청소년	멘티 10명			· 1:1 멘토링 활동			
25	2019 ~ 2022	예 나눔	○○구 관내 아동	월 평균 약 100명						
26	2023	1-3세대 가 함께 하는 3D펜 체험 프로그램	경로당 어르신	어르신 10명 청소년 10명		· 세대 간 관계 형성 기회 부재 해소 · 노인세대의 신기술 체험 경험 도모	· 3D펜과 원예 접 목 프로그램	서구 청소년센 터	자체 기획	경로 당 및 협력 기관 직접 섭외
27	2022	같이 가치!	· ○○구 청소년 센터 이용자	어르신 5명 청소년 5명		· 세대 간 관계 형성 기회 부재 해소	· 소통레크레이션 · 제과제빵 · 떡만들기 · 공예프로그램	○○구 청소년 센터	자체 기획	

번호	시행 연도	사업명	사업 대상	참여 인원	사업 분류	사업 목적	사업 수행 방법	수행 장소	기획 기관	홍보 방법
28	2021	같이 가치		어르신 5명 학생 5명		· 세대 간 관계 형성 기회 부재 해소	· 소통레크레이션 · 빼빼로만들기 · 쿠키만들기 · 과일모찌만들기	노인 복지관	자체 기획	
29	2020	같이 가치		어르신 10명 학생 29명		· 세대 간 협동 활동 을 통한 유대관계 형성	· 폐양말을 활용한 그래피티니팅	○구 청소년 센터	제체 기획	
30	2019	같이 가치	경로당 어르신 , ○○여 중 학생	어르신 15명 학생 19명		· 노인에 대한 긍정 적 인식, · 세대 간 소통 기회 의 부재 해소	· 옷놀이 · 원적산 둘레길 산책 · 보물찾기 · 과일청 만들기 · 공동미술작품만들기 · 마술공연 관람 및 배우기 · 크리스마스리스 만들기 · 평가회(음식 만들 어 먹기)	경로당 ○○여자 중학교 원적산	자체 기획	
31	2018	같이 가치	경로당 어르신 ,초등 학생	어르신 11명 청소년 17명		· 어르신과 청소년의 관계 형성 · 어르신에 대한 관 심과 이해 증진	· 관계 형성 게임 (몸으로 말해요) · 부채만들기 · 복숭아청만들기 · 떡볶이 만들기	경로당	자체 기획	
32	2022	1.3세대 마술교실	초등 학생 (저학년)	초등학생 10명/ 어르신 10명	경륜 전수	· 마술교육을 통해 사회참여를 통한 자존감 확립, 아동 에게는 건강한 정	· 1:1 멘토링	복지관	자체	지역 아동 센터 홍보

번 호	시행 연도	사업명	사업 대상	참여 인원	사업 분류	사업 목적	사업 수행 방법	수행 장소	기획 기관	홍보 방법
33	2021	1.3세대 마술교실	초등 학생	초등학생 10명 / 어르신 10명	경륜 전수	서발달을 도모하여 긍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한다.	· 1:1 멘토링	복지관	자체	초등 학교 홍보
34	2019	1.3세대 탁구교실	초등 학생	초등학생 15명 / 어르신 8명	경륜 전수	· 탁구교육을 통해 세대간 소통할 수 있고 아동에게는 예의 범절을 익히 고 어르신은 체력 을 향상시킬 수 있 다.	· 어르신과 아동 1:2 멘토링	복지관	자체	초등 학교 홍보, 현수 막
35	2018	1.3세대 탁구교실	초등 학생	초등학생 19명 / 어르신 8명	경륜 전수	·	· 어르신과 아동 1:2 멘토링	복지관	자체	
36	-	경로당 지역특화	노인 아동	평균 80명 내외	개방형 경로당	·	· 다양	경로당	자체	지역 자원 내 홍보 및 섭외
37	-	개방형 경로당	지역 주민	월6회 총 40명 내외	개방형 경로당	·	· 요리 · 영화	경로당		
38	-	어르신 봉사단	노인 아동	교육 130명 내외 나눔활동 200명 내외		·	· 교육 · 나눔 활동	지역사회 내 학교		
39	-	기획 건강 엑스포	지역 주민	매년 1회 참여자 1,000명		·	· 부스 운영	복지관		
40	-	일자리 1.3세대	노인 아동	1회 진행시 80여명		·	· 교육	지역사회 해당기관	지자체	

① 사업 진행

- 참여자들이 보고에 따르면 처음으로 시행된 세대통합 사업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희희낙락’ 프로그램임
 - 이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과 10명의 노인 멘토가 1대1로 매칭하여 노인 세대의 경험과 지혜를 전수하고 세대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기 위한 의도로 기획됨
 - ‘희희낙락’은 2018년 ‘두발자전거(저소득층 아동 대상)’로 확대 발전되어 취약 아동과 청소년에게 정서적 안정과 삶의 가치 확립에 도움을 얻는 기회를 제공함
- 사업 가운데 여러 해에 걸쳐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은 ○○대학교와 ○구 노인복지관이 함께 진행한 ‘복지후생사업(~2019)’, ‘우.채.통. Talk Talk(2018~2022)’, ‘시니어 드론(2020~2023)’, ‘1·3세대 정서 공감(2019~2023, 2020년 제외)’, ‘희희낙락(2017~2022)’, ‘두발자전거(2018~2022)’, ‘예 나누미(2019~2022)’, ‘같이 가치(2018~2022)’, ‘1·3세대 마술교실(2021~2022)’, ‘1·3세대 탁구교실(2018~2019)’ 등 10가지 사업임
 - 시행 시기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개방형 경로당 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시행된다고 볼 수 있음

② 사업 대상 및 참여자

- 대다수 세대통합 사업의 참여 대상자는 1세대와 3세대라고 할 수 있는 노인과 아동·청소년임
- 1·2·3세대를 모두 아우르는 사업은 ‘누리 보듬’이며, ‘흙공아 자연을 부탁해’, ‘행복한 어울림’, ‘개방형 경로당’, ‘기획 건강 엑스포’는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지역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됨
 - ‘행복전파단’ 사업은 성인과 아동을 참여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성인이 연극단을 구성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공연을 진행한 사업임
- 사업 별 참여 인원은 사업 성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
 - 공연, 개방경로당, 교육이나 부스 운영과 같은 사업은 연참여 인원이 매년 수 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한 멘토링, 경륜전수, 체험활동 위주의 세대통합 사업은 각 세대 별로 5~20명 내외가 참여함

③ 사업 유형과 목적

- 인터뷰 참여자가 제시한 각 사업의 유형은 기관 혹은 기획 주체에 따라 구분 기준이 다른 경우도 많고 특정 유형에 속한다고 결정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음
 - 다만, 세대통합 사업 가운데는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사회참여지원사업(경륜전수, 멘토링 등)의 성격을 지닌 것이 많으며, 개방형 경로당 사업과 같이 세대통합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음
- 지자체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개방형 경로당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함
 - 기관 자체 기획 사업이라 하더라도, 노인일자리 사업과 같이 자원의 출처가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 있고, 사업 공모나 주민조직 사업을 통해 자원을 조달하는 경우 등 연계된 자원의 성격이 다르게 나타남
- 세대통합 사업은 모두 세대 간의 만남과 교류를 전제로 하며, 노인뿐 아니라 서로 다른 세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됨
- 여러 사업이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세대통합 사업의 목적으로 삼음
 -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가운데는 경로효친 의식, 어르신 공경문화, 어르신에 대한 관심과 이해 증진, 예의 범절 익히기를 주제로 삼아, 세대 서로 간의 이해보다는 1세대에 대한 일방적 이해와 수용이 부각되는 경우도 있음
- 그러나, 많은 사업이 노인의 의존적 이미지 쇄신, 선배시민으로서 모범 보이기, 세대 간 소통과 관계 형성 기회 마련, 세대 간 문화 공유 등 각기 다른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음
- 세대통합이라는 목적 이외에 몇몇 사업에 덧붙여진 목적을 살펴보면, 노인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우울감 해소, 문화체험 기회 제공, 절기 행사, 아동학대예방, 재능나눔 및 실천을 통한 공동체 실현, 환경정화, 노인 자살률 감소, 어르신의 자존감과 체력 향상 등을 들 수 있음

④ 사업 수행 방식

- 세대통합 사업은 서로 다른 세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 방식을 이용함
- 사업 수행 방법은 크게, 노인 세대의 경험과 지식을 젊은 세대에게 전달하는 방식,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에게 기술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둘 이상의 세대가 협력하여 같은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노인 세대의 경험과 지식을 전달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여러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멘토링, 미술교실, 탁구교실, 예절 교육, 이야기 및 동화 구연 사업을 들 수 있음
 - 이와 같은 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활용되어 각급 학교의 동아리 활동 등과 연계하여 정기성·지속성을 확보함
 - 또한 노인 세대의 사회참여와 경제 활동에 기여하고 건전한 롤모델을 제시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젊은 세대가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정보를 노인 세대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는, 대학생들이 전공 과목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사용법(복리후생사업), 네일케어·두피케어(마음케어, 네일케어, 두피케어)를 제공한 사례, 대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노인 우울감 해소 사업(세월아 비켜라), 노인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사업(누리보듬), 스마트폰 사진/영상 사용법 교육(2018년 진행된 우채통 Talk Talk), 드론교육(시니어 드론)을 진행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음
 - 인터뷰 참여자들이 제공한 세대통합 사업 가운데 3세대가 1세대에게 신기술이나 문화를 제공하는 사례는 총 40개 사업 가운데 6개에 불과하며, 복리후생사업과 시니어 드론 사업을 제외하고는 1회성 사업에 그침
- 참여하는 세대가 같은 활동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기획된 사업은 3D펜 체험, 각종 만들기(같이 가치, 우채통 Talk Talk의 일부 회기), 환경 정화 활동(흙공아 자연을 부탁해), 야외 활동(같이 가치) 등을 들 수 있음.
 - 같은 활동을 여러 세대가 함께 하는 방식은 앞에 제시된 두 가지 사업 수행 방식과 복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음

⑤ 사업 수행 장소와 홍보

- 세대통합 사업의 대다수는 노인복지기관에서 진행됨
- 일부 사업은 사업 대상에 따라 청소년센터, 각급 학교를 함께 이용하기도 함
- 교육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된 경우에는 수요처에 따라 유연하게 장소를 활용함
-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는 비대면으로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있음
- 개방형 경로당 사업은 그 특성상 경로당을 사업 장소를 이용함
- 사업을 홍보하는 데 가장 이용되는 홍보 방식은 기관 홈페이지 게시, 문자 발송, 보도 자료 배포, SNS, 현수막 게시, 협력 기관에 대한 공문 발송임
 - 기관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전화나 직접 방문, 통반장·경로당과 같은 인맥을 이용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참여자를 모집하기도 함

(2) 참여자 만족도

- 참여자들은 각 기관이 세대통합 사업 수행 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에 대한 참여자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고 보고함
- 각 기관 별로 참여자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을 제시하도록 한 질문에서,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주로 1·3세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남

“어르신들이랑 이제 아이들이랑 1·3세대가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 까…… 수요처에서도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실제로 아이들이랑 대면을 하면서 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1·3세대 정서 공감 프로그램이 가장 만족도가 높다고 판단됨”

“현재 아동들에게 부족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예절에 관한 부분을 어르신이란 예절 전문 집단에서 직접 지도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음”

“대체로 만족도 높으며, 1·3세대 프로그램이 만족도가 가장 높은 편임”

“청년들의 전문적인 기술로 (노인에게 네일, 두피케어를 제공하여)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음”

“마술활동으로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가장 높았음”

- 다만, 세대통합 사업 내용 가운데 1·2세대 혹은 2·3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드물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된 사업이 1·3세대 대상 경우에 치중된 것일 가능성이 큰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노인일자리 사업 혹은 사회참여 사업과 결합한 경력전수형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인데, 이는 1세대가 보유한 전문성과 일자리 지속에 대한 의지가 결합되어 사업 품질 향상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어르신들의 전문성을 살린 걸 약간 이제 55세 이상 어르신들이 좀 하실 수 있는 좀 사회참여 요런 이제 프로그램 일환으로……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제까지 경험과 이제 손수 하나부터 열까지 아이들 관점에서 생각을 해서 뭔가 준비를 해서 갔다는 거에 있어서 되게 만족도가 높아서”

“노인 일자리에서 이제 교육 서비스형이라고 이제 교육을 직접 어르신들이 나가는 거예요…… 만족도를 되게 높게 평가를 해주더라고요.”

“일단은 어르신들은 따로 또 어르신들끼리 교육 받으시고 강사님한테 받으신 것을 이제 연습하셔서 이제 아동한테 알려주시는”

- 세대통합 사업 참여자는 세대나 기여자/대상자 구분에 상관없이 다른 세대와의 접촉과 교류 자체에 만족감을 보임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이기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아동과 그런 아동에게서 에너지를 얻는 노인의 조합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냄”

“대상자(노인)를 위한 프로그램을 활동가(청년)가 계획함따라 노인층에 눈높이를 맞추고자 노력했고 노인 또한 청년세대에 관심을 갖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통해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생각합니다”

“항상 삐딱하게 앉아서 끝나는 시간만 기다리고 지루해 보이는 표정으로 (있던 여고생이) 어떤 어르신하고 좀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어르신아…… 되게 보듬어주시고 예쁘다 예쁘다 해 주시니까……애기를 나누면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표정도 많이 좋아지고. …… 처음에는 끝나는 시간이 맨날 기다려졌지만 지금은 끝나는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는다 하면서 그 이후로 다음 연도까지 활동을 진행했는데……”

“어르신들이 자필로 (시험 기간의 대학생들에게 격려)메시지를 적어서 가지고 나갔어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냈고 이제 그 뒤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이런 문의도 몇 건……”

“어르신들이 눈이 안 좋으니까 계량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이들이 같이 옆에서 요만큼 따르면 돼요. 이렇게 말을 해주거나 같이”

“3d 펜이라고 필라멘트를 녹여 가지고 이제 뭔가 물체를 만드는 건데 ……어르신들은 이런 걸 접해볼 기회가 없고…… 꽃꽂이도 해본 적 없어서 애들이 알려주고”

- 사업 참여자 집단이 다양하지 않아 특별히 만족도가 높은 세대 혹은 집단을 특정하기는 어려움
 - 다만 여성 노인이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고 이로 인해 만족감이 높은 집단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 일부 연구 참여자는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주관/협력 기관의 평가를 만족도의 기준으로 삼기도 함

(3) 사업의 세대통합 효과성

- 사업 참여자 만족도와는 별도로, 사업이 세대통합을 실현하는데 얼마나 효과를 보이는지를 질문함
- 세대통합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측정 도구는 이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연구 참여자의 주관적 의견과 같은 기관 소속 동료들에게서 수집한 의견을 바탕으로 효과성을 평가함
 -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세대통합을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세대통합의 의미를 세대 간의 교류, 서로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고 보는 경우에는 세대통합 사업의 효과성이 있다고 평가함

“세대통합할 수 있는 기회와 예방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진행하였는데…… 파급력이 높았습니다.”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습니다”

“어르신과 청소년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각 세대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완화됨을 볼 수 있었음”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어려운 세대 간의 만남 자체가 서로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매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함”

“1세대와 3세대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세대 통합에 되게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요.”

“통합이라는 말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두루뭉실한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같이 만나서 뭔가를 했다는 거, 어울렸다는 거 자체로 저는 그걸 통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해요”

- 그러나, 세대통합을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는 세대 간의 유대와 연대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효과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함

“프로그램만으로 인해서 저희가 통합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굳이 해야 될까 라는 생각도 있어요……세대 통합을……”

“청년과 노인의 인식이 조금은 개선이 되었다고 보이나 1회성 프로그램만으로 효과가 확실했다라고 확답을 내리기는 어려움”

“1년 안에서만 활동을 하는 거다 보니 아무래도 기대한 것과 다른 큰 기대는 없지 않았나……”

“사회자: 처음에 생각하셨던 세대 통합적 효과가 강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참여자: 네, 강하지 않았다”

- 특별히 가까운 세대 간의 갈등은 세대통합 사업의 효과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인이 됨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원래 계셨던 분들의 입김이…… 막 금방 금방 나가서 떨어지시더라고요. 뒷세대들이 심해서……”

“60대와 그 80, 70대의 그 갈등이 좀 있었던 건가?”

“보이지 않는 이런 벽 같은 게 있는 게 아닐까……(사: 그 벽이 어디쯤 있을까요?)

50~60대랑 이제 위에 어르신들이……”

(4) 사업 운영의 어려움

① 저조한 홍보 효과와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

- 인터뷰 대상자에게 세대통합 사업을 운영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을 질문한 결과, 거의 모든 응답자가 사업 참여자 모집과 이를 위한 홍보가 가장 어렵다고 응답함
- 세대통합 사업 사례에 대한 사전 질문지 응답에 나타난 것과 같이 각 기관은 다양한 방식을 이용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참여자를 모집하고자 노력하지만, 홍보 협력에 대하여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
-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업무 담당자의 관심과 사업에 대한 이해 수준에 따라 홍보 협조 및 지원에 차이가 많은 것으로 보고함

“지자체 연계하여 홍보를 요청하였으나..... 담당자의 마인드에 따라서 협조여부가 크게 달라지는 듯했습니다”

“홍보가 잘 안된다고 되게 좀 좌절을 느꼈던 거는 이제 구에서도..... 홍보를 해주겠다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이 홍보지를 만들어서 구청에 이제 드렸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각 행정복지센터로 다 전달이 됐거든요.....근데 사실상 홍보는 안 되고 이제 담당자들이.....”

“홍보가 생각보다 많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이렇게 공문으로 뿌리고 그래도 잘 안되더라구요”

- 세대통합 사업을 수행할 때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이나 이용자 특성에 따라 다른 홍보 방식을 이용함

“유인물로 홍보를 한다더라도 어르신들이 잘 안 보시는 것도 있고 저희가 항상 문자로 안내 이런 것들 나가는데 문자를 또 보기 힘든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하더라고요”

“인스타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밴드도 하고 그래서 홈페이지도 엄청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어르신들한테 홍보하기가 가장 어렵기는 하다.....”

“밴드는 좀 보시더라고요”

“경로당 담당이기 때문에.....한 달에 한 번씩 회장님들이 나오세요.”

“제가 센터들이 좀 많잖아요. 네 그런 쪽에서도 많이 요청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통반장님 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어르신들, 알고 계신 분들 좀 소개를 해달라라고
해서”

“sns 활용하고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인프라들을 동원해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한
다든지 공문 발송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특히 전화도 많이 하고, 공문도 보내고”

A: 저희는 카카오톡 채널

B: 저희는 카카오톡 채널 망했어요. 하하”

“저는 전화 합니다. 하하하. 지역적인 특성이 또 있어서 그 저희가 sns도 어렵고
문자도 못 보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는 전화 좀 많이 해요.”

“찾아 가시더라고요. 배 타고 홍보도 하고 사업도 하러 들어가시더라고요…… 허다
하게 있다 하더라고요. 배 시간 끝나면 거기서 숙박하셔야 하고 그런 고충들이 있으
시더라고요.

- 홍보는 유인물, 기관 게시판, 기관 홈페이지, 문자, SNS(밴드, 카카오톡 채널, 단체 카톡방 등), 유관 기관 협조 공문, 전화, 직접 방문, 인적 네트워크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
짐
 - 사업 담당자는 여러 종류의 홍보 방식을 관리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진한 경우가 많다고 보고함
- 지역 특성상 휴대 전화 사용이 어려운 노인이나 문해력이 낮은 노인이 많이 거주 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문, 전화, 인적 네트워크 활용을 주로 사용함
 - 이러한 홍보 및 모집 방식은 다른 방식보다 담당자의 업무 강도를 가중함
 - 또한 사업 참여자의 범위가 한정되고 중복 참여가 발생하여, 참여자의 흥미가 줄어드는
현상을 가져오기도 함
- 참여자 모집이 어려운 것은 사업의 주 대상자인 3세대의 아동, 청소년과 1세대 노인의
활동 가능 시간이 다르다는 데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음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 일과 시간 중에 세대통합 관련 프로그램을 편입하기에 비교적 수월한 편이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섭외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함
-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방학이나 방과 후, 주말에 사업을 진행하기도 함
- 하지만, 평일에는 참여 가능 학생이 매우 제한적이며 휴일을 이용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음

“가장 어려웠던 것은 각 세대의 활동시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3세대 아동들의 활동 시간을 맞추는 것이 어려웠음.”

“학교가 끝나면 방과 후 혹은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평일에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 활동대상을 정하는데 제한적이었음.”

“청소년들의 학교일정에 맞추어야 하는 점이 어려움”

“참여 대상자 모집, 수행장소 섭외에 어려움이 가장 많음”

“중고등학생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어서 만약에 그게 또 겹치면 잠시 쉬었다 가거나 그런 일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 개방형 경로당 사업과 같이 장기적으로 여러 차례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모집의 어려움이 더욱 커짐

“매달 필수로 월 1회씩 해야 되고…… 대상자 모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게 6회기인가 그랬는데 거의 6회기 내내 거의 안 왔어요. 한두 명 오거나……”

“경로당은 평일 오후(점심 시간 쯤) 시간에 이용자가 가장 많음. 하지만 학생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학교 일정에 따라 방학, 방과 후, 주말에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생각함”

- 비대면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했던 감염병 유행 시기는 참여자, 특별히 디지털 역량이 높지 않은 노인 세대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이 매우 심했음을 보고함

“코로나 시기때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고……멘토 집단을 대상으로 비대면 역량을 강화하는 작업들이 힘들었던 경험으로 꼽을 수 있겠다”

② 연계와 행정 절차의 어려움, 부족한 자원

-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세대통합 사업의 특성상 노인관련 기관이 아닌 다른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과의 연계와 협업이 중요함

- 그러나 실제 사업 진행에 있어서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용이하게 하는 네트워크나 지침, 일관된 절차가 없어 각 기관의 요구에 따라 다른 과정을 따라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너무 연계하기가 힘들어요”

“연결되는 매개체가 그 중간 역할이 좀 없어서 조금 아쉽다..... 발품을 엄청 팔아서 컨택을 하는데.....”

“중간에 매개체가 전혀 없고 어디를 알아봐도 사실 거기서 약간 좀 비협조적으로 나온다고 저희가 그거를 접을 수는 없는 상황이어 가지고”

“모든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그래도 공문을 보내달라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도 있고”

“다 전화를 했었거든요.....근데 이제 평가 지침에 맞게 물어보더라고요”

- 적절한 예산 확보가 어렵고 보조금의 경우 유연한 집행이 어려운 점이 사업 담당자들에게 어려움으로 작용함

“가장 큰 부분은 부족한 예산과 보조금 예산집행의 까다로움이 가장 큰 요인이다.”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법인이 공단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후원 이런 걸 또 받을 받기에는 또 모금을 통해서 지정 그걸 또 해야 되고 되게 복잡해요”

“교통비를 지급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관의 예산이 또 이제 사업마다 또 할당되어 주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 사업 담당자들은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도 하지만 과중한 업무가 발생하여 또 다른 어려움으로 작용하기도 함

“일자리 사업으로도 연계되어 있어서 일자리 예산으로도 하고.....”

“지금도 힘들어요. 하하.....못해요”

- 또한, 현실적으로 가용 예산이 제한되어 있어서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제 수행이 어려움을 호소함

“청소년 시기가 엄청 정말 질풍노도가 딱 맞을 정도로 감정 기복이나 이런 게 심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아이들에게 이제 젊으신 노인분들이죠. 말하자면 5060, 고정도 약간 세대 차이도 좀 나잖아요……제 생각에는 예산이 좀 많다면……심리 상담도 병행하면서 각자 성장하는 그런 것도 하면서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뭔가 있으면 되게 정말 세대통합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제약 조건이 없다면 일단은……뭐 3세대가 모든 참여자분들이 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야 되니까 넉넉한 공간과 전문 강사와…… 그리고 이제 시간을 내서 그렇게 3세대가 오셨으니까 기념품이나……그런 게 정말 다 가능하다면……”

③ 사업 진행 장소의 제약

- 인터뷰 참여자 중 일부는 노인복지기관이 아닌 전 연령층의 지역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세대통합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

“다양한 연령층이 서로 교류할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세대통합 프로그램 수행이 유리하다고 생각함”

“노인복지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 모집에는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사료 됨”

“다양한 세대의 주민이 쉽게 유입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인 관련 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서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수행한다면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출될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함”

“세대를 골고루 아우르는 프로그램 구성과 수행인력 구성을 통해 노인이라는 단종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심도있는 내용들을 다룰 수 (있음)”

○ 그러나, 노인복지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세대통합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우려를 표현하는 참여자가 많음

- 특히, 사업 수행의 긍정적 측면을 언급한 참여자 역시 우려와 예견되는 문제를 제기함

“연령층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인을 배려한 프로그램 내용이 요구되는데, 노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프로그램 운영 내용이 적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됨”

“노인이라는 특수한 집단에 대한 고찰이나 이해 수준 정도가 노인 관련 기관보다는 떨어져”

“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니까 이용하기가 쉬운데 이제 다른 기관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용해보지 않은 곳에 대한 낯센도 있고 거기까지 가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좀 불리한 것 같아요. 다른 기관에서는……”

“노인의 특성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지 않은, 예를 들면 발표자료라도 글씨가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런 배려가 부족한 점. 그래서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 특별히, 노인의 이동 문제, 사업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혹은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 문제 등은 노인복지기관이 아닌 곳에서 노인세대를 포함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을 예견하게 함

“어르신들 이동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아이들 학생 데리고 스타렉스 타고 이제 바다 건너서……나오라고 하실 수는 없으니까……”

“처음에 만약에 이리로 나오세요 하면은 아예 처음부터 신청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차에 타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부터가 힘드신 분들이셔서……”

“노인 관련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기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 문제 발생 시 대처하는 능력이나, 프로그램 진행이 원활할 것이라 판단됨”

“개별적으로 또 오시라고 하다가 또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런 비상시까지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결론은 또 복지관에서 진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기관에서 하면 만약에 사고가 난다거나 아니면……물건을 거기 기구를 사용하다가 만약에 파손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었지만 그거에 대한 서류 작성이나 동의를 받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정말 프로그램 하나 하자고 그렇게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 노인복지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세대통합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인터뷰 참여자들이 대부분 노인복지기관 종사자이며, 세대통합 사업의 주 대상자를 노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짐

④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원 부족

- 인터뷰 참여자들은 사업 아이디어 개발, 프로그램 기획과 진행, 홍보와 모집의 전 과정이 사업 담당자의 역량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고함

“실무자들이 아이디어도 냈고 실무자들이 알아보고 다 하니까 사실상 업무량이 좀 많아지겠죠”

“근데 사실 직원들마다 너무 역량이 다르잖아요”

- 사업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으나 아이디어, 정보, 사례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사실 아이디어도 다른 복지관 사이트는 기본이고 아니면 기사를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뉴스로 봐서 트렌드를 보고 그거 관련된 걸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흩어져 있는 자료를 찾아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라”

“교수님한테 자문 받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 네 담당 실무자들이랑 또 이렇게 네트워크 하면서 또 아이디어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교육도 많이 받고 하는데 사실 그거(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라서……”

“이제 형식적으로 아직 만들어지다 보니까 인원은 되게 많고 의견 교류가 실질적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이것도 평가 지표만 만들어 놓고 이제 정부에서는 그런 효과를 바라라고 만든 거겠지만 네 결국은 이제 실무자들에게 다 또 업무량이 늘어나는”

3) 세대통합 사업 활성화 방안 관련 의견

- 세대통합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점과 수행하고 싶은 사업에 대한 응답을 종합하여 정리함
- 인터뷰 참여자들은 종사하는 기관의 성격, 담당하고 있는 사업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이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난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정보 교류 플랫폼과 가이드라인 제공

- 인터뷰 참여자들은 세대통합 사업의 기획, 진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제안함
- 사업 기획 단계에서는 우수 사례와 실질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된다면, 벤치마킹을 통해 소속 기관에 적합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용이할 것이라고 봄
 - 사업 진행상의 어려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노인복지관협회에서 구성한 네트워크의 경우 실질적인 아이디어 교류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 실무자들은 업무 부담, 기관별 환경의 차이들을 고려하여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정보망 구성을 제안함

“정기적으로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

“정기적으로 우수 사례 이런 거는 좀 해서 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색다른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조금 담당자들이 이렇게 좀 소개하고 공유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시스템이 있으면..... 학생들이 자원봉사 모집 사이트 그냥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한 통로로 된 뭔가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인천 관내 세대통합프로그램 관련 매뉴얼 발간 및 배포”

② 정기성과 지속성 확보

- 인터뷰 참여자들은 세대통합 사업에 대한 참여자 만족도와 실제 세대통합 효과성의 차이를 인식하는 경우가 많음

참여자들은 일회성 행사에서도 참여자 만족도는 높게 나타날 수 있으나, 세대의 통합이 실제로 효과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업이 정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함

“좀 정기적으로 있으면 아무래도 세대랑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밀집하고 해서”

“지금 3년째 계속 거의 좀 계속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강의 계획안 같은 네 이런 것도 이렇게 좀 해보자고 하고 이렇게 좀 제안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두고 하면(확보하면) 연계하기가 쉽겠더라 이런 식으로……”

- 또한 동일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세대 간 이해와 통합이 효과적 일 것이라고 봄

“이런(1-3) 세대의 그런 접촉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생긴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일회성의 이런 프로그램들에서 많이 만나다 보니까 지속적인 이런 (접촉이 필요하지요)”

“지속적으로 오래 한 5, 6년 정도 중장기적으로 봐서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가면 서……”

“한 2, 3회기 진행을 하다가 어떤 어르신하고 좀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 학생이 들어가자마자 그 어르신 옆으로 가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웃더라고요…… 지금은 끝나는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는다 하면서 그 이후로 다음 연도까지 활동을 진행했는데 되게 적극적으로 즐겁게 활동에 임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첫 회기부터 이제 끝 회기까지 짝꿍으로 이루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그렇고 아동도 그렇고 이제 최대한 출석을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첫 회기랑 끝 회기랑은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③ 사업 주체와 대상의 다양화

- 참여자들은 노인복지기관 외의 다양한 주체가 세대통합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한다면 세대통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함

“저희 복지관이 주체가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기관 대 기관끼리……
좀 이렇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어떤 거를 진행하면 더 좋을까, 어르신들은 보통 이런 거에 애로사항이 있구나.
이런 걸 좀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어르신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됐었고”

- 노인복지기관은 60세 이상의 이용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다른 세대 참여자를 모집하는데, 이러한 연령 제한을 완화하여 참여자의 폭을 확대하자는 제안이 있음
 - 가까운 장래에 노인 연령에 진입할 50대나, 노인복지기관 이용이 저조한 60대를 주 이용층인 70세 이상 집단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기관 이용자의 자연스러운 세대교류와 점진적 세대교체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우리는 60세 이상으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제약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5060세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정책적으로 가능하게끔 열어준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65+와 50~64세, 50+와 75+ 등의 통합된 세대통합 프로그램으로……”

“가끔 50, 60대를 앞두신 분들을 대상으로 특강 같은 건 하긴 해요……그분도 예비
노인이고 예비 회원들이시기 때문에……”

- 인터뷰 참여자 대부분이 노인복지기관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세대 중심의 사업보다는 1:2:3세대를 아우르는, 연령 제한이 없는 사업이 세대통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예상함

“그냥 대상자를 열어두고 아니면 지역 주민, 아니면 이제 해당 동 이런 사람들로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진행하는 게 가장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3세대가(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일단은 (1·2·3세대가 함께) 2박 3일이나 이렇게 여행 가는 거…… 그 후에도 자주 모임이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어 나가실 수 있도록 하면 조금 더 세대통합이 되지 않을까?”

“(노인) 복지관 전체적으로 생각하면은 10대부터 60대까지 어떻게 보면 다 있거든요. 네네 자원봉사 오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④ 일자리와의 연계/적절한 보상

○ 소득이 높지 않은 노인 세대는 일자리 사업과 연계된 세대통합 사업을 선호함

- 경우에 따라서는 일자리 사업으로 기획되었으나 세대통합적 효과가 기대 이상으로 발현되기도 함
- 특히 교육연계 일자리, 사회참여형 일자리의 경우 노인 세대가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다른 세대와 교류하기 때문에 선배시민으로서의 노인의 위상 정립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노인 소득 확충에도 기여함

“일자리 중에서 ‘어르신 00이야기 동화나라’ (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어르신들이랑 이제 아이들이랑 1·3세대가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아이들이랑 대면을 하면서 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세대통합에 되게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요”

“일자리 사업으로도 연계되어 있어서 일자리 예산으로도 하고 제가 진행했던 두 발 자전거에서도 연계한 적이 있어서……”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일자리와 좀 연결을 지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거를(일자리) 조금 살릴 만한 프로그램들이 좀 같이 좀 결합이 돼서 진행이 되면 좋겠다……”

“노인일자리 다양성이 확대되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어, 자격증 취득 및 전문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일부이지만, 예산 부족이나 행정적 규제로 인해, 사업 참여자의 사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이 보고됨

- 소득 수준이 낮은 노인이나 청년 세대가 세대통합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더라도 사적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참여 의지가 약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상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봉사단이 있었어 가지고 교통비를 지급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약간 소소하고 교통비 정도……”

“vms를 쓰는데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하려면…… 절대적으로 무보수여야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을 엮어서 한동안 교통비 차원으로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재료비를…… 어르신들이 교구를 손수 만들기 때문에, 하드보드지 해서(사서) 붙이고 하거든요……”

⑤ 인식 개선

○ 세대통합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음

“어르신들이 직접 나가서 봉사를 할 수도 있는 역량이 충분한데…… 무조건 좀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 봉사를 좀 많이 해줘야 되는 기관이구나라는 생각을”

“노인 세대가 단순 수혜를 받아야만 하는 나약한 세대가 아닌, 세대 중의 어른으로서, 인생 선배로서 다른 세대에게 경륜을 전수 할 수 있는 역량있는 세대임을 (알아야)……”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수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부터 바뀌어 한다고 생각함”

○ 세대 간의 인식을 개선하고 이해하고자 노력할 때, 상호작용이 원활해지고 이를 통해 세대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실제로 각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이 수직적인지, 수평적인지, 대립적 관계로 이해하는지, 상호보완적 관계로 이해하는 지 등은 세대 간 상호작용의 태도에 영향을 미침
- 세대 간 상호작용 방식은 세대 간의 화합이나 갈등 정도에 영향을 줌
- 그러므로, 세대 간 인식 개선은 세대통합의 전제인 동시에 세대통합이 목표로 하는 바라고 할 수 있음

⑥ 다양한 콘텐츠 개발

- 세대통합 사업에서 다루는 주제를 다양화하는 것도 활성화와 효과성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른 다양한 희망 사업 콘텐츠를 제안함

“소통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가진 공통의 관심사를 알아서 많이 만날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상생활에서 어르신들의 삶의 경험과 지혜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밥짓기, 김장, 바느질, 손빨래, 다리미질 등 ”

“대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되면 좋을 것 같다”

“기후 위기 관련 그림책 제작 및 수요처 방문 활동”

“아동학대예방인형극 - 대본 제작 및 전문봉사단 발굴을 통한 세대통합프로그램을 위한 기관 내방 및 수요처 방문 진행”

“보호종료 아동들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이 알고 있는 부동산지식, 저축방법 등 자립 후 현실적으로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 도움과 어르신들의 대가 없는 따뜻한 사랑을 전달하여 어르신들이 부모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멘토링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고”

“심리 상담도 병행하면서 각자 성장하는 그런 것도 하면서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뭔가 있으면 되게 정말 세대통합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1박 2일 또는 2박 3일 세대통합 프로그램으로 팀빌딩(커뮤니케이션 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조직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해 봄”

“아동, 성인, 노인 연극단을 운영해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세대 간 토론 해보는 프로그램”

“50+에서 예비 노인 교육 및 웰다잉을 우선 교육시켜, 노년을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제2절 FGI 분석 결과: 구조적 장애요인과 개선 방안

- 세대통합 사업 담당자 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FGI 결과 세대 간의 상호작용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요인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 본 절에서는 각 장애 영역의 내용과 이를 극복할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동시에 세대 간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세대통합 사업의 기획과 진행, 평가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함

1. 인식 관련 영역

1) 장애요인과 내용

- 세대통합 사업과 세대 간 상호작용을 저해하는 요인 가운데 인식과 관련된 영역은 ‘각 세대에 대해 부정적으로 형성된 전형적 이미지, 세대 간의 관계를 경쟁적이고 이해 대립적으로 보는 시각, 사회·문화적 인식 및 행동의 준거 기준 차이’를 들 수 있음
- 각 세대가 다른 세대와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각 세대의 구성원이 지니는 개별성을 간과하거나 전형적 이미지만으로 다른 세대를 바라보는 것은 세대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
 - 특별히 각 세대가 가진 취약성이나 부정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것은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
- 각 세대에 대한 부정적이고 전형적인 이미지는 언론과 미디어가 제공하는 과대·초점화된 보도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음
 - 즉, 연령이 다른 개인 간의 관계나 현상을 각 개인이 대표하는 세대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확대 해석하는 사건 보도, 세대의 특성 가운데 일부를 극대화·희화하는 것 등이 부정적 이미지를 고착한다고 볼 수 있음

○ 각 세대가 가지는 부정적 이미지는 다음과 같음

- 젊은 세대는 노인을 병약하고 사회에 부담이 되는 존재, 봉사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음
- 젊은 세대는 40~60대가 사회적 성과에만 주목하며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관계를 강요한다고 여김
- 중장년·노인 세대는 20~30대의 젊은 세대가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인식을 지님
- 연령주의의 영향으로 나이 드는 것, 노인이 되는 것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여, 노인 관련 기관이나 문화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있음

○ 각 세대는 다른 세대와의 관계를 경쟁적이고 이해 대립적으로 보기도 함

- 베이비부머세대인 50~60대는, 노인 세대에 대한 부양의 의무와 자녀 세대에 대한 책임 사이에서 어떠한 사회적 혜택도 누리지 못한다는 피해의식을 느낌
- 노인 세대와 청년 세대는 일자리와 사회보장제도에서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있다고 여김
- 노인 세대 안에서도 연령에 따라 경쟁적이거나 이해관계가 대립하기도 함

○ 사회와 시대에 따라 가치나 행동양식, 문화 형태가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여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함

- 성인지감수성, 사생활 존중, 개인 정보 보호 등에 대한 인식 수준의 차이가 세대 간의 갈등으로 발전하기도 함
- 나이 많은 세대는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젊은 세대는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여 인식과 기대 수준에 차이가 생김

2) 개선 방안

- 세대통합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식 관련 장애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언론과 미디어는 각 세대의 긍정적인 롤모델을 발굴하고 양성하여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는데 기여하여야 함
 - 더불어 각 세대가 가진 특성의 형성 배경이나 장점을 다른 세대에게 알려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세대 별 전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대 구성원의 다양한 유형과 특성을 보여주도록 노력하여야 함
- 모든 세대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시민교육에 여러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식 관련 영역의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성인지감수성, 다양성 존중, 개인 정보와 사생활 보호 관련 교육, 연령주의와 차별, 학대, 장애 관련 인식 등은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세대에게 필요한 교육임
 - 여러 세대가 같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세대의 인식을 이해하고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음
- 인식 관련 장애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령에 기반한 사회서비스 제도가 각 세대를 경쟁 관계에 놓이게 한다는 오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세대 별로 유사한 환경이나 상황에 있는 이들을 매칭하여(예: 세대 별 1인 가구)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사회서비스는 연령뿐 아니라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계획되고 실행된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해야 함
 - 세대통합 사업을 계획할 때 연령 구분 없는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구상한다면 개별 세대를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음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노인복지기관에 대한 젊은 세대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종교시설이나 카페와 같이 특정 시간에 이용 가능한 공간을 임대,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표 3-3〉 인식 관련 영역 장애요인

	인식 관련 영역 장애요인		
내용	각 세대에 대해 부정적으로 형성된 전형적 이미지	세대 간의 관계를 경쟁적이고 이해 대립적으로 보는 시각	사회·문화적 인식 및 행동의 준거 기준 차이
	· 노인 세대는 도움을 필요로하는 봉사의 대상으로 여김 · 노인은 병약하고 사회에 기여하 는 바가 없다고 인식됨 · 40~60대는 사회적 성과에만 주 목한다고 여겨짐 · 20~30대는 개인주의적이고 자 기중심적이라고 인식됨 · 3세대는 1세대와의 접촉이 없으 므로 서로 이해가 불가능할 것이 라고 여겨짐	· 노인 세대와 청년 세대는 일자 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고 인 식함 · 노인 세대 안에서도 연령에 따 라 경쟁적이며 이해관계의 대립 이 있음 · 베이비부머 세대인 50~60대는 어떠한 사회적 혜택도 누리지 못한다고 느낌	· 세대별 성인지감수성, 개인 간에 서로 지켜야 할 적절한 예의 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다름 · 나이가 많은 세대는 수직적이 며 일방적인 관계를 강요하는 경향이 있음 · 연령주의의 영향으로, 나이가 적은 세대가 노인관련 기관이 나 문화에 대한 심리적 장벽 을 가지고 있음
개선 방안	· 노인, 실버, 시니어, 경로당 등의 용어 개선 모색 · 각 세대의 긍정적 이미지 제시: 긍정적인 롤모델 발굴 및 양성 · 성인지감수성·다양성 존중·개인 정보와 사생활 보호 관련 교육 · 연령주의, 차별, 학대, 장애 관련 인식 개선 교육 · 연령 기반 사회서비스가 각 세대를 배제하고 경쟁 관계에 놓이게 한다는 오해 해소 · 세대 별로 유사한 환경/상황에 있는 참여자 매칭 고려: 예) 1인 가구 · 연령 구분 없는 프로그램/교육 구상 · 노인일자리 유형을 다른 세대와 어울리는 것으로 확장 · 종교시설이나 카페와 같이 특정시간유휴 공간을 임대/활용하여 심리적 장벽 제거		

2. 물리적 환경 관련 영역

1) 장애요인과 내용

- 세대통합 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시간, 장소, 재정과 같은 물리적 자원의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함
- 물리적 환경 가운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사업 진행 시간에 대한 제약임
 - 각 세대 별로 주로 활동하는 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 특별히 중고등학생기의 청소년이나 젊은 세대는 평일 낮에는 학교와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노인 세대가 복지기관을 이용하는 시간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세대 별 주된 활동 시간의 차이는 세대통합 사업의 정규성이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함
 - 일상생활 안에서 지속적으로 다른 세대와 교류하는 가운데 세대통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적 제약은 사업 효과성 달성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 세대통합 사업을 진행하는 장소와 관련한 제약이 있음
 - 고령의 노인의 경우 평소 이용하던 노인복지기관이 아닌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있음
 - 차량 등을 이용한 이동에 드는 시간과 노력에 대한 부담, 기관 밖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한 우려가 사업 장소 선정에 제약이 됨
 - 노인복지기관이 아닌 장소를 이용하는 경우, 파손이나 손실에 대한 처리, 안전을 위한 보조와 지원 마련, 행적 서류, 세대 별로 다른 필요 충족(예: 큰 글씨 안내서 등) 등 추가로 발생하는 업무가 많음
- 노인복지기관이 아닌 곳에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재정 자원과 관련한 어려움도 발생함
 - 특별히 노인이 개별 이동할 때 발생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사적 비용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한 점은 노인복지기관이 아닌 장소를 선정하기 어렵게 함
 - 예산 항목과 운용이 경직되어 있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집행 필요를 모두 반영하기 어려움
- 지역 자원과의 연계를 위한 절차와 자원 수용, 분배, 사용의 과정이 복잡함

2) 개선 방안

- 시간, 장소, 안전, 재정 등 물리적 환경과 관련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특정 장소에 모이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활용도가 크게 높아진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비대면 프로그램의 개발을 활성화 하여야 함
 - 비대면 프로그램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의 이동과 관련한 어려움과 시간, 노력을 줄일 수 있음
 - 비대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에 상관없이 다양한 세대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음
- 이동 자체를 교류의 기회로 만드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노인 세대의 병원 동행처럼 한 세대에게 꼭 필요한 이동에 다른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동 자체가 세대교류의 기회가 됨
- 학령기 아동 청소년의 교육 과정에 세대교류, 생의 주기에 대한 이해, 나이듦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 교육 등을 포함하여야 함
 - 학교의 동아리 활동, 체험학습, 방과후 학교 등에 세대통합과 사회통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기를 수 있는 과정을 개설하고, 전문 강사/교사가 교육하도록 하여야 함
 - 전문 강사는 다양한 세대로 구성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혹은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사업, 근로복지사업단 등과 연계하여 강사를 양성하고 파견할 수 있음
- 학령기 세대의 방학이나 연휴 기간에 집중하여 진행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짐
 - FGI에서 세대통합 사업 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1·2·3세대 통합 캠프와 같은 프로그램은 이러한 시기에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동이나 노인복지기관 외 장소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함
 - 안전사고, 물품 파손 및 손실 등을 포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이나 보상 제도를 구축하여야 함

〈표 3-4〉 물리적 환경 관련 영역 장애요인

물리적 환경 관련 영역 장애요인

내용	시간과 장소의 제약	안전과 편의 문제	재정 자원 관련 어려움
	· 세대 별로 주된 활동 시간에 차이가 있음 · 정규성·지속성 확보가 어려움 · 고령 노인은 새로운 장소로 이동에 어려움이 있음 · 거동이 어려운 노인의 경우 차량 등을 이용한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큼	· 기관 밖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대처의 어려움 · 대여·협력 장소·물품의 파손 및 손실에 대한 처리 문제 · 기관 외부 이용시 작성·처리할 문서 및 절차가 복잡함 · 각 세대에게 필요한 보조·지원 기기 및 준비가 미흡한 경우가 많음	· 개별 이동 시 발생하는 사적 비용(교통비 등) 보상이 불가능함 · 지역 자원 연계의 절차와 과정이 복잡함 · 예산 운용이 경직되어 있어 융통성 있는 집행이 어려움
개선 방안	·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 모색 · 특정 장소에 모이지 않고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상 필요 · 이동 자체를 교류의 기회로 만드는 방법 모색 · 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 편입 혹은 체험학습 인정 등 · 학령기세대의 방학, 연휴 기간 등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사업 구상 · 포괄적 보상이 가능한 보험 가입 고려 · 노인일자리기관이나 근로복지사업단과의 연계를 통해 보상 문제 해결 모색		

3. 사업적 역량 관련 영역

1) 장애요인과 내용

- 세대통합 사업의 기획과 실행 과정에서, 적절한 정보 제공, 유연한 운용 등을 통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효과성 높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음
 - 그러나, 세대통합 사업 담당자가 사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만드는 요인이 존재함
- 세대통합 사업 담당자가 사업적 역량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정보 수집임
 - 현재 사업과 관련한 자료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고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플랫폼이 부재함
 - 이로 인해 사업 담당자는 사업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 함
- 또한, 우수 사례나 사업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이 없어 어떤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효과성이 있었는지 알기 어려움
- 사업 홍보, 참여자 모집, 자원봉사자 관리 등을 개별 기관에서 모두 진행해야 하므로 중복 참여,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 참여자 소외 등의 현상이 나타남
- 노인복지기관은 60세 이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노인이 포함되는 경우는 적어 세대 간 연계 프로그램이 부재함
- 기관별로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세대통합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부재함

2) 개선 방안

- 세대통합 사업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차원의 정보공유 채널을 구축하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플랫폼은 사업 아이디어, 우수 사례, 자체 정성적 평가 등을 공유하여 여러 기관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전국의 정보를 수집, 관리하여야 함
 - 고령사회대응센터와 같이 여러 세대를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기관에서 위와 같은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여겨짐
 - 플랫폼을 통해 참여자 모집, 사업 홍보와 확산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음

- 각종 사전 교육 자료와 진행 과정의 어려움에 대한 상담 및 의견 제안을 통해 발전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플랫폼 구축이 중요함
- 세대통합 사업의 효과성을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와 만족도 조사 도구를 제공하여야 함
 - 주기적, 정기적으로 관리되는 정보공유 플랫폼에 각종 평가 도구를 게시할 필요가 있음
- 기관이나 프로그램별 이용자가 세대별로 단절되지 않도록 행정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노인복지기관에서는 차세대 이용자인 50+세대까지 참여 대상으로 삼는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종합복지관은 60세 이상의 노인 세대가 젊은 세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세대 간 연계를 모색하여야 함
 - 주민센터, 도서관과 같은 이용자 제한이 없는 기관과 시설을 활용한 세대통합 사업을 더 활발하게 기획하여야 함
- 사회적 변화와 트렌드를 반영한 사업을 기획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유연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함
- 세대통합 사업의 효과성 평가 매뉴얼을 개발하여 배포할 필요가 있음
 - 특별히 프로그램 사전·사후 세대 인식 및 수용성 조사 도구를 개발하여 효과성을 측정하여야 함
 - 정량 조사와 더불어 정성 조사를 함께 실행하여 다양한 평가 의견을 수집하고 이후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음
- 세대통합은 곧 사회통합으로 연결된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다양한 세대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함
 - 특별히 세계인의 날, 장애인의 날, 어린이의 날, 청소년의 날 행사 등에 다양한 세대와 사회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

〈표 3-5〉 사업적 역량 관련 영역 장애요인

사업적 역량 관련 영역 장애요인

내용	정보 공유 채널 부재	행정적 제약과 사업 범위의 한계	효과성 평가 방식 부재
	· 사업 담당자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사업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많이 소모해야 함 · 우수 사례·사업 노하우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실질적 장이 없음 · 홍보·참여자 모집·자원봉사자 관리 등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 노인복지기관은 60세 이상 이용자 대상의 사업을 수행하고 종합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노인을 포함하는 경우가 적음	· 참여자나 연계 기관의 프로그램 만족도와 실제 세대통합 효과성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세대통합 효과성을 평가하는 도구가 부재함
개선 방안	· 참여자 모집과 사업 홍보를 확산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 사업 아이디어, 우수 사례, 자체 정성적 평가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한 사업 기획 지원 · 유연한 행정 적용 · 세대통합이 사회통합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두기 · 효과성 평가 매뉴얼 개발 필요		

제3절 세대통합 사업 가이드라인

- 세대통합 사업 담당자 대상 FGI 결과 분석을 통해 도출한 구조적 장애요인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의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 가이드라인을 구축함
- 제시된 가이드라인은 지역, 연령,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사업 기획과 진행, 평가 과정의 참고로 삼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임
- 각 기관은 그 특성과 역량, 연계된 사업,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예시된 내용을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함

〈표 3-6〉 세대통합 사업 가이드라인

항 목	내 용 예 시
명료한 목표 설정 · 세대통합의 영역 가운데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두세 가지 설정한다. · 목표에 기반하여 기대 효과를 설정한다.	· 각 세대에 대한 부정적 혹은 전형적 이미지 극복 → 긍정적 이미지 형성, 노인의 사회적 기여 인식 등 · 세대 간 만남의 기회 확대 → 만남을 통해 심리적 거리감 축소 · 세대 간 이해 · 각 세대의 경험과 문화 알아보기 · (여러) 세대가 함께 하는 다양한 체험 및 경험 활동 · 기술 및 경륜 전수 · 다양한 분야의 멘토링 → 취약 집단에 대한 지원 · 심리·정서적 지원 · 공통의 관심사(환경, 지역의 역사, 사회 이슈 등)에 관련된 활동 · 지역사회 이벤트 기획 혹은 참여 →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고취 · 지역사회 취약층을 위한 자원봉사 · 인식개선(다양성, 성인지, 연령주의, 학대 등) · 일자리 연계 → 소득 보장, 심리적 만족 등
구체적인 참여 대상자 선정 · 대상자의 연령대와 배경, 특성, 회기·세대 별 참여자 수 등을 구체적으로 선정한다.	· 노인복지관 이용자와 중학생 · 60대 노인과 70세 이상 노인 · 50+세대와 청년(20대) · 학교 밖 청소년(중고생 연령)과 50+세대 은퇴자 · 체육 관련 직종 은퇴자와 초등학교 ·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 고령 이주민과 출신국이 같은 중도입국 청소년 · 노인 1인 가구와 장년 1인 가구 · 50+세대와 발달장애아동 · 탈북노인과 스마트폰 사용법 교육 가능한 대학생 · 금융관련직 은퇴자와 사회초년생

적절한 진행 방식 채택 · 목표와 참여자의 특성·세대별 참여자 구성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진행 방식을 채택한다. · 필요하다면 두 가지 이상의 진행 방식을 결합할 수 있다.	· 강연 및 교육 청취 혹은 제공 · 1 대 1 활동 (지정 시간 혹은 시간 자율 결정, 지정 장소 혹은 자율 장소 등 결정) · 1 대 다 활동 · 참여자 전체 활동 혹은 워크숍(전문가 진행, 실무자 진행, 포레 리더 진행 등 결정) · 기획된 이벤트 혹은 사업 참여 · 비대면 및 간접 교류(우체통 방식, 릴레이식 교류 등) · 공간 및 자원 제공 · 1회성 사업(1일 사업, 캠프와 같은 2-3일 사업, 지역 이벤트 참여 등) · 연속 사업(지속 기간, 시행 주기, 회기당 시간 등 결정)
홍보와 참여자 모집 · 지역, 기관 이용자 특성, 지역사회 환경, 가용 예산 등을 고려하여 홍보 방식을 선택한다. ·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두세 가지 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집중 홍보 대상 선정 · 협력 기관 섭외 및 요청 사항 행정 처리 · 홍보 방식(전화, 게시판, SNS, 홈페이지, 보도자료, 현수막, 전단, 홍보물, 기존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활용, 직접 방문, 인적 자원 활용, 지자체 협력, 협력 기관에서 직접 모집 등) 선택 · 홍보 횟수, 진행 상황 확인 방식, 모집 초과/미달 시 대응 방안 등 결정 · 설정된 목표, 선정된 참여 대상자, 신청자의 일치 여부 확인 · 대상자 변경 혹은 확대/축소 필요성 여부 확인
필요한 자원 및 동원 가능성 조사 ·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리적·비물리적 자원을 되도록 세세하게 작성한다. · 필요한 자원의 조달 방법을 함께 기재한다.	필요한 물리적 자원 · 장소(대여료, 대여시 필요한 보험료 등 포함) · 이동 수단(이동 시 필요한 보험료 등 포함) · 물품: 비품, 소모품 · 비용 및 보상(기념품, 강사료, 행정 비용, 우편료, 참가비, 사례비, 교통비, 식비, 등) · 진행 기록(사진, 동영상 등) 비용 · 교육 및 홍보 자료 등 제작, 배포 비용 · 비대면, 간접 교류 진행 방식 수행을 위한 정보·통신 기기 및 비용 필요한 비물리적 자원 · 기관 외 장소 이용 시 필요한 행정 절차 · 프로그램 전후 준비 및 정리 시간 ·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역량 · 필요한 사전 교육(성인지, 개인정보 관련, “Dos and Don’ts” 등) · 안전 사고 대응 매뉴얼 · 기 수행 사업 및 유사 사업 관련 정보 자원조달 방법 · 지자체 및 중앙 정부의 지원 및 재정 · 기관 자체 예산 · 기관 예산과 협력 기관/기타 예산 결합 · 공모 사업 · 기부 및 후원, 장소 제공 ·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보상 자원 마련 · 지역사회 단체 및 네트워크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 자원봉사자 활용

예상되는 어려움 조사와 대처 방안 모색 · 계획 수립, 진행, 사후 단계에서 예상되는 어려움과 대안을 적는다. · 대안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실효성이 낮게 평가 될 경우 이유를 밝힌다. · 대안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함께 적는다. · 현 단계까지의 계획 가운데 변경·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다.	*제시된 장애 요소와 대안, 실효성은 특정 사업이나 기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 *각 기관이나 사업별로 예상되는 어려움과 대처 방안, 실효성을 파악하여야 적용하여야 함 《〈어려움과 대안 조사 예시〉》 <table><tr><th>장애 요소</th><th>대안</th><th colspan="2">실효성</th></tr><tr><td rowspan="4">세대 간 활동 시간 차이</td><td>방학 기간 중 2-3일 집중 진행</td><td>○</td><td></td></tr><tr><td>학교 정규 교육 시간에 편입</td><td>X</td><td>학교의 협력 가능성 낮음</td></tr><tr><td>학생들에게 체험학습 및 봉사활동 시간 부여</td><td>△</td><td>학교의 협력 도출 가능</td></tr><tr><td>주말 및 휴일 진행</td><td>△</td><td>실무자 시간외 근무 필요, 1세대의 주말 비선호</td></tr><tr><td rowspan="3">참여자 모집의 어려움</td><td>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td><td>△</td><td>잘은 활용으로 관련인 피로도 높음, 동일 참여자</td></tr><tr><td>지자체의 홍보 지원 및 직접 모집</td><td>○</td><td>통합된 정보망 활용</td></tr><tr><td>SNS와 홈페이지 적극 활용</td><td>△</td><td>휴대전화,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세대</td></tr><tr><td rowspan="3">노인복지기관에 대한 심리적 장벽</td><td>기관 외 장소 이용</td><td>△</td><td>어르신들의 이동, 안전사고, 장소 및 물품 사용 시 제약</td></tr><tr><td>비대면 프로그램 진행</td><td>△</td><td>교류 효과 감소, 기기 보유 및 조작 문제, 원거리 이동에 장애가 있는 경우는 활용 고려</td></tr><tr><td>기관명·사업명 변경을 통한 장벽 낮추기</td><td>△</td><td></td></tr></table>	장애 요소	대안	실효성		세대 간 활동 시간 차이	방학 기간 중 2-3일 집중 진행	○		학교 정규 교육 시간에 편입	X	학교의 협력 가능성 낮음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및 봉사활동 시간 부여	△	학교의 협력 도출 가능	주말 및 휴일 진행	△	실무자 시간외 근무 필요, 1세대의 주말 비선호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	잘은 활용으로 관련인 피로도 높음, 동일 참여자	지자체의 홍보 지원 및 직접 모집	○	통합된 정보망 활용	SNS와 홈페이지 적극 활용	△	휴대전화,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세대	노인복지기관에 대한 심리적 장벽	기관 외 장소 이용	△	어르신들의 이동, 안전사고, 장소 및 물품 사용 시 제약	비대면 프로그램 진행	△	교류 효과 감소, 기기 보유 및 조작 문제, 원거리 이동에 장애가 있는 경우는 활용 고려	기관명·사업명 변경을 통한 장벽 낮추기	△	
	장애 요소	대안	실효성																																			
	세대 간 활동 시간 차이	방학 기간 중 2-3일 집중 진행	○																																			
		학교 정규 교육 시간에 편입	X	학교의 협력 가능성 낮음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및 봉사활동 시간 부여	△	학교의 협력 도출 가능																																		
		주말 및 휴일 진행	△	실무자 시간외 근무 필요, 1세대의 주말 비선호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	잘은 활용으로 관련인 피로도 높음, 동일 참여자																																		
		지자체의 홍보 지원 및 직접 모집	○	통합된 정보망 활용																																		
		SNS와 홈페이지 적극 활용	△	휴대전화,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세대																																		
	노인복지기관에 대한 심리적 장벽	기관 외 장소 이용	△	어르신들의 이동, 안전사고, 장소 및 물품 사용 시 제약																																		
비대면 프로그램 진행		△	교류 효과 감소, 기기 보유 및 조작 문제, 원거리 이동에 장애가 있는 경우는 활용 고려																																			
기관명·사업명 변경을 통한 장벽 낮추기		△																																				
진행 과정 점검 · 수립된 계획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일회성 프로그램인 경우 사후 평가로 대신할 수 있다.	· 참여자 출석 관리 · 진행자 역량 및 적합도, 참여자의 호응도, 진행 방식의 적절성, 시간 안배 등 · 호응도 및 참여도 관리(매 회기 관찰, 기록하는 것이 좋음) · 중도 탈락자 충원 관리 · 비용 지출 관련 증빙 자료 관리 · 관련 기록(사진, 영상, 자료집, 증빙자료 등) 관리 · 안전 사고, 돌발 상황 발생 여부 점검 ·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 시 대처 상황 파악 및 사후 관리 · 목표와 진행 과정의 부합도: 회기의 적절성, 진행 시간 및 장소의 적절성,																																					

효과성 평가와 환류 · 사업 목표를 기반으로 한 기대 효과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 프로그램 만족도와 세대통합 효과 성취의 차이를 이해하고 평가 방식에 차이를 둔다. · 효과성과 만족도를 평가한다. · 환류 방식 및 사업 지속 여부, 사후 관리 등을 결정한다	·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 · 기대 효과 성취도 측정 설문 · 정성적 방법을 통한 참여자, 진행자, 협력 기관, 실무자의 평가 · 참여자 의견을 환류에 적용할지 여부 결정, 적용 수준 결정 · 개선안, 정성적 평가 결과, 제언 반영 방안 모색 · 증빙 및 보고 자료 작성 · 기록물 및 자료 취합, 보관·관리 방식, 책임자 결정 · 사업 지속 여부 결정 · 각 단계 별 진행
---	--

- 지역 차이, 주요 이용자, 우선적으로 세대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대상 집단, 기관의 역량과 자원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급한다면 세대통합을 넘어 사회통합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제4절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사업 계획 예시

- 구축된 가이드라인은 세대통합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 평가하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다음에서는 가이드라인에 기반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한 후 평가까지의 과정의 예시를 제시하였음
 - 제시된 사례는 각 기관, 지역, 역량과 자원에 따라 적절히 변용하여야 함

《나도 그래.....》 세대공감 프로그램

항 목	내 용
목표 설정 목적: 세대 간 인식개선 및 공감	· 세대 별로 형성된 전형적 이미지 탈피 · 세대 간 동질성 회복 · 다른 사람의 감정, 경험, 인식 등을 수용하는 연습
참여 대상자 선정 누구나	· 프로그램 성격상 기관, 학교, 동호회와 같은 모임 참여자가 모집 및 진행에 용이 할 것으로 보임 · 그림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유아부터 고령층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 · 문해력이 낮은 성인, 한국어 구사에 어려운 이주민, 시청각 장애인도 모두 참여 가능
진행 방식 비대면	· SNS, 참여/비참여기관 홈페이지□오프라인 게시판 · 의견대립이 적고 중립적인 주제 선정: 예) 어느 일요일 오후, 말썽쟁이 일기, 못 잇을 친구, 제일 맛있는 것, 아파트, 핸드폰, 내 손가락, 여름 소리 등 · 각 기관, 학교, 모임별로 주제 관련 그림, 글, 사진, 영상, 녹음 등 수집 · 공동으로 개설한 SNS 창구, 홈페이지 등에 수집된 작품 올리기, 작품 출력하여 오프라인 게시 · 매월 주제 선정, 마감일, 게시일 공지. 진행 회기 결정 · 응모 작품은 별도의 선정과정 없이 모두 게시. · 내용 확인은 필요. 참여자 연령과 성별만 공개

홍보와 참여자 모집 기관 협력	· 각급 학교 학생 및 교사, 복지관이용자, 지역 주민 · 될 수 있으면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선정: 유치원, 초중고등□대학교, 주민 동아리, 동호회 등 · SNS, 오프라인게시판, 문자 등 활용. · 기관 협력 요청 공문 발송 · 참여자에 대한 보상 방식 모색: 학교의 경우 동아리 활동이나 체험 학습의 일환으로 별다른 보상이 필요 없을 수도 있음																					
필요한 자원 및 동원 가능성 인적자원, 비용, 물품, 공간 등 확보 용이한 편	· 인적 자원: 홍보, 협력 요청, 주제 선정, 작품 모집 및 참여자 확인, · 녹화 및 녹음 보조, 그림 및 사진 촬영 · 작품 게시 허가, 작품 게시 및 철수 · 인물 사진이나 이름 모자이크 처리, · 효과성 검증을 위한 사전□사후조사, 만족도 조사, 정성적 평가 · 물적 자원: 녹음, 녹화, 출력, 재생 관련 장비의 구비 여부, 대여 가능성, · 발생 비용 검토 · 기관 예산 내 소화 가능 여부, 후원 및 지원 가능 여부, · 오프라인 게시 공간 크기 및 게시 가능 기간 확인, 출력물의 크기, 출력 방식 결정에 필요 · 작품 제작에 필요한 비용 지원 가능성: 예) 그림 도구, 조형물 제작 재료 등																					
예상되는 어려움과 대처 방안 쏟림 현상	<table><tr><th>장애 요소</th><th>대안</th><th colspan="2">실 효 성</th></tr><tr><td rowspan="4">특정 세대/연령 / 성 별 참여자 편중 가능성, 동일 참여자 반복 가능성</td><td>불특정 대다수를 향한 홍보보다는 회차별 타겟 설정이 유리할 수도 있음</td><td>○</td><td></td></tr><tr><td>특별히 기관 협력을 요청할 때, 성별, 연령, 참여 횟수 등의 균등화 관련 정보 제공 필요</td><td>△</td><td>학교의 협력 가능성 낮음</td></tr><tr><td>한 회기에 참여자가 지나치게 많으면 게시, 수용, 이해, 인식 개선 효과 저하가 발생할 수 있음. 참여 가능 회수 설정(예: 총 3회) 필요</td><td>○</td><td></td></tr><tr><td>협력 기관의 사후 관리 소홀 우려: 지속적으로 게시 상태 확인, 홈페이지, 인스타그램등 여러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게시 필요</td><td>△</td><td>조형물이나 영상물의 지속적인 게시 효율성 검토 필요</td></tr><tr><td></td><td>작품, 의견 등에 대한 비난이나 악성 대응 가능성, 편향적 의견 표출: 게시 전 점검 필수, 댓글/좋아요 등 금지</td><td>○</td><td></td></tr></table>	장애 요소	대안	실 효 성		특정 세대/연령 / 성 별 참여자 편중 가능성, 동일 참여자 반복 가능성	불특정 대다수를 향한 홍보보다는 회차별 타겟 설정이 유리할 수도 있음	○		특별히 기관 협력을 요청할 때, 성별, 연령, 참여 횟수 등의 균등화 관련 정보 제공 필요	△	학교의 협력 가능성 낮음	한 회기에 참여자가 지나치게 많으면 게시, 수용, 이해, 인식 개선 효과 저하가 발생할 수 있음. 참여 가능 회수 설정(예: 총 3회) 필요	○		협력 기관의 사후 관리 소홀 우려: 지속적으로 게시 상태 확인, 홈페이지, 인스타그램등 여러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게시 필요	△	조형물이나 영상물의 지속적인 게시 효율성 검토 필요		작품, 의견 등에 대한 비난이나 악성 대응 가능성, 편향적 의견 표출: 게시 전 점검 필수, 댓글/좋아요 등 금지	○	
장애 요소	대안	실 효 성																				
특정 세대/연령 / 성 별 참여자 편중 가능성, 동일 참여자 반복 가능성	불특정 대다수를 향한 홍보보다는 회차별 타겟 설정이 유리할 수도 있음	○																				
	특별히 기관 협력을 요청할 때, 성별, 연령, 참여 횟수 등의 균등화 관련 정보 제공 필요	△	학교의 협력 가능성 낮음																			
	한 회기에 참여자가 지나치게 많으면 게시, 수용, 이해, 인식 개선 효과 저하가 발생할 수 있음. 참여 가능 회수 설정(예: 총 3회) 필요	○																				
	협력 기관의 사후 관리 소홀 우려: 지속적으로 게시 상태 확인, 홈페이지, 인스타그램등 여러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게시 필요	△	조형물이나 영상물의 지속적인 게시 효율성 검토 필요																			
	작품, 의견 등에 대한 비난이나 악성 대응 가능성, 편향적 의견 표출: 게시 전 점검 필수, 댓글/좋아요 등 금지	○																				

진행 과정 점검 매회기 점검 필요	· 회기 별 주제 적절성 확인, 참여자 수와 구성 확인, 작품 게시 및 철수 상황 확인 · 참여대상에게 적절한 주제인가? 목표 참여자 수가 달성 되었는가? 협력 기관에서 수용 가능한 주제인가? · 세대 별 참여자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가?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작품이 접수 되는가?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 지고 있는가? · 작품 게시에 문제는 없는가?(기간, 방식, 훼손, 철거, 보관등) · 개인 정보, 저작권등의 문제는 없는가? · 더 많은 사람들이 작품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다른 세대의 의견, 감정 등에 공감하는가? · 세대간 동질성 확보를 위해 더 좋은 주제가 있는가?
효과성 평가와 환류 정량/정성 평가	· 사전/사후 인식 차이, 만족도, 공감 정도 측정, 만족도 조사 · 심화/후속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주제는 무엇인가? 작품집 등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가? · 사전 조사와 사후 조사에서 세대 간 인식이 달라졌는가? 동질감, 공감 정도가 상승하였는가? · 다른 세대에 대해 부정적으로 형성된 전형성 탈피에 도움이 되었는가? · 이유는 무엇인가? · 참여자가 만족하고 자존감향상에 도움이 되었는가? · 발생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향후 지속/심화/폐지 가능성은 있는가? ·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제4장

정책 제언 및 결론

제1절 정책 제언

제2절 결론

Incheon Metropolitan City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제4장 제언 및 결론

제1절 정책 제언

1. 개요

- 인천시는 2027년 고령인구가 전체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견됨
-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인천시는 고령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본 연구는 고령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8개 영역 가운데 존중과 사회적 포용, 특별히 세대통합에 주목함
- 세대통합은 세대 간 교류를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 간의 이해와 존중을 도모하고 사회적 포용과 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그러나 세대통합 사업의 담당자를 인터뷰 한 결과 세대 간 상호작용을 저해하고 세대통합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발견하였으므로, 연구를 통해 장애요인 극복·개선 방안을 도출함
- 또한 세대통합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구축함
- 본 절에서는 세대통합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사업을 담당하고있는 실무자와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함

2. 지자체 차원의 정보 교류 플랫폼 구축

- 현장에서 세대통합 사업을 실행하는 담당자들은 사업 계획을 위한 아이디어와 관련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함
- 세대통합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에 접촉하더라도 담당자 교체, 기록 보존 미비 등의 이유로 적절한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음
- 다양한 세대를 참여자로 모집하기 위한 협업을 위해 각종 기관, 학교, 공동체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나, 세대통합 사업에 대한 인식이나 욕구를 지닌 기관을 파악하기 어려움

- 또한 세대통합 사업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기관이 많아 협력을 이끌어 내기 어려움
 - 세대통합 사업에 대한 수요가 있는 기관이라도 원하는 프로그램, 진행 방식, 규모 등 자료를 일일이 조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높음
- 이와 같은 정보 수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대통합 사업 관련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플랫폼은 지자체 차원에서 구축하여 적절한 기관에서 관리하도록 위탁할 수 있음
- 세대통합 사업은 한 세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여야 하므로 다양한 세대가 접근이 유용한 기관에서 플랫폼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예를 들어 고령사회대응센터의 경우, 주 이용자는 50~60대이지만 노년기 삶을 준비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사회 흐름을 반영하여 젊은 세대와의 교류를 포함하는 사업을 진행함
 - 그러므로 센터에서 세대통합 관련 정보와 국내외 사례를 수집하고 각 지역이나 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전달한다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소진을 방지할 수 있음
- 정보 공유 플랫폼은 사업 아이디어 외에도 관심 있는 기관, 협력 필요가 있는 단체에 대한 정보를 함께 다룰 수 있음
- 플랫폼을 통해 각 기관은 수월하게 협력 기관을 섭외할 수 있고 공동으로 지원해야 할 자원, 인력, 필요한 행정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우수 사례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 사례를 공유한다면,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수정·활용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임
- 플랫폼은 세대통합 관련 전문가 풀을 구성, 운영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 사업 담당자는 세대통합 사업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나 사회통합으로의 확장성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자문,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힘
 - 또한 사업 진행에 필요한 전문 강사, 지도자 인력풀을 함께 탑재한다면 사업 계획 수립과 진행, 돌발 상황 발생 시 대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함
- 개별 기관이 겪는 홍보 및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도 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각 기관은 이용자 중심으로 사업 홍보와 참여자 모집을 하기 때문에, 같은 참여자가 여러 사업에 중복 참여하는 문제가 있음
 - 중복 참여는 다양한 대상자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뿐 아니라 참여자의 피로도가 높아진다는 문제도 함께 지님
 - 다양한 세대가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성한다면 새로운 참여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임
-
- 정보 공유 플랫폼은 노인복지기관 외에도 각종 복지관, 각급 학교, 주민 공동체 등이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정보 공유 플랫폼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 새로운 기관과 대상자 및 전문가 발굴, 자원봉사자와 참여자 관리, 정보와 운영 기록이 매우 중요함
 - 그러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세대통합이나 유사 사업을 함께 관리하는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사업을 지원할 것을 제안함

3. 세대별 욕구 조사

- 세대통합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대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현재까지 각 연령대 혹은 세대별 실태조사나 욕구 조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세대 간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 우리 사회의 통합 수준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는 사회통합실태조사의 경우, 세대 간 소통 수준, 갈등 정도, 포용성, 사회 갈등의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으나, 각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바라는 바를 알기는 어려움
- 예를 들어, 젊은 세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느끼는 노인의 행동(예: 공공장소에서 큰소리로 말하기 등)은 신체 기능 저하(청력)와 관계있음
- 그러나,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는 이와 같은 현실적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불쾌감을 느끼기도 함
- 이에, 세대통합과 관련된 구체적인 욕구를 파악한다면 효과적인 상호작용 방식을 개발할 수 있고 효과성을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임

- 세대 간 이슈 파악을 위해서는 다세대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세대별 욕구를 조사하고 분석한다 하더라도, 세대별 구성원이 다른 세대의 욕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장이 없다면 욕구 조사의 실효성은 낮을 수밖에 없음
 - 그러므로 다세대 협의체를 통해 세대 간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4. 취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활용

- 세대통합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자원을 면밀히 조사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함
- 해외 세대통합 사업의 사례를 살펴보면, 단일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장소보다는 모든 세대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자연스럽게 세대 간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우가 많음
 - 인천시의 경우 개방경로당 사업을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으나 젊은 세대는 경로당이라는 명칭에서도 심리적 장벽을 느끼기도 함
 - 그런데, 인천시 전역에는 상당수의 빈집이 존재함
 - 빈집은 방치될 경우 안전 사고와 붕괴의 위험이 있고 미관을 해치며 심리적 불안감의 원인이 되기도 함
 - 지자체에서 빈집을 임대/구매하여 여러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종로구의 경우 오래되고 낡은 한옥을 지자체에서 임대, 수리하여 주민들의 모임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를 참고하여 인천시 실정에 맞는 빈집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다양한 세대가 같은 장소를 이용하는 경우, 여러 세대가 함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노인일자리사업, 청년일자리사업, 중장년일자리지원사업 등 다양한 세대의 일자리 사업을 연계하여 개조/개축한 빈집을 관리한다면 여러 세대가 거부감 없이 장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임
 - 장소가 모든 세대에게 열려있다 하더라도, 관리 주체가 한 세대에 편중 될 경우 다른 세대가 이용하는데 부담감을 가질 수 있으므로 균형있는 관리, 운영이 중요함

- 지역사회 안에는 활용가능한 다양한 자원이 존재하나 사업 담당자가 모든 가용 자원을 파악하기는 어려움
 - 세대통합 사업을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환경적 자원을 망라하여 지역 내 소재지, 자원의 유형, 규모, 연계 가능성 등을 정보화하여 정보 공유 플랫폼에 게시하고 연계를 지원하여야 함
 - 특히, 자원별 분포를 시각화한다면(예: 자원맵핑 등) 필요한 자원 파악, 연계 방안 모색에 도움이 될 것임
 - 이때 연령과 분야 별 인적 자원 분포를 내용에 포함하여 전문가/자문자 확보에 용이성을 더할 수 있음

- 세대통합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하여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인천시는 면적이 넓고 도서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지역차가 큰 편이어서 이동과 통합 사업에 어려움이 있음
 - 그러나, 감염병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비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었음
 - 온라인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이동 거리, 시간적 제약 등을 극복하고 더욱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음

- 세대통합 사업 진행에서 고령 노인은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이동의 어려움이라는 취약점을 세대 간 만남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공식적 돌봄 영역에 진입하지 못하였거나 돌봄이 양이 부족한 노인이 병원, 관공서, 은행을 방문하는 경우, 다른 세대의 도우미가 동행함으로써 접촉과 교류를 이끌어 낼 수 있음
 - 청년일자리, 중장년일자리, 자원봉사와 같은 제도와 연계한다면 더욱 다양한 세대 간 교류가 가능함

5. 상세한 가이드라인 구축

- 세대통합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대통합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 인식이 선결되어야 함
- 세대통합은 여러 세대가 한 공간에 머무르는 것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또한, 세대통합은 사회 구성원이 서로 포용하는 사회통합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세대통합의 내용과 사회통합으로의 확장 관계를 이해한 후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진행하여야 세대통합 사업이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음
 - 그러나,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세대통합에 대한 개념이나 기대 효과를 잘 알지 못하여, 사업 참여자에게 세대통합 사업의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사업 담당자들은 세대통합의 의미, 기능, 필요성을 교육, 전달할 수 있는 자료의 필요성을 강조함
- 이에, 세대통합 사업의 기획부터 평가까지의 각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을 비교 점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할 것을 제안함
 - 가이드라인은 사업의 단계에 따라 고려할 점, 필요한 사항, 효과적 진행 방법, 장애요인 예측과 대안 해결 방안 도출 방법, 점검 사항, 참여자 관리, 사후 평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세대통합 사업 사례를 종합하고 사업 담당자의 의견을 취합하여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을 구축함
 - 그러나, 교류 세대, 지역, 참여자 유형, 교류 목적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는 수집된 자료에 한계가 있음
 - 후속 연구를 통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것이 향후 사업 지속과 효과성 극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짐

6. 사업 효과성 측정을 위한 지침 및 도구 개발

- 세대통합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다수 있으나, 사업의 효과성이나 세대통합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함
 - 현행 사업은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를 통해 성과를 측정하는데, 이는 실제 세대통합 달성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님
 - 세대통합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고령친화도시 환경 조성, 사회통합지표, 세대 간 감정적 거리, 연령통합지표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척도가 필요함
 - 동시에 학계, 현장, 당사자의 의견과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인천시 실정에 부합하도록 척도를 구성하여야 함
- 이와 같은 세대통합 효과성 측정 도구 개발은 지자체 차원의 연구와 지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척도 개발과 함께 정성/정량적 평가 방식에 대한 지침을 함께 제작하여 현장에서 실제로 수 있도록 해야 함

7.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유연한 행정

- 세대통합은 일회성 행사나 단기 교육으로 이루어 낼 수 없는 인식의 변화를 필요로 함
- 다른 세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교류하는 동시에 이해와 존중, 포용과 같은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교육이 동반되어야 함
 - 특히, 유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다른 세대와 접촉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많이 가질수록 나이 들어나 노화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을 막을 수 있음
- 그러나, 핵가족화와 세대 간 주요 활동 시간 및 거주 지역의 차이는 세대 간 접촉의 기회를 제공하기 어려움
- 이에, WHO가 권고하는 바와 같이 각급 학교 교육 안에 다른 세대와의 교류가 가능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함

- 각급 학교에서는 정규 교과 과목 외에도 다양한 체험활동, 동아리,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이러한 활동 안에 여러 다른 세대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포함한다면 자연스럽게 세대 간 교류와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임
- 또한, 교육 과정 안에 세대교류/통합 활동이 포함된다면 세대 별 주 활동 시간의 차이라는 장애를 극복할 수 있음
- 학교 교육 과정 안에 세대통합 관련 활동을 포함하는 것 이외에,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안에 세대 간 교류와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함
- 세대 간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해외 세대통합 사례에서 보듯이, 하나의 사업이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를 때 자연스럽게 통합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
- 현재 인천시의 세대통합 사업은 노인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여러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지 않음
 - 더불어 현 이용자와 예비 이용자 사이에도 상당한 단절이 존재하여 60대 초중반 이용자를 찾아보기 어려움
 - 이런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관별 이용자 제한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노인복지관이, 60대 이용자가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덜 느끼는 50대 후반부터 고령 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반대로 종합복지관에서 고령의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음
- 중장년 세대는 노인과 젊은이 세대를 이어주는 역사적,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연구에 참여한 세대통합 사업 담당자들은 40~60대 중장년 세대가 노인 세대나 젊은 세대와 갈등을 경험하는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적다고 보고함

- 따라서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 아동청소년 세대를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40~60대 세대와 다른 세대가 접촉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보고함
 - 현재 중앙과 지자체의 생애주기 관련 부서를 살펴보면,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노인을 담당하는 부서는 존재하나 중장년을 전담하는 부서를 찾아보기 어려움
 - 중장년 관련 부서가 있는 경우라도 일자리, 취업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할 뿐 이들의 사회적·정서적 욕구를 파악하거나 다른 세대와의 관계를 고려하는 경우는 매우 적음
- 이에, 본 연구는 생애주기를 촘촘하게 담당할 수 있도록 중장년 전담 부서를 설립할 것을 제안함
- 전담 부서는 각 부처에 산재한 관련 업무를 한 곳으로 집중하고, 중장년 세대가 경험하는 사회·심리·정서·경제적 현안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봄

제2절 결론

- 2027년 인천시는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됨
- 인천시는 2022년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함으로써 연령에 상관없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함
- 그런데, 인천시의 노력은 고령친화환경 조성 8개 영역 가운데 물리적, 환경적 개선에 집중된 경향이 있음
- 본 연구는 인식개선과 정책적 접근에 주목하여 세대통합을 통해 존중 및 사회적 포용 영역의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문헌 연구를 통해 세대통합 사업을 수행하게 된 배경과 국내외 세대통합 사업 사례와 특징을 소개함
- 인천시 세대통합 사업의 특징은 노인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1·3세대(아동과 노인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주를 이룬다는 점임
- 또한 일회적, 한시적 사업이 많고 사업의 내용, 시행 시기, 현재 진행 여부 등의 자료가 정리되지 않아 실질적 효과성을 파악하기 어려움
- 인천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세대통합 사업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관 세대통합 사업 담당자/관련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함
-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세대통합 사업 장애요인은 다음과 같음
 - 인식 관련 영역 장애요인
 - 각 세대에 대해 부정적으로 형성된 전형적 이미지
 - 세대 간의 관계를 경쟁적이고 이해 대립적으로 보는 시각
 - 사회·문화적 인식 및 행동의 준거 기준 차이
 - 물리적 환경 관련 영역 장애요인
 - 시간과 장소의 제약
 - 안전과 편의 문제
 - 재정 자원 관련 어려움

- 사업적 역량 관련 영역 장애요인
 - 정보 공유 채널 부재
 - 행정적 제약과 사업 범위의 한계
 - 효과성 평가 방식 부재

- 이들 장애요인 극복하기 위하여 학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음
-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 각 세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발굴과 확산
 - 다양한 세대를 모두 아우르는 프로그램이나 교육 제공
 - 일자리 사업, 자원봉사, 학교 교육 과정 등을 연계하여 지속적인 세대 교류 촉진
 - 지역사회 인프라와 자원 파악과 활용
 - 비대면 프로그램이나 틀을 깨는 사업 아이디어 수용 등임

- 연구 과정에서 인터뷰 대상자들은 세대통합 사업 전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축을 요구하였으므로, FGI 분석 결과와 학계 자문 의견, 문헌 연구를 종합하여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음
 - 더불어 사업 계획과 진행, 평가에서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였음

- 세대통합 사업을 활성화 하고 연령에 상관없이 서로 존중하며 포용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제안함
- 도출된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음

- 지자체 차원의 정보 교류 플랫폼 구축
 - 사업 관련 아이디어, 우수 사례, 연계 기관, 지역 자원 등 관련 자료 소개와 정보 공유의 도구로 활용
 - 전문가, 강사, 교사, 자원봉사자 등 인력풀 구성 및 관리

- 지자체 차원에서 세대통합 사업, 고령친화도시 관련 사업, 고령사회 대응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뢰할 만한 기관에 관리 운영을 위탁할 것을 제안함

○ 세대별 욕구 조사

- 각 세대별로 다른 세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존중받고자 하는 영역, 수용할 부분 등에 대한 조사가 기반이 될 때, 모든 세대가 만족할 수 있는 세대통합이 가능함
- 다세대 협의체와 같이 여러 세대가 모여 세대 간 이슈를 논의하고, 연구 사업을 통해 이론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취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하여 활용

- 인천시 내 지역 간 격차, 특징, 세대 간 주요 활동 공간과 시간의 차이 등의 취약점을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함
- 빈집 활용, 다양한 세대가 함께 관리 운영, 세대별 일자리 사업과의 연계 등은 젊은 세대가 노인복지기관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심리적 장벽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임
- 지역 내 산재한 자원을 시각화하여 여러 기관이 공유한다면, 부족한 자원과 여유 자원의 공유에 용이할 것으로 보임

○ 상세한 가이드라인 구축

- 인터뷰에 참여한 세대통합 사업 담당자들은 각 세대별 특징을 파악하고 적절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낌
- 그러므로 지역, 연령, 상황, 기관 유형, 목적 등을 반영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은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노인복지기관 외에도 세대통합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조사하고 실무자를 면담하여 지역과 기관 특성에 맞는 상세 가이드라인 구축을 후속 연구로 제안함

○ 사업 효과성 측정을 위한 지침 및 도구 개발

- 세대통합 사업을 수년간 지속해 온 기관에서도 사업의 세대통합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보유하지 못함
-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로 사업 효과성 평가를 갈음함
- 이에, 세대통합 수준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 도구 개발이 필요함
- 평가 도구 개발은 방대한 자료와 전문 지식의 종합을 필요로 하므로 지자체 차원의 연구 사업으로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임

○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유연한 행정

- 세대통합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학교 교육 안에 세대 간 교류, 다른 세대에 대한 이해 과정 및 활동을 포함한다면 자연스럽게 긍정적 인식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임
- 동시에 각 복지기관 사업의 대상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도 여러 세대를 함께 아우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특별히,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를 연결하는 중장년 세대를 전담하는 관련 부서를 설립하여 이들 세대가 세대 간 교류, 갈등 완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인천시 세대통합 사업은 노인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세대통합 사업의 현황과 장애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사업 수행기관의 성격으로 인해 대상자의 대다수가 노인복지관 종사자로 구성되었음
- 인터뷰 대상자 선정의 편향으로 인해 다른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 관련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참고문헌

- 권채리(2022). 세대갈등의 배경과 법적함의: 68세대부터 코로나 세대에 이르기까지. 법과 사회, 71, 323-355.
- 김찬호(2018). 세대통합. 50+리포트, 9.
- 이재경(2018). 세대갈등의 양상, 원인, 대안 모색: 한국의 렌트(추구)사회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18, 18-47.
- 임유진(2021). 복지와 세대 갈등의 상관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대한정치학회보, 29(2), 53-73
- 정경희(2004). 인구고령화와 연령통합 사회. 사회연구, 7, 11-26
- 정경희(2016). 연령통합 지표로 본 한국의 연령통합 수준. 보건복지포럼, 233, 74-88
- 정순돌·이수영·박민선·신보람·김지연(2021). 연령집단간 세대갈등의 영역과 원인: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3(3), 229-253.
- 최유석(2016). 세대 간 연대와 갈등의 풍경. 경기, 파주: 한울아카데미.
- 하석철. 인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실행계획 수립 연구.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 하석철·김제희(2021). 2021년 노인실태조사.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 하석철·이선영(2020). 고령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모니터링 운영 방안.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 하석철·이선영(2018). 인천시 노인의 지역사회 인식 연구.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 한국행정연구원(2023). 2022년 사회통합실태조사.
- 황선재(2022).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 자원배분을 둘러싼 세대간 형평. 사회과학연구, 33(2) 149-172.
- Zelenev, S.(2006). Towards a “society for all ages”: meeting the challenge or missing the boat. International Science Journal, 58(190), 601-616.
- WHO(2007). National programmesfor age-friendly cities: A guide
- World Health Organization(2018). The Global Network for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looking back over the last decade, looking forward to the next.
- 〈인터넷 검색〉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B%85%B8%EC%9D%B8%EB%B3%B5%EC%A7%80%EC%A7%80%EC%9B%90%20%EA%B8%B0%EB%B3%B8%EC%A1%B0%EB%A1%80> (검색일: 2023.9.1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29780>

(검색일: 2023.9.4.)

PFP 웹사이트, <https://www.petitsfreresdespauvres.fr/> (검색일: 2023.9.13.)

CoGenerate 웹사이트, <https://cogenerate.org/> (검색일: 2023.9.13.)

Mehr Generationen Haus 웹사이트, <https://www.mehrgenerationenhaeuser.de/>

(검색일: 2023.9.14.)

LGNI 웹사이트, <https://www.linkinggenerationsni.com/> (검색일: 2023.9.14.)

WHO, <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who-network/> (검색일: 2023.9.8.)

시니어연구 2023-03

인천시 세대통합을 위한 상호작용 활성화 방안 연구

발 행 일 ॥ 2023년 12월

발 행 처 ॥ 인천사회서비스원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편 집 인 ॥ 시니어연구팀

주 소 ॥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29 행정타운 및 제물포스마트타운 10층

전 화 ॥ (032)715-5491 팩 스 ॥ (032)715-5319

홈페이지 ॥ <http://inlife.or.kr>

인 쇄 ॥ 예림디자인 032-260-3877

ISBN 979-11-92210-48-3 : 비매품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에 있으며,
센터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